

第1線 大東亞 新家庭

詩學 東方評論 詩文學



文 三千里

星 藝 精

大潮 白光

東洋之光 林風 象形 詩建 綠旗 中尖

한 국 근 대 문 학 해 제 집

III

문학잡지(1927~1943)

判批 紙色青 亞東新 學文鮮朝



刊日藝文 獵 庭家新

新 人 說 小 와 詩 文 博 論評文人

紀世新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層斷 術藝劇

學 論公海四 代時新 員勤總

한 국 근대 문학 해 제 집

Ⅲ

문학잡지(1927~1943)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일러두기

수록 범위

- 창간호를 기준으로 1927년부터 1943년까지 발행된 근대문학 잡지 52종에 대한 해제를 담고 있다.
- 해제 대상 자료는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자료의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객관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해제

- 해제 원고는 1종당 200자 원고지 10매를 기준으로 하되 자료의 가치나 분량에 따라 조절하였다.
- 해제 대상 자료의 표지 및 판권지 사진은 창간호 원본을 기본으로 하되, 창간호 또는 원본이 없는 경우 차호 또는 영인본의 사진을 수록하였다.
- 해제는 대상 자료에 대한 개요, 서지사항, 구성 및 내용, 평가 등을 기술하고 별도로 핵심어와 참고문헌을 제시하였다. 각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창간 및 종간 연월과 특성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 ◎ 발행 및 편집, 표지화 및 장정 등에 관련된 특징을 기술하였다.
- ◎ 전체적인 구성과 참여 필진, 수록된 작품의 특징과 의의를 기술하였다.
- ◎ 문학사적 가치 등 종합적인 평가를 기술하였다.
- ◎ 해제를 대표하는 핵심어를 제시하였다.
- ◎ 해제 대상 자료를 연구한 주요 연구서 및 논문을 제시하였다.

표기

-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 기타 전문 용어 등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원어를 표기하였다.
- 발행일은 판권지를 기준으로 하고 서력환산기년으로 표기하였다.
- 원본 소장처는 대표기관 한 곳만 표기하였다.
- 잡지명은 겹낫표(『 』), 작품명 및 기사명은 홑낫표(「 」)를 사용하였다.
- 참고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표기하였다.
- 그 외 일반적인 표기원칙은 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다.

배열

- 해제 대상 자료는 창간호 발행일순으로 수록하였으며 번호를 부기하였다.

목록 및 색인

- 해제집의 마지막에 잡지의 각 호별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 여부를 정리한 목록을 제시하였다.
- 잡지명 색인을 가나다순으로 제시하였다.

목 차

002 일러두기

1927~1932

- 008 신조선
- 011 삼천리 / 삼천리문학
- 015 시문학
- 018 대조
- 021 혜성
- 024 비판
- 027 문예월간
- 030 신동아
- 034 동방평론
- 037 연극운동
- 040 제일선
- 043 신계단

1933~1935

- 048 전선
- 051 신가정
- 054 조선문학
- 057 가톨릭청년
- 060 학등
- 063 중앙
- 066 문학
- 069 형상
- 072 극예술
- 075 신인문학
- 078 삼사문학
- 081 예술
- 084 시원
- 087 사해공론
- 090 조광

1936~1938

- 096 녹기
- 099 시와 소설
- 102 여성
- 105 시건설
- 108 시인부락
- 111 막
- 114 풍림
- 117 백광
- 120 소년
- 123 단층
- 126 자오선
- 129 청색지
- 132 맥
- 135 박문

1939~1943

- 140 신세기
- 143 동양지광
- 146 문장
- 149 시학
- 152 충동원
- 155 인문평론
- 158 신시대
- 161 춘추
- 164 국민문학
- 167 대동아
- 170 방송지우
- 176 자료목록
- 203 잡지명 색인





한編輯・嚴密한校正은을
되는바사실때는한드시「博文書館版」
으로注文하시면即送와합니다.

朝鮮語
復習・豫習・學習用好評의練習帳
今年度新版後期用이나왔습니다.
하루한장의國語와算術과朝鮮語를練習할수있
는模範的練習帳입니다.小學校마다大好評으
로圖體注文
定一各册四十五錢・六學年後期用
還至!

- 1927 신조선
- 1929 삼천리 / 1938 삼천리문학
- 1930 시문학
- 대조
- 1931 해성
- 비판
- 문예월간
- 신동아
- 1932 동방평론
- 연극운동
- 제일선
- 신계단

1927~1932

배우고 상사 政府의 月給給이 가안이요 노로히비가 常身로
고 補給받이요
「나가음향?」 그는大聲한듯이 마사릭크를바라본다.
「나가음향?」 「무엇을그렇게?」
「보고 나들官吏인줄아시요?」
「常身보다 조금더 커 프와크에서 XXX가 걸려이니 招待
接하는 報告?」 허허... 허나 의집에는아모것도업소 荷
荷이나한안드레치요」 하며 파사릭크 「음」보여술을필두
하며 「미리
에는同志한
기를듣고
「先生님,
「아직죽지
까지는 죽
그는開志
荷吏의 荷

001 신조선

新朝鮮

조선일보사, 신조선사

1927. 2. 10 ~ 1936. 1. 1

『신조선』은 정치·경제·국제·사회·이데올로기·문예·과학·역사·스포츠·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종합잡지다. 조선일보의 부속 사업으로 1927년 2월 창간되어 2호까지 나온 후 휴간에 들어갔고, 1932년 2월 13일 지령 4,000호 기념으로 『신조선』의 복간을 계획했으나, 『조선일보』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1932년 9월에 신문이 휴간 중인 가운데 조선일보 사원회의 주도로 조선일보사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채 속간호(3호)가 발행되었고, 4호까지 나온 후 다시 휴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조선일보』의 영업국장을 지냈던 권태휘가 단독으로 신조선사를 설립한 후 편집 겸 발행인이 되어 1934년 9월부터 『신조선』을 다시 간행하였으며 1936년 1월, 14호로 종간되었다.

『신조선』 창간호는 별채한 표지 없이 내용만 신문용지로 인쇄되어 발행되었다. B5판, 48면, 정가 10전이었고, 『조선일보』의 주필이었던 안재홍이 권두사를 썼다. 3호는 발행인 서정록, 인쇄소 신조선사 인쇄부, 발행소 황금정 2정목 65번지 소재 신조선발행소로 하여, B5판 50면, 정가 20전으로 발행되었다.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이었던 한기악이 속간사를 썼다. 5호부터는 편집 겸 발행인 권태휘, 인쇄소와 발행소 경성부 황금정 2정목 22번지에 있는 신조선사로 하여 발행되었다. 속간호의 머리말에서 권태휘는 문화 사업에 기여하고자 인쇄소를 설립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산 전집’을 간행한 것을 기회로 『신조선』을 속간하게 된 사정을 밝히고 있다. 주인이 바뀌고 형식이 달라졌지만, 조선 문화사업의 목적은 동일하며, “국내외의 정확한 인식과 국내 문화의 계발” 및 “고상한 취미의 증진” 외에 “출판에 전력코자” 한다는 취지도 드러내고 있다.

『신조선』은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국제·사회 분야의 소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홍콩·오스트리아·이탈리아·독일·프랑스·에티오피아·유럽·극동 지역의 정치·무역·공업·군사·영화·음악에 관한 기사가 매호 실려 있다. 다산 정약용에 관한 글을 고정란으로 두고 연속해서 실은 것도 이채롭다. 신조선사에서 다산 전집을 출간한 만큼 여기에는 홍보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다산론은 대체로 논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데다 한문에 대한 소양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독성이 높지는 않았다.

다른 지면에 비해 문학 지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작품의 수준 역시 그리 높지 않다. 시로는 유치환의 「산」, 이육사의 「춘수삼제」·「황혼」, 「실제」, 신석초의 「비취단장」·「밀도를 준다」, 박세영의 「산촌의 어머니」 등이 있고, 소설로는 이원조의 「한 대조」, 백신애의 「채색교」·「악부자」, 엄홍섭의 「노학자」, 박승극의 「화초」·「풍경」, 이북명의 「현대의 서곡」 등이 있으며, 희곡으로는 전상명의 「봄」과 김정명의 「비극의 어머니」 등이 있다. 소설 중에서는 박승극의 작품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평론으로는 박영희의 「조선어와 조선문학」, 권중휘의 「문예비평의 기준」, 안재홍의 「조선과 문화운동」, 박승극의 「예술동맹 해산에 대하여」, 홍효민의 「문학의 진보적 사상」, 이병기의 「창작 방법과 로맨티즘」, 이병각의 「풍자와 우화시에 대하여」, 한흑구의 「모더니즘의 철학」 등이 있다.



3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신조선』은 정론적인 성격이 강한 잡지였고, 발행 주체가 몇 차례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14호까지 나왔다. 정치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와 학술 운동을 통해 이를 대신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제: 정영훈)

핵심어 조선일보, 권태휘, 학술운동, 다산 정약용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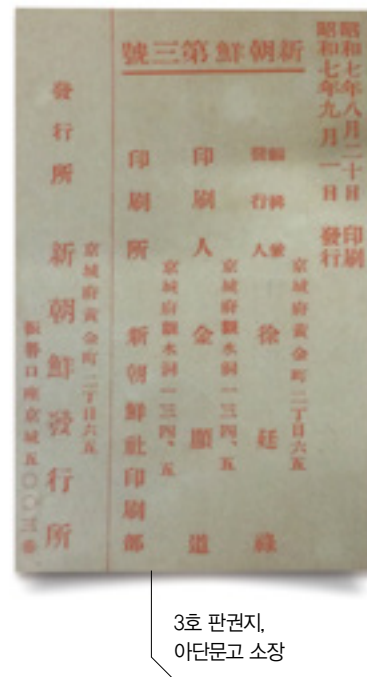
국내외 정세 인식, 리얼리즘 소설

참고문헌 장신, 「1930년대 초 『조선일보』의 부침과

잡지 『신조선』, 『근대서지』8, 근대서지학회, 2013.12.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02 삼천리 / 삼천리문학

三千里 / 三千里文學

삼천리사

1929. 6. 12 ~ 1942. 1. 1 / 1938. 1. 1 ~ 1938. 4. 1

『삼천리』는 1929년 6월호부터 1942년 1월호까지 발행되었으며, 해방 직후인 1948년 6월에 서 1949년 9월 사이 『속간 삼천리』란 제호로 속간되었다. 전체 통권 152권이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김동환(金東煥)의 아들 김영식에 의해 간행된 영인본(1995)에는 87권만 수합되어 있다. 한편 1942년 5월에 김동환은 『대동아(大東亞)』(통권 3호)를 창간하였는데, 표지에 『삼천리』 개제(改題)라고 해놓았다.

『삼천리』의 편집 겸 발행인은 김동환이며, 인쇄인은 심우택(沈禹澤), 인쇄소는 대동인쇄(주), 발행사는 삼천리사이다. 발행인 김동환은 함경북도 경성(鏡城)에서 출생하였으며, 『금성』 3호에 「적성을 손가락질하며」로 등단하여, 시집 『국경의 밤』(1925), 『해당화』(1939) 등을 펴낸 시인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기사를 거쳐 종합지 『삼천리』를 창간, 주재하면서 기자, 편집인, 기획자, 출판인으로서의 여러 역할을 수행하였다. 『삼천리』는 “1. 훨씬 값이 싼 잡지를 만들자 2.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또 버릴 기사가 없는 잡지를 만들자 3. 민중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잡지를 만들자”(사고(社告), 『삼천리』 창간호, 1929. 6)라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일제 치하의 대표적인 대중잡지이다.

창간호는 채색화로 버드나무 아래 태극무늬 부채를 들고 있는 조선의 전통적 여인을 표지로 내세웠다. 이는 『삼천리』가 문화와 대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의 잡지임을 표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삼천리』는 국제정세나 사회문제 이외에 종합오락지로서 대중들의 흥미와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사와 문예물을 많이 실었다. 그래서 “취미 중심의 종합지” “침소봉대(針小棒大)와 과대수식과 공사성(空思性)이 풍만한 잡지”(김근수, 1980:149)라는 평

창간호 표지,
고려대학교 소장

을 듣기도 했다. 국내외의 유명 인물들에 대한 평(評), 설문, 인상기 등은 물론이고 당시 부상되고 있던 최승희, 나운규, 문예봉 같은 연예인이나 박흥식, 방응모 같은 자본가들에 관한 기사까지 수록했다. 그렇지만 『삼천리』는 “민중 오락을 위한 읽을거리를 처음부터 표방했던 『별건곤』과는 달리 “정치, 군사, 국제,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얹의 새로운 배치”를 통해 만들어 낸 “취미와 교양”중심의 대중잡지이자 종합지(천정환, 2007:149)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김동환이 편하고 삼천리사에서 펴낸 『평화와 자유』(1932)는 『삼천리』에 게재되었던 국내 유명 인사들(서재필, 이승만, 장덕수, 허헌, 윤치호, 송진우, 여운형, 홍명희, 안재홍 등 50여인)의 논문을 모은 것이다. 이를 보면 『삼천리』가 단순 흥미 위주의 대중 잡지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삼천리』가 종합지로서 오랜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필진 이외에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읽을거리를 끊임없이 기획하고, 그것을 지면에 적절하게 배치하였

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심지어 『조선사상가 총관·반도재산가 총관』 같은 별책부록(1933년 2월호)까지 만들어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37년 전후 『삼천리』는 ‘1만 독자’, ‘3만 독자’를 내세울 정도로 발행 부수가 증가하였다. 『삼천리』는 시류(時流)와 시국(時局)의 변화에 재빨리 대처해 가면서 일제의 검열을 피할 수 있었다. 특히 중일전쟁(1937) 이후 『삼천리』는 이전과는 달리 일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홍보하는 글들을 많이 실고 있다.

『삼천리문학』은 삼천리사에서 펴낸 문학만을 대상으로 한 통권 2호의 순문에 잡지이다. 삼천리사 창간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1938년 1월에 1집이, 동년 4월에 2집이 나왔다. 저작 겸 발행인은 김동환이고, 인쇄인은 김현도(金顯道), 인쇄소는 대동인쇄소, 발행소는 삼천리사이다. 1집은 국판 264면, 2집은 국판 280면이다. 『삼천

창간호 판권지,
고려대학교 소장

『삼천리 문학』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리문학』 2집의 뒷표지에서는, 삼천리사 창업 3대 잡지로 『삼천리』, 『삼천리문학』, 『삼천리영화』를 들면서, 『삼천리문학』을 “반도 유일의 권위있는 순문예잡지”라 광고하고 있다. 김동환, 최정희, 모운숙 등이 원고 수합 및 편집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김동환은 창간사『소설과 시의 길』에서 작가들에게 “조선적인 정조(情調)와 깊은 고행과 사색 위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생명의 작품”을 내놓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삼천리문학』 1, 2집에는 김동인, 이태준, 이효석, 최정희, 이기영, 유진오, 장혁주, 박영희, 장덕조, 김남천 등의 소설, 이광수, 김안서, 이병기, 노



『삼천리 문학』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천명, 김광섭, 박종화, 백석, 홍사옹, 이은상, 정지용, 노자영, 박용철, 오일도 등의 시, 김진섭, 김상용, 이현구, 이무영, 모운숙, 조벽암, 김진섭, 김동환의 수필, 박영희, 김동인, 이병기, 박용철, 김환태, 김문집 등의 평론, 26명이 참가한 「작가단편자서전」, 9명이 쓴 「작가일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삼천리문학』 1, 2집에도 ‘황국신민 서사(誓詞)’나 ‘충후미담집’ 같은 대일협력의 편집 태도가 드러나 있다. 『삼천리문학』에 실린 글들을 살펴보면 일제 말 전시체제로 들어가기 직전 한글로 쓰인 조선 문단의 문예적 역량을 총집결시킨 문학매체로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해제: 박용찬)

핵심어 김동환, 취미, 교양, 대중종합 잡지, 대일협력, 순문예지

참고문헌 김근수, 『한국잡지사』, 청록출판사, 1980.

김영식, 『아버지 파인 김동환』, 국학자료원, 1994.

박숙자, 「1930년대 대중적 민족주의의 논리와 속물적 내려티브 - 『삼천리』 잡지를 중심으로」,

『어문연구』14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12.

정진석, 「파인 김동환과 『삼천리』」, 『관훈저널』65, 관훈클럽, 1996.12.

천정환, 「1930년대 문화민족주의와 『삼천리』」, 한국현대문화학회 학술발표자료집, 2007.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03 시문학

詩文學

시문학사

1930. 3. 5 ~ 1931. 10. 10

『시문학』은 1930년 3월 5일에 창간되어 1930년 5월 20일에 2호를 내고 1931년 10월 10일에 통권 3호로 종간된 시 전문 순문예지이다. 창간호는 A5판 40면으로 이루어졌고 정가는 20전이다. 편집 겸 발행인은 박용철, 인쇄인은 요시오까(吉岡宇太郎), 인쇄소는 요시오까인쇄소, 발행소는 경성부 옥천동 16에 있는 시문학사이며, 총판매소는 동광당서점이다. 박용철이 단독 출자한 잡지이다.

『시문학』 창간호는 영랑 김윤식, 정지용, 이하운, 용아 박용철 등 네 시인의 창작시와 ‘외국 시집’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시인의 시를 번역해 싣고 있다. 그 밖에 편집후기와 투고규정이 실려 있다. 김영랑의 창작시로는, 「동백넙에빛나는마음」을 비롯해 「어둠에 바로누어」, 「누이의마음아 나를보아라」, 「사행소곡칠수」, 「제야」, 「쓸쓸한피아페」, 「원망」 등이 실렸다. 정지용의 시로는 「일은봄아침」, 「Dahlia」, 「경도압천」, 「선취」 등 네 편이 실렸다. 「경도압천」은 일본 교토 도시샤(同志社)대학 유학 시절에 쓴 시로, 이후 시집에 실리면서 「압천」으로 제목이 수정된다. 이하운의 시로 「물네방아」와 「노구의 회상곡」 두 편, 박용철의 시로 대표작 「떠나가는배」를 비롯해 「이대로그라만은」, 「짜늘한이마」, 「비 내리는날」, 「밤기차에 그대를보내고」 등 다섯 편이 실려 있다. 번역시로는 정인보가 번역한 중국의 고시 「목란시」가 원문과 함께 실렸고, 프랑스 시인 폴 포르의 시 「원무(LA RONDE)」, 「새벽(CHANSON A L'AUBE)」이 이하운의 번역으로 실렸으며, 독일 시인 실러의 「헥토르의이별(HEKTORS ABSHIED)」, 괴테의 「미논의 노래(2)(MIGNON)」가 박용철의 번역으로 소개되었다. 박용철은 ‘후기’에서 “우리의시는 우리살과 피의매침”이며 “우리의 시는 외여지기를구한다”고 주장하고 문학의 성립은 그 민족의 언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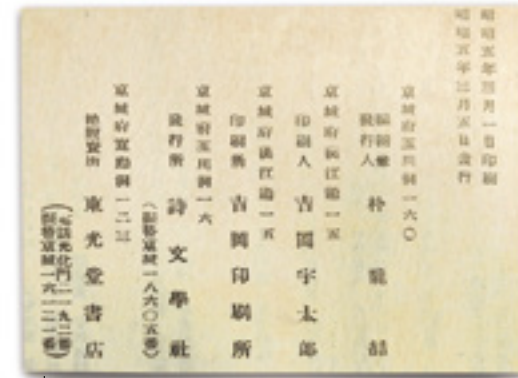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완성시키는 일임을 분명히 하면서 시를 언어예술로 인식하는 '시문학파'의 관점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2호에서는 인쇄인이 이근택으로, 인쇄소도 선광인쇄주식회사로 바뀌었다. 2호에는 정지용, 김윤식, 박용철 외에 변영로, 김현구의 창작시가 소개되었고, 정지용, 김영랑 등이 윌리엄 블레이크와 예이츠의 시를 번역해 실었다. 3호에 오면 발행소가 문예월간사로 바뀌고, 인쇄인도 김창여, 인쇄소도 대성당인쇄합자회사로 바뀐다. 3호에는 박용철, 김현구, 정지용, 김윤식, 허보, 신석정의 창작시와 이하운, 박용철의 번역으로 잠, 구르몽, 하이네 등의 시가 실렸다. 셸리의 산문 '시인의 말'이 함께 실렸다. 이하운, 박용철이 함께 『문예월간』이라는 문예 전반을 취급하는 잡지를 11월부터 창간할 예정임을 광고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창간호에 필자 및 역자로 참여한 김영랑, 정지용, 이하운, 박용철, 정인보와 2호에 새로 합류한 변영로, 김현구, 3호에 창작시를 발표한 허보, 신석정까지를 통틀어 '시문학파'로 부른다. 『시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문학』은 통권 3호에 그쳤지만 창작시 76편, 번역시 31편이 발표되어 1930년대 시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카프 중심의 프로문학이 이념을 앞세운 도식적인 문학을 추구하는 것에 반대하여 순수문학을 옹호하는 시인들이 주축이 되어 『시문학』을 중심으로 활동한 '시문학파'는 시를 언어예술로 자각함으로써 본격적인 현대시의 출발을 알리게 되었다. (해제: 이경수)

핵심어 시 전문 순문예지, 시문학파, 순수문학, 박용철, 김영랑, 창작시와 번역시, 언어예술론

참고문헌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수선사, 1948.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69.

진순애, 「시문학파 연구-순수성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8, 한국시학회, 2003.5, 307~346쪽.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5.

004 대조

大潮

대조사

1930. 3. 15 ~ 1930. 9. 10

『대조』는 경성의 대조사(大潮社)에서 1930년 3월에 창간하여 1930년 9월에 통권 6호로 중단된 종합잡지이다. 1946년에 발간된 동명의 잡지와는 무관하다. 편집 겸 발행인, 주간은 소설가이자 시조시인으로 활동하던 전무길(全武吉)이 담당하였다. 오세창의 글씨를 집자하여 표제어를 인쇄해 넣고, '큰 물결'이라는 표제에 걸맞도록 파도가 이는 바다의 화보를 수록하였다.

주간 전무길은 환경을 탓하든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든지 간에 사천여 년의 유구한 문화가 '질식정체(窒息停滯)'할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모든 不自然한 直譯文化와 祖述文化가 뿌리를 나린다. 이만큼 우리는 飢餓狀態에 있다. 주린 者는 참되게 求하나니 우리는 自體 生命의 表現이며 價値며 合理化인 新文化의 創成을 哀타게 求하여 마지않는 바이다.”와 같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갈급함이 따른 나머지 외 국문화나 옛 조상의 문화가 시대에 맞게 제대로 해석되거나 변용되지 않은 채 부자연스럽게 정착되어 가는 세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신문화의 창성을 목표로 삼았다. 『대조』 창간호의 축사는 『조선지광』의 주간인 김동혁(金東赫)이 썼다. 그는 ‘현행 많은 잡지들은 향락주의의 고조에 몰두하고 있으며, 과거에 우리들은 문화적 방면에 있어 기여했다고 하나 지금은 아무 것도 없다며 『대조』의 건투를 빌고 있다. 『대조』 편집진은 전무길을 제외하면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그는 직접 사회주의 문학 단체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사회의 부패와 모순을 비판하는 소설을 써내어 소위 동반자 작가로 불리기도 한다. 전무길은 황해도 재령 출신의 문인으로, 『대조』 창간호에 황해도 안악 및 재령 지역의 유지들이 대거 광고를 실어 재정적 후원을 해주고 있는



창간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것이 눈에 띈다.

『대조』는 크게 연구논문을 소개하는 지면과 평론, 수필, 소설, 기행문, 시가 등 문예 작품을 소개하는 지면으로 나뉜다. 전반적으로 문예면의 비중이 큰 편이었으며, 민족주

의 문학 진영과 사회주의 문학 진영을 따지지 않고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김동인의 노동자 비판소설 『배회』(2호)가 실렸는가 하면 노동운동가의 수난상을 그린 이기영의 「종이 뜨는 사람들」(2호)이 실렸고 김해강의 프로시도 여러 편 소개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면의 분량은 적었을지언정 『대조』의 본령은 문예란보다도 학술연구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창간호에서는 「소작권에 관한 현행법」(서춘), 「사회계약론」(목암생 역), 「아동재판의 효과」(방정환) 등 사회법을 주제로 한 논문들을 소개하였다. 이후에도 「유물론고」(박영희), 「생존상의 부조적(扶助的) 원칙」(신종석), 「사회본위사상비판」(김현준), 「피임문제전개」(윤도원) 등 무계감 있는 논문들이 실렸다. 사회주의 사상의 발표와 선전을 향한 검열이 차츰 강화되어가는 환경 속에서도 『대조』는 문예면의 다양성을 활용하고 중립적인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사상 통제를 피해 사회 문제에 접근했던 잡지라 평가할 수 있다. (해제: 정주아)

핵심어 전무길, 프로문학과 민족문학 병행, 김동인의 프로문학 비판, 이기영과 김해강의 프로문학

참고문헌 조남현, 『한국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005 혜성

책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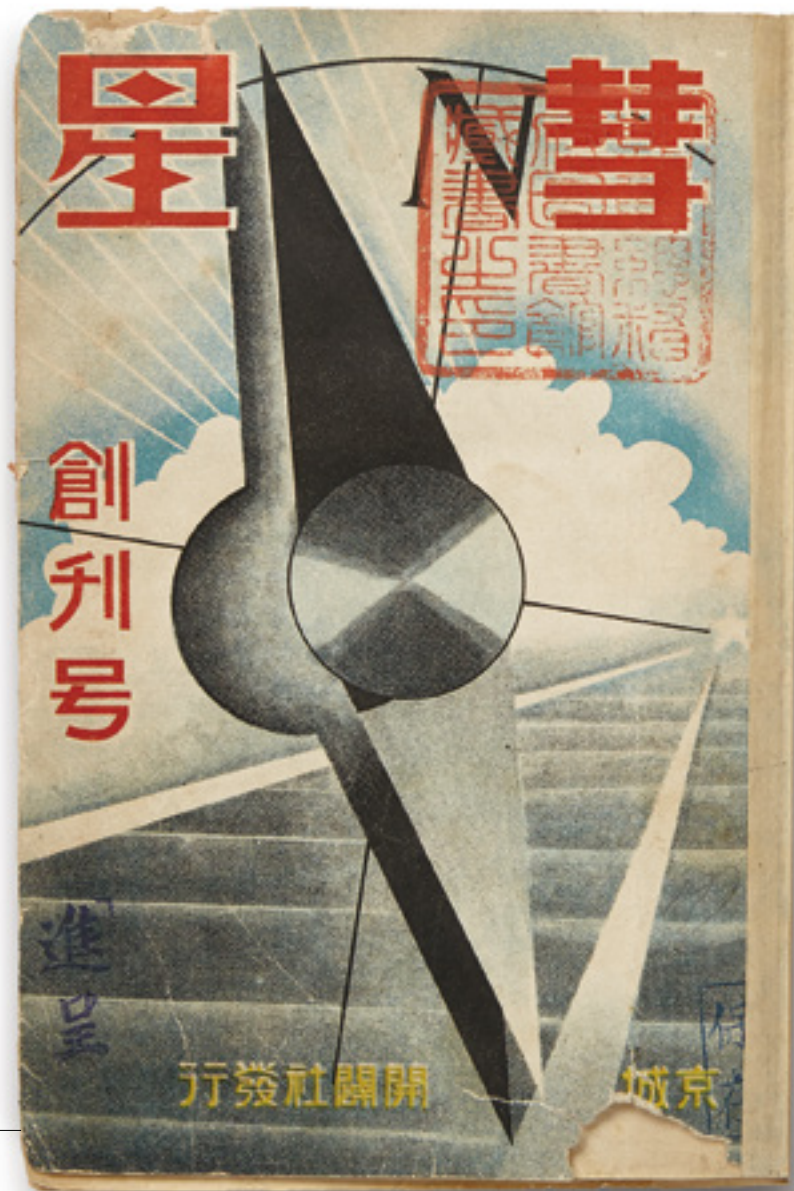
개벽사

1931. 3. 1 ~ 1932. 4. 15

『혜성』은 『개벽』의 강제 폐간 이후 개벽사가 발행한 두 번째 시사종합지로서 1931년 3월 1일에 창간되어 1932년 4월까지 통권 13호가 발행되었다. 그 이후 좀 더 대중적인 교양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잡지의 편집체제가 일신되어 『제일선』이란 제호 아래 발행이 이어졌다. 『혜성』의 편집 겸 발행인은 차상찬이었고, 인쇄인은 이학중이었다.

개벽사는 『혜성』이 “할리 혜성과 같이 지구를 깨뜨리지는 않지만은 당당한 언론의 권위로 이 세상에 완고몽매하고 부패추악한 사람의 두뇌를 깨뜨려서 일신한 새 사람, 새 사회를 만드는 데는 할리 혜성보다도 더 위대한 힘이 있을 줄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말해 개벽사는 『혜성』이 제2의 『개벽』이 되어줄 것을 기대했다. 그 기대감을 개벽사는 창간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현실에서 구형(俱形)된 대세가 다시 현실을 지배하며 배태기에 있는 의식을 선각자의 의식적 노력으로써 가속도적으로 환기할 수 있음은 역사에서 배운 바이다. 조선과 같은 예의 시대에 처한 선각적 인텔리겐치아의 임무가 이에서 유의하여지는 것이다. 오인(吾人)은 이 『혜성』지를 창간함에 있어 앞으로 이 선각적 인텔리겐치아의 동무가 되기를 기하며 그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을 것을 맹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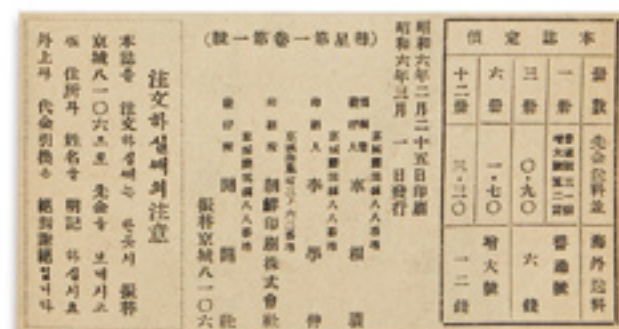
이러한 취지 아래 개벽사는 『개벽』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혜성』의 정론적(政論的) 성격을 한껏 강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개벽』에서 문예물의 비중은 1/3 이상이었던 반면, 『혜성』에서 문예물의 비중은 『개벽』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개벽사는 그만큼 『혜성』에 시사·정치와 관련된 평론, 논설 등을 게재하는 데 치중했다. 예컨대 『혜성』의 창간호에서 개벽사는 “민족적 협동조직의 필요와 가능 여하”, “세계의 고민상”, “여권 신장과 조선 내 실제”와 같은 주제 아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래 박희도, 송진우, 이량, 김정재, 정철성, 김원주 등과 같이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의 평론을 전면에 배치하며 시사종합지로서의 『혜성』의 앞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개벽사는 『혜성』에 “혜성논단”을 상시 운영하고, 정치·경제·시사와 관련된 특집논문을 지속적으로 수록했다.

비록 『혜성』에서 문예물의 비중은 『개벽』에 비해 작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벽사가 문예물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을 소홀하게 취급했던 것은 아니었다. 강경애의 「어머니와 딸」, 김동인의 「추억의 더듬길」, 이태준의 「결혼의 악마성」, 채만식의 「창백한 얼굴들」 등의 소설을 비롯하여 김억의 「기의(寄衣)」, 박노아의 「봄날의 농촌 스케치」, 이광수의 「삼월의 노래」, 이일의

「밤의 카페」 등의 시와 김영팔의 「우는 아내와 웃는 남편」, 채만식의 「두부」 등의 희곡이 『혜성』에 수록되었다. 문학평론에서는 김진섭과 백철 등이 두드러지게 활동했다.

이처럼 『혜성』은 『개벽』 사후 5년 만에 등장한 개벽사의 두 번째 시사종합지로서 개벽사는 제2의 『개벽』시대를 기대하며 『혜성』을 발행하는 데 만전을 기했다. 하지만 『혜성』은 개벽사의 기대만큼 시사종합지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는 못했다. 통권 72호를 낸 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 폐간되었던 『개벽』과 다르게 『혜성』은 통권 13호를 낸 후 개벽사에 의해 자진 폐간되었다. (해제: 유석환)

핵심어 시사종합지, 천도교, 개벽사, 새사람, 새 사회

참고문헌 김근수, 『한국잡지사연구』, 한국학연구소, 1992.

유석환, 「개벽사의 출판활동과 근대잡지」,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7.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현암사, 2004.

006 비판

批判

비판사

1931. 5. 1 ~ 1940. 3. 26

『비판』은 1931년 5월 1일에 창간되어 1940년 3월까지 통권 63호가 발행된 시사종합지이다. 그 사이 1933년 6월까지 통권 23호를 발행한 후 휴간되었다가 1935년 10월 15일에 통권 24호를 발행하면서 속간되었다. 이후 『비판』은 1940년 3월까지 통권 63호를 발행한 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편집 겸 발행인은 송봉우, 인쇄인은 이근택이었다.

『비판』은 1920년대 후반기의 유력한 시사종합지이자 조선공산당의 기관지였던 『조선지광』 이후 가장 오랫동안 발행되었던 사회주의 경향의 시사종합지이다. 『비판』의 책임자였던 송봉우는 1926년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1928년 2월에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로 출옥 후 창간했던 잡지가 바로 『비판』이었다.

『비판』은 다음과 같은 창간사를 통해 그 제호 그대로 정론 지향적인 편집 방침을 선언했다. “이론을 심화하며 그 모순을 제거하며 운동의 귀추를 확립하며 당면한 혼란을 숙청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과거, 현재, 장래에 대한 통렬한, 가차 없는 비판만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비판에 의하여서만 우리는 세계의 추향(趨向)을 그의 현상 상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의 본질적 발전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고 비판에 의하여서만 우리는 우리의 진로를 또한 정당히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비판은 가장 급박한 정세 밑에서도 오히려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판』의 정론 지향적인 편집방침은 무엇보다 창간호에서부터 상설되어 사회적 이슈에 관한 논평을 제공했던 “비판의 비판”이라는 고정란이 잘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편집방침에 대해 독자들의 불만도 없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비판사의 입장은 단호했다. 비판사는 그런 입장을 『비판』 8호의 편집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었다. “『비



2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판이 딱딱하고 쌀쌀하니 좀 부드럽고 야릇하게 하여 달라는 지사도 있고 독자도 있으나 야릇함과 부드러움으로써 비판의 생명을 창달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고 쌀쌀한 것으로서 걸음걸음 나가려 합니다. 속된 활자는 우리는 배척합니다.” 요컨대 정론 지향적인 편집방침이야말로 1930년대의 시사종합지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비판』의 고유한 특색이었다.

비판사는 창간 5주년 기념호인 1937년 5월호 무렵부터 정론 지향적인 편집방침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려고 했다. “항상 말썽 많은 ‘딱딱함’, ‘난해함’을 버리고 대중화의 편집을 단행”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판』에는 예술과 스포츠, 영화와 연극, 문학계의 이슈를 다루는 문화월보나 문화뉴스 등의 란이 신설되었다. 문예물의 비중도 더 증대되었다. 이런 변화 덕분인지 『비판』의 발행부수는 그 이전보다 늘어났다. 하지만 비판사는 『비판』의 그러한 변모가 사회주의자들의 전향과 다를 바 없 다든가, 좌익 상업주의라고 몰아세웠던 여론의 질타를 감내해야 했다.

『비판』의 정론 지향적인 편집방침은 문예물에서도 확인된다. 『비판』과 비슷한 시기에 발행되었던 『신동아』나 『삼천리』와 다르게 유독 『비판』에서만 ‘문예시평(文藝時評)’이 지속되었다. 물론 다른 종합잡지들에서도 문예시평과 같은 문학평론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것들은 주로 신년호나 송년호의 일회적인 특집기사로 다루어졌다. 요컨대 『비판』은 정론 지향적인 편집방침에 맞추어 비판적인 언어를 통해 당대의 문학을 계도하고자 했고, 그를 통해 대중으로부터 문학적 권위를 승인받으려 했다. 『비판』에서 활약한 주요 평론가는 안함광, 윤곤강, 임화, 한효, 홍효민 등이었다. 문학평론 외의 주요 문학작품으로는 김해강의 『회색에 물들여진 정서』, 이

찬의 「결빙기」, 임화의 「별들이 합창하는 밤」 등의 시와, 이적효의 「총동원」, 안희남의 「차용증서」, 이북명의 「연돌남(煙突男)」, 김남천의 「미담」(1938.6) 등의 소설이 있다.

『비판』은 1920년대에 정론

(政論)을 주도했던 『개벽』과 『조선지광』을 계승하고자 했다. 하지만 점점 강화되었던 일제의 검열과 대중문화의 분위기 속에서 『개벽』과 『조선지광』만큼 날카로운 필봉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해제: 유석환)

핵심어 시사종합지, 비판정신 사회주의, 프로문학의 무대

참고문헌 김문중,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6.

김근수, 『한국잡지사연구』, 한국학연구소, 1992.

유석환, 「경쟁하는 잡지들, 확산되는 근대문학: 1930년대 『삼천리』와 『비판』, 『신동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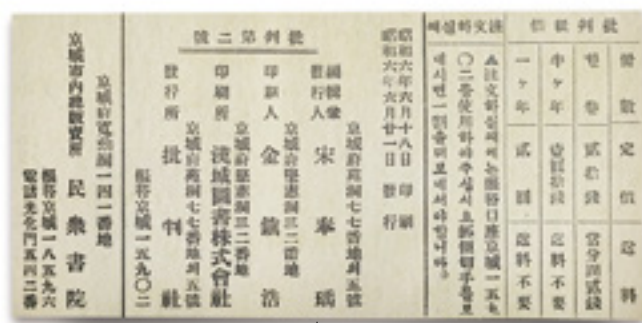
사례」, 천정환 외 편저, 『식민지 근대의 뜨거운 만화경』,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현암사, 2004.

허민, 「적대와 연대: 1930년대 “활자전선(活字戰線)”의 구축과 복수의 사회주의」,

『민족문학사연구』 53, 민족문학사학회, 2013.



2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007 문예월간

文藝月刊

문예월간사

1931. 11. 1 ~ 1932. 3. 1

『문예월간』은 1931년 11월 1일자로 창간된 종합문예지이다. 월간 발행으로 기획되어 1931년 12월 1일에 2호, 1932년 1월 1일에 3호가 발간되었으나 1932년 3월 1일에 발간된 통권 4호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박용철이고 인쇄인은 김창여, 인쇄소는 대성당인쇄합자회사, 발행소는 경성부 견지동 26으로 주소지가 나와 있는 문예월간사이다. 『문예월간』 창간호는 A5판 95면으로 되어 있고 정가는 20전이다. 창간호의 주요 필진은 김진섭, 박용철, 이현구, 함대훈, 이하운 등 해외문학과였으며, 그 밖에 『시문학』에도 작품을 실었던 허보, 김현구 등과 이은상, 유진오 등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판권장에는 편집 겸 발행인이 박용철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편집은 이하운이 담당했다. 창간사와 편집후기도 이하운이 썼다.

『문예월간』 창간호의 창간사와 편집후기를 보면 세계문학의 일부로 우리 문학을 이해하는 시각이 드러나 있는데 “내외 문예동향의 신속한 보도와 비판”에 지면을 할애하고자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밖에 “일상생활과 문예와의 접근”, “고상한 취미의 함양” 등을 추구하며 종합문예지의 위상에 걸맞은 내용과 형식으로 잡지를 구성하고자 했다. ‘투고규정’에는 평론, 취미, 연구, 소개, 수필, 취미, 잡문, 소설, 희곡, 실화, 시, 산문, 시조, 번역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원고를 받는다고 밝혀 놓았다. 창간호에는 김진섭의 「문학의 진보·퇴보」, 박용철의 「효과주의적비평논강」, 함일돈의 「9월 창작평」 등의 평론이 실렸으며, 해외문학과가 중심이 된 문예지인 만큼 조희순의 「독일문단점묘」, 이현구의 「불우의 여사인 ‘데보르드·빨모-르」, 함대훈의 「로시아혁명과여간첩」 등 세계문학의 동향을 알 수 있는 풍성한 읽을거리가 수록되었다. 창작으로는 박용철의 「고향」, 「어디로」, 「시조육수」, 허보의 「표박의제일일」, 「표박의마음」, 김현구의

「폴우에누어」 등의 창작시와 유진오의 「상해의 기억」, 홍일오의 「고우」 등의 단편소설이 실렸다. 그 밖에 사로지니 나이두 원작을 이하운이 번역한 「가을노래」, 던세이니 원작을 장기제가 번역한 단막극 「황금운명」 등의 번역작품이 실렸다.

2호에서는 “시문학회조직과회원모집”이라는 제목 아래 『문예월간』이 “조선에서 순수서정시의 정도를 발견”할 수 있는 본부임을 자부하며 시문학회를 만들어 천명 이내로 회원을 뽑을 계획임을 천명하였다. 1차 회원인 정인보, 변영로, 김영랑, 김진섭, 정지용, 이하운, 박용철, 장기제, 김현규, 허보, 신석정, 임춘길, 이선근, 함대훈, 서항석, 홍재범, 유치환, 유치진, 노진박, 이현구 등은 『문예월간』이 시문학과 해외문학과 중심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소설로는 홍일오의 「글 공부」, 최독건의 「구혼」이 수록되었고, 희곡으로는 유치진의 대표작 「토막」 등이 실렸다. 시로는 정지용의 「아침」, 유치환의 「정적」과 함께 이은상의 시조 「계룡산 사치」가 발표되었고, 박용철과 이하운의 번역시가 실렸다. 그 밖에 평론으로 유진오의 「문학과 성격」, 박용철의 「문예시평」이 실렸으며, 세계문학의 동향을 알 수 있는 글로 이현구의 「불란서문단총황관」, 김진섭의 「오태리적감정」, 조희순의 「슈니츨러-의생애와그예술」이 게재되었다.

3호에서는 「문예계에대한희망」이라는 설문이 실린 점이 특기할 만하다. 유진오, 정인섭, 박용철, 이하운, 안석주, 홍종인, 심훈, 홍해성 등 문단, 화단, 음악, 영화, 연극계를 대표하는 예술인들이 설문에 답했다. 시로는 신석정의 「나의 꿈을엿보시겠습니까?」, 정지용의 「소녀」, 「오퍼가시고」, 황석우의 「소녀의마음」, 「소녀의혼」, 「꽃들의눈물」, 박용철의 「시조오수」 등이 실렸으며, 소설로 홍일오의 「진맥」, 희곡으로 유치진의 「토막」 후편 등이 실렸다. 번역시와 외국문학 동향



창간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을 소개한 글, 「문인인상기」 같은 읽을거리도 수록되었다. 종합문예지에 걸맞게 부록으로 「문예가명록」과 「문예작품총람」을 실었다. 4호는 괴테 특집호를 표방했다. 속표지에 「파우스트」 연극의 한 장면, 괴테의 사진 등을 실어 놓았으며, 조희순의 「괴테의생애와그작품」, 김진섭의 「괴테의예술」, 서항석의 「괴테의

시」 등의 평론과 「괴테 격언집」 등이 실렸다. 또한 유진오, 김동환, 주요한, 이현구, 김진섭, 이광수 등이 「괴테와 나」라는 제목 아래 괴테 작품을 읽은 경험을 적었다. 괴테의 시는 서항석과 박용철이 번역해 실었다.

『문예월간』은 『시문학』과 함께 박용철이 발행한 대표적인 잡지로 문학사에서 평가된다. 특히 『문예월간』은 종합문예지를 표방한 만큼 『시문학』의 뒤를 이어 조선의 순수 서정시의 본부를 자처한 데서 더 나아가 소설, 희곡, 평론, 번역물 등 다양한 문예작품을 싣고 해외문학의 동향을 알 수 있는 학술적 성격의 글도 실어 당대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제: 이정수)

핵심어 종합문예지, 『시문학』의 후신, 박용철, 이하운, 해외문학과, 괴테 특집

참고문헌 전도현, 「한국 근대잡지 소재 문학텍스트에 대한 통계적 분석」, 『한국학연구』 4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12, 131~159쪽.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69.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5.

008 신동아

新東亞

신동아사

1931. 11. 1 ~ 1936. 9. 1

『신동아』는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시사종합지로서 1931년 11월 1일에 창간되어 일장기말 소사건을 계기로 1936년 9월까지 통권 59호가 발행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동아일보사의 영업국장이었던 양원모였고 인쇄인은 한동수였다. 하지만 『신동아』의 잡지 편집을 실제로 주도했던 인물은 편집국장 대리였던 설의식과 주요섭이었다. 특히 주요섭은 1933년 11월부터 1934년 8월까지 동아일보사에서 잡지부장으로 근무했다. 주요섭의 후임자인 최승만은 1934년 8월부터 1936년 9월까지 근무했다. 이들을 김자혜, 이은상, 고흥근, 최영수, 김원경, 황신덕 등의 기자들이 보조했다. 『신동아』는 1964년 9월호로 복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신동아』는 신문사에서 발행한 최초의 시사종합지이자 1930년대에 신문사의 본격적인 잡지 시장 진출을 알린 잡지였다. 『신동아』가 출현한 직후부터 1930년대 내내 신문사의 잡지들이 잡지시장을 주도했는데, 당대에 그러한 현상을 “신문잡지시대”라고 표현했다. 즉 『신동아』는 신문잡지시대의 서막을 연 잡지였다. 『신동아』는 동아일보사에서 설립한 신동아사에서 발행되었는데, 신동아사는 『신동아』에 이어 1933년 1월에 여성전문잡지 『신가정』도 창간했다.

창간사를 통해 “조선민족 전도의 대정륜을 제시하는 전람회요, 토의장이요, 온양소”를 자임했던 『신동아』는 1931년 11월부터 1936년 9월까지 만 5년간의 발행기간 동안 ‘망라주의’라는 편집방침 아래 간행되었다. 『신동아』의 편집진은 그와 같은 편집방침을 창간호 편집후기에 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우리는 이 잡지의 편집대강에 망라주의를 취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학술, 문예 등 각 방면을 통하여 시사, 평론으로부터 과학, 운동, 연예, 취미에 이르



창간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기까지 무엇이냐 간에 우리의 지식과 문견을 넓히고 실익과 취미를 도울만한 것이면 모두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집방침 아래 여러 종류의 기사들이 다른 잡지들에 비해 좀 더 질서화된 형식 속에서 『신동아』에 수록되었다. 즉 다양한 기사들이 시사, 스포츠, 연예, 문예 등 특정 주제별로 범주화되어 배치되었다는 점이 『신동아』 편집 방식의 특징이다.

이러한 망라주의 편집방침은 기

본적으로 잡지사들에 비해 자본 규모가 월등했던 동아일보사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신동아사는 동아일보사의 후원 덕분에 당시의 잡지사들이 흔히 겪었던 재정난도 없었고, 『동아일보』를 통해 광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특히 『동아일보』의 전국적 유통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던 이점도 갖고 있었다. 잡지의 콘텐츠 면에 있어서도 시의적인 정보의 수집에서부터 원고의 수합, 편집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동아일보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전쟁시비특집”(통권 4호), “세계위기호”(30호), “극동문제특집”(38호), “입시문제특집”(54호) 등과 같은 특집호를 시의적절하게 발행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김억의 「눈 오는 밤」이나 김기림의 「봄은 전보도 안치고, 「들은 우리를 부르오와 같은 시나 이태준의 「아담의 후예」,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 한설야의 「임금(林檎)」 등의 소설처럼 한국문학사에서 중시하는 주요 작가들의 작품도 『신동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신동아』는 한국잡지사에서 신문사의 잡지시대를 선도한 잡지로서 유의미한 시사종합지이다. 주로 정치와 문학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던 1920년대의 시사종합지와 다르게 신문사라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사종합지의 종합성을 문자 그대로 구현해냈던 잡지이기도 했다. 요컨대 『신동아』는 한국잡지사에서 시사종합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할 잡지다. (해제: 유석환)

핵심어 시사종합지, 동아일보사, 신문잡지시대, 망라주의, 문제작 다수 배출

참고문헌 『東亞日報社史』 1, 동아일보사, 1975.

김근수, 『한국잡지사연구』, 한국학연구소, 1992.

김봉희, 「일제시대의 출판문화-종합잡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유석환, 「경쟁하는 잡지들, 확산되는 근대문학: 1930년대 『삼천리』와 『비판』, 『신동아』의 사례」, 천정환 외 편저, 『식민지 근대의 뜨거운 만화경』,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정진석, 『新東亞 半世紀』, 『한국 현대 언론사론』, 전예원, 1985.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현암사, 2004.

최수일, 「1930년대 잡지 편집과 문학 독법- 창간 『신동아』론」,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009 동방평론

東方評論

동방평론사

1932. 4. 1 ~ 1932. 7. 1

『동방평론』은 동방평론사에서 193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통권 3호로 발행한 종합 잡지이다. 2·8 독립선언 학생 대표 중 한 사람이었고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백관수(白寬洙)가 편집 겸 발행인이었다. 당초 월간지로 기획하였으나 원고 수급이 쉽지 않아 제2호(1932.5)에서 기사의 규모가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제3호(1932.7)까지 낸 뒤에 중단하였다. 표지에는 잡지명인 ‘동방평론(東方評論)’의 한자 표기와 영문명인 ‘THE ORIENTAL REVIEW’를 함께 인쇄해 넣었다.

창간사에서 편집자 백관수는 “세계의 동향은 동방에서 준비된다.”면서 ‘극동평화’나 ‘인류애’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아시아가 제국 열강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선박기지가 된 상황을 개탄하고 있다. 이에 “東方民族의 國際的 情勢를 大觀하는 자 반드시 조선민족의 現勢를 간과하지 못할 것이며 植民地及半植民地의 社會過程을 응시하는 자 또한 朝鮮勤勞大衆의 동향을 목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여, 여러 동방민족의 국제 정세를 면밀히 살피는 일이 곧 조선의 현재 정세를 파악하고 비판하는 작업과 동궐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였다.

종합지로 기획되었던 만큼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수록한 것이 눈에 띈다. 창간호에는 최린, 안재홍, 서춘, 김활란, 송진우, 신흥우, 류광열 등 학계 및 언론계의 주요 인사들이 정치·시사적인 화제를 다룬 글을 투고하였다. 여느 잡지들처럼 문예면을 두었고 유진오, 이태준, 정지용, 정인보, 이병기 등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른 여러 장르의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동방평론』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은 국제 정치 및 사회·경제 분야의 기획 원고들이라 할 수 있다. 동방평론의 연속 기획에서는 기본적인



창간호 표지, 고려대학교 소장

로 당대 일본, 만주, 상해의 정세를 전하는 것은 물론 영국과 인도 간에 이루어진 ‘원탁회’처럼 식민지령 국가들의 근황에도 관심을 두었다. 조선의 금융 및 조세 제도를 설명하는 논문들이나, ‘사회과학용어해설란’을 별도로 두어 ‘계급’, ‘헤게모니’, ‘데마고그’ 등의 개념과 어원, 용례를 문답 방식으로 설명한 기획 원고 등은 『동방평론』의 사회·경제적인 관심사를 잘 보여준다. 또한 ‘자료란’을 두어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리(官吏) 대조 일람’처럼 조선의 고용 실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듯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쟁점들에 주목하는 기획의 방향은 『동방평론』이 기사 수급 곤란을 겪게 된 원인을 낳은 듯하다. 잡지의 제2호에서 편집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게재치 못하게된 원고들의 제목을 열거해 놓았다. 이 가운데 ‘조선근로교육의 이데올로기’, ‘민족운동의 새로운 지도 방향’, ‘민족적 계급문학의 제창’, ‘조일인(朝日人) 공장노동자 통계’ 등은 원고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원



창간호 판권지,
고려대학교 소장

인이 검열에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동방평론』은 당대 아시아 및 식민지 국가들의 정세와 연관 짓는 가운데 조선의 현실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려 시도했던 종합잡지였다. 이 잡지는 비록 단명했지만, 조선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치 분야보다도 제국 열강의 식민지 경제 정책이 어떻게 기획되고 시행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견

지하고 있다. 이에 조세 및 금융 정책의 시행을 다룬 기획 원고, 각종 산업 분야의 통계 지표, 사회과학의 주요 개념용어 해설 등을 통해 사회경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주력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해제: 정주아)

핵심어 시사종합지, 동방의 정세, 조선의 현실, 사회과학용어해설

참고문헌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10 연극운동

演劇運動

연극운동사

1932. 5 ~ 1932. 7. 15

식민지 조선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연극운동 전문잡지다. 1932년 5월에 창간준비호가 발간되었고, 두 달 뒤에 7월호가 간행되었으나 이후 카프 검거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잡지가 발간되지 못하였다.

잡지의 편집 겸 발행인은 이상춘, 발행처는 연극운동사로 되어 있다. 대구의 프로연극단체 가두극장을 이끌던 화가 겸 무대미술가 이상춘이 『연극운동』 편집 겸 발행인이 된 것은 그가 당시 카프 연극부의 대표였기 때문이다. 발행처 연극운동사의 주소지는 경성부 안국동 98번지인데, 카프 연극부의 직속 극단 신건설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연극운동』은 카프 연극부 기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사판으로 발간된 창간준비호 『연극운동』(1932.5)에는 임화의 「조선 근대극 발전과정」, 신찬의 「재일본 조선노동자 연극운동」, 이상춘의 「소인극 무대장치법」 등이 실려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실물은 전하지 않는다.

『연극운동』 1932년 7월호(제1권2호)에는 신고송의 「조선의 신극운동」, 스기모토 료키치(杉本良吉)의 「연극론의 건설」, 마수길의 「레닌과 연극」, 이상춘의 「무대장치에 대한 관견」, 김파우의 「프롤트의 현세」 등의 연극론이 실려 있다. 아피노게노프의 「연극에 있어서의 유물변증법」은 목차에 제목만 있는 것으로 보아 검열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신고송의 논문은 조선 신극운동을 소부르조아의 연극운동으로 규정하고 프로연극과 대립항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조선 프로연극운동이 우파적 신극운동과의 대결의식을 통해 그 방향성을 확립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일본 좌익극장의 프로연극운동가 스기모토가 쓴 연극론을 비롯해



2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재일 조선인 프로극단에서 활동하는 김 파우가 일본 프로연극운동단체인 프롯트의 활동 현황을 소개하는 글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조선 프로연극운동이 일본 프로연극운동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집으로 합창시낭독극 슈프레히콜을 다루고 있다. 일본 프로연극 극작가 시마기미 야스(島公靖)의 「열에 참가하라」, 백철의 「그들의 정화(情話)」, 박세영의 「황포강반」 등 3편의 슈프레히콜 작품을 수록하였다. 잡지 앞부분에는 세계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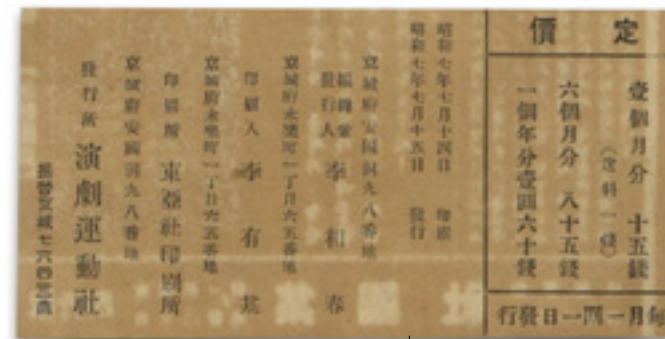
국의 슈프레히콜 공연 실황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가 실려 있다. 슈프레히콜 이외에 이동규의 창작희곡 「대학생」(1막)과 번역희곡 「삼등수병 말틴」(전10장)을 각각 1편씩을 게재한 점도 특징이다. 「삼등수병 말틴」은 1933년에 카프 연극부의 지도를 받았던 보성전문학교 연극부에 의해 상연되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국제연극운동 뉴스」를 통해 세계 각국의 프로연극운동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세계 프로연극운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연극인의 사전」은 연극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을 실은 글로서 이 잡지가 프로연극인들의 연극 전문지식 함양에도 신경을 썼음을 알게 해준다. 「상연 목록연구」에서는 일본 프로연극단체의 연극상연 목록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책의 말미에는 다음호 광고가 실려 있다. 임화의 「민족개량주의와 연극」, 김파우의 「짜베트 5개년 계획과 연극」 등의 논문과 소인극 특집 논문과 소인극 대본 등이 게재될 예정이었으나 끝내 발간

되지 못하였다. 편집, 발행인 이상춘을 비롯한 카프 연극부의 핵심지도부가 대체로 극단 신건설사 단원이어서 카프 검거사건으로 인해 잡지 발간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극운동』은 한국 최초의 프로연극운동 전문잡지로서 일제강점기의 진보적 연극운동의 이론과 노선, 조직 활동과 공연 상황 등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해제: 이상우)



2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핵심어 최초의 프로연극운동 전문잡지, 이상춘, 세계프로연극운동 실태론, 극단 신건설

참고문헌 박영정, 「『연극운동』사건」과 한, 일 프로연극의 관계, 『한국 근대연극과 재일본 조선인 연극운동』, 연극과 인간, 2007.

이민영, 「프로연극운동의 방향전환, 극단 신건설」, 『민족문화사연구』59, 민족문화사연구, 2015.

011 제일선

第一線

개벽사

1932. 5. 20 ~ 1933. 3. 15

『제일선』은 『해성』의 후속지로 개벽사가 발행한 세 번째 시사종합지이다. 1932년 5월 20일에 창간되어 1933년 3월까지 통권 10호가 발행되었다. 『제일선』의 편집 겸 발행인은 차상찬이었고, 인쇄인은 이학중이었다.

개벽사는 『제일선』의 창간호에서 『해성』에서 『제일선』으로 잡지의 체제를 바꾼 까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해성』이라는 명칭은 너무도 막연하고 현실의 사람과의 가까운 느낌이 적었던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제일선에 나선바 사명을 명실(名實)과 한 가지로 다하게 된 것을 믿는다. 내용은 재래 『해성』의 내용이 나뻐다든가 혹은 재래의 것보다 수준을 낮추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도리어 변정한 제호가 보이는 바와 같이 대중과 한 가지로 제일선에 나서서 그 여론을 위하여 문화의 계몽과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특히 침체된 문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려 하는 바이다.” 요컨대 개벽사는 『해성』의 독자층을 지식층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제일선』의 독자층을 대중으로 넓혔다. 그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침안으로 개벽사는 시사의 엄정 비판과 함께 지식의 통속화, 취미란의 충실, 문예란의 확장, 화보·구화(口畵)·삽화의 증가를 내세웠다.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잡지의 판형도 국판(210×148)에서 46배판(257×188)으로 바꾸었다.

『해성』과 대비되는 『제일선』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사는 김규택의 「모던 춘향전」이다. 『제일선』 6호(1932년 11월호)에서 10호(1933년 3월호)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연재된 「모던 춘향전」은 당시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구소설 『춘향전』을 만화라는 형식을 빌려 근대적 시각 요소와 문체로 새롭게 각색한 것이었다. 개벽사가 강조했던 편집개혁안이 두루 반영된 「모던 춘향



2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전과 같은 기사는 『제일선』의 전신이었던 『해성』은 말할 것도 없고 개벽사의 최고의 시사종합지 『개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일선』만의 독특한 기사였다.

이와 더불어 『제일선』에서 문학의 비중도 『해성』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요 문학작품으로는, 『해성』에 이어 『제일선』에서까지 연재가 이어졌던 강경애의 「어머니와 딸」을 비롯하여 김유정의 「산골 나그네」, 유치진의 「환영」 등의 소설과 김기림의 「황혼」, 김화산의 「화초분을 손에 들고」, 백철의 「날을 추워 오는데」, 박재륜의 「아내에게 주는 글」 등의 시, 유치진의 「칼 품은 월중선」, 이석훈의 「그들 형제」 등의 희곡, 백철의 「멸망하는 문학과 우월성 있는 문학」, 안회남의 「신인이 본 기성문단」, 이현구의 「프로문단의 위기」 등의 문학평론이 있다.

『제일선』은 대중 취향에 좀 더 충실한 방향으로 잡지의 편집이 이루어진 시사종합지였다. 『제일선』을 그 전신이었던 『해성』이나 개벽사 시사종합지의 원형으로 자리매김했던 『개벽』과



2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비교하면, 『제일선』에서는 시사와 정치, 요컨대 정론(政論)이 전면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사 종합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 정론성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그만큼 정론 외의 기사들이 『제일선』을 장식하고 있었다. 『개벽』에서 『해성』, 그리고 『제일선』으로 이어지는 개벽사 시사종합지의 변화상은 당시 시사종합지들의 변화상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해제: 유석환)

핵심어 시사종합지, 개벽사, 대중취미, 다양한 문학

참고문헌 김근수, 『한국잡지사연구』, 한국학연구소, 1992.

유석환, 「개벽사의 출판활동과 근대잡지」,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7.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현암사, 2004.

012 신계단

新階段

조선지광사

1932. 10. 8 ~ 1933. 9. 5

『신계단』은 조선지광사가 1932년 10월부터 1933년 9월까지 통권 11호까지 발행한 종합잡지이다. 발행처의 명칭에서 보듯 『신계단』은, 1932년 2월에 종간된 『조선지광』의 후신격으로 창간된 잡지이다. 표지에서는 한자어와 함께 '신계단'의 에스페란토어인 'LA NOVA STUPO'를 병기하였다. 편집 겸 발행인은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유진희(俞鎭熙)가 담당하였다. 창간호의 '편집후기'에 따르면 8월 중순부터 잡지 창간을 준비했으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며 국판 3백 쪽에 이르는 원고가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음을 밝혀놓았다. 창간호는 한성도서 주식회사에서 인쇄하였으나, 이후 일본인이 운영하는 인쇄소로 옮긴 것도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 『신계단』은 학술논문, 국제 및 국내 정세 분석, 과학 정보, 사회과학 자료란 등을 규모 있게 운영하였다. 「이데오로기-와 사회파시즘」(신남철), 「스피노자 철학과 유물론」(박영희), 「스피노자와 록크」(신유인), 「경제주의 비판」(홍일우), 「농업공황과 과잉생산」(한설야) 등 진보적 사회과학 논문들이 다수 게재되었다. '질문응답란'을 두어 정치, 경제, 철학 등 각종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 및 현상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였다. 특히 '종교시평'란과 종교비판 논평 등을 통해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을 강한 논조로 비판했는데, 제4호는 아예 '천도교비판 특집호'로 기획하기도 했다. 종교계 이외에, 『신계단』은 창간 초기부터 민족주의 계열 운동세력을 비판했다. 이에 잡지 『동광』의 논조를 공격하는 글은 물론 민족개량주의를 비판하는 논문도 꾸준히 게재하였다. 당초 창간호의 편집후기에는 문예란을 없애고 학술과학 논문을 실을 예정이라는 공지가 있었으나, 문예비평 및 창작란도 꾸준히 운영하였다. 임화, 한설야, 이기영,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이찬, 박세영 등 주로 사회주의 계열 작가들의 작품들이 실렸다.

그러나 이미 제3호, 제4호에 이르러 점차 검열이 강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잡지의 목차 상에는 존재하지

만 본문이 삭제된 논문들이 생겨나고, 이와 같은 정황에 대해 설명한 편집 후기도 일부가 삭제되거나 복자로 처리되어 문맥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다. 중간이 가까워지는 제10호, 제11호에 이르면 게재된 원고보다 삭제된 원고의 수가 더 많았고 편집후기마저도 전면 삭제되어 있다. 『신계단』은 여타 운동 세력을 공격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즉 이념적으로 경직된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생산적인 논점을 다룬 논문들이 상당수 압수되거나 삭제 조치를 받는 환경에서, 잡지가 다룰 수 있는 논점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조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맑스·레닌주의와 종교문제」(정우진), 「유물론자 체르냐셰프키와 레닌」(철부), 「무신론 연구를 위하여」(임수제) 등의 원고들은 모두 검열 과정에서 사라졌다. 이에 민족주의 세력이나 종교단체들을 대상으로 공격에 치중한 논문이나, 객관적인 자료 제시의 형태를 갖춘 논문들만이 살아남아 잡지의 성격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신계단』은 『조선지광』의 대를 이어 사회주의 운동 노선을 견지한 잡지로서, 언론 통제와 사상 검열의 가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해제: 정주아)

新段階 第一號				定	號
發行人	編輯人	印刷所	發行所	一冊	一冊
京城 朝鮮日報社	京城 朝鮮日報社	京城 朝鮮日報社	京城 朝鮮日報社	一冊	一冊
發行所	印刷所	發行所	印刷所	一冊	一冊
京城 朝鮮日報社	京城 朝鮮日報社	京城 朝鮮日報社	京城 朝鮮日報社	一冊	一冊
發行所	印刷所	發行所	印刷所	一冊	一冊
京城 朝鮮日報社	京城 朝鮮日報社	京城 朝鮮日報社	京城 朝鮮日報社	一冊	一冊
發行所	印刷所	發行所	印刷所	一冊	一冊
京城 朝鮮日報社	京城 朝鮮日報社	京城 朝鮮日報社	京城 朝鮮日報社	一冊	一冊
發行所	印刷所	發行所	印刷所	一冊	一冊
京城 朝鮮日報社	京城 朝鮮日報社	京城 朝鮮日報社	京城 朝鮮日報社	一冊	一冊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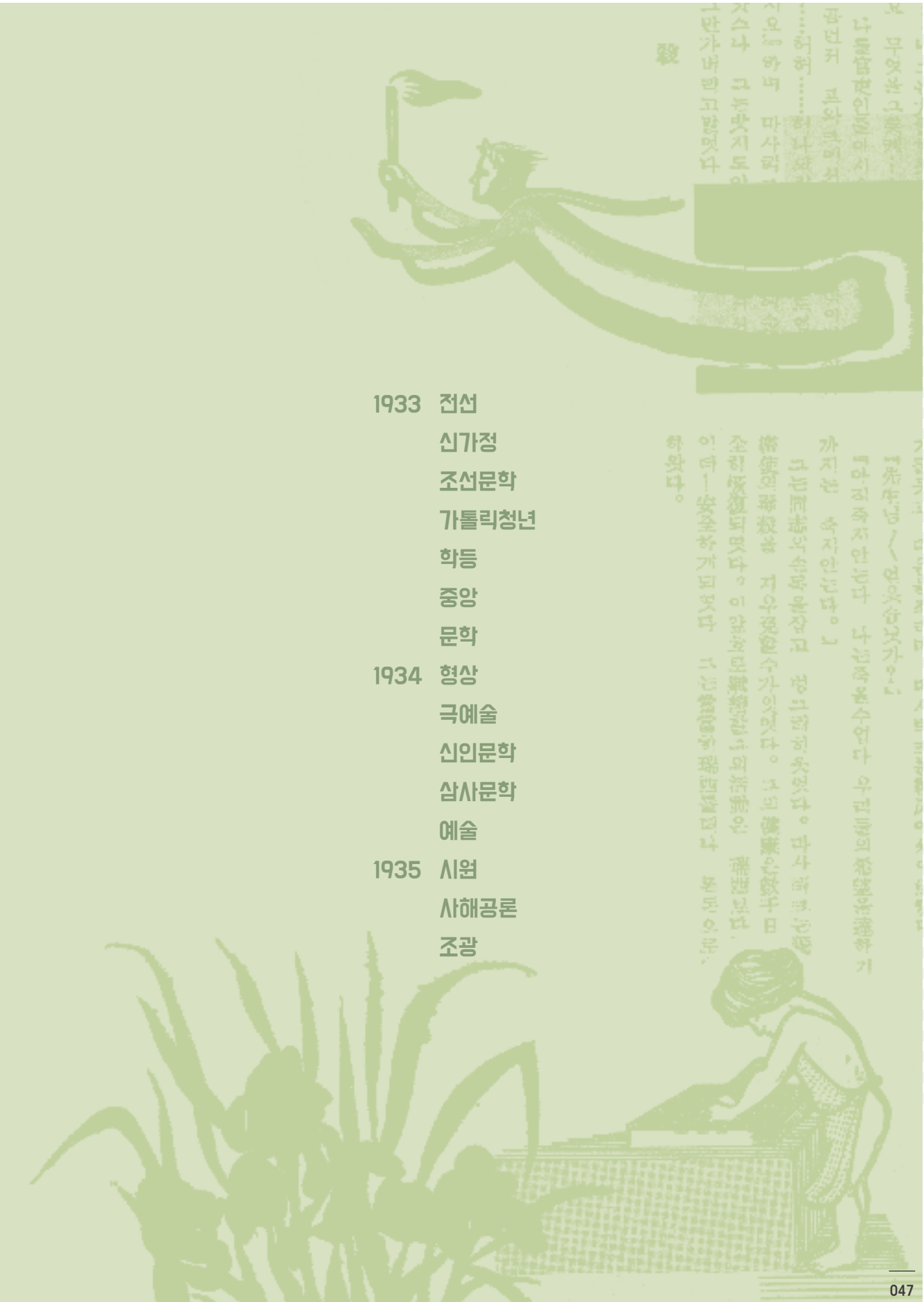
핵심어 조선지광 후신, 사회주의 선전, 민족주의 비판, 천도교 비판

참고문헌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한기형, 「식민지 검열정책과 사회주의 관련 잡지의 정치역학 : 『개벽』과 『조선지광』의 역사적

위상 분석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연구』3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013 전선

全線

적벽사

1933. 1. 1 ~ 1933. 5. 6

전선(全線)은 1933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간행된 사회주의 계열의 종합월간지이다. 발행인은 이재훈이고 발행소는 경성의 적벽사이다. 표지의 상단에는 붉은 색의 영문자로 LA JYEN SYEN이라는 제명이 쓰여 있고, 바로 아래 같은 붉은 색의 더 큰 글자로 '全線'이라는 한자가 쓰여 있다. 그리고 중앙부에 삽화가 그려져 있고, 제일 하단에 1933이라는 발간연도가 표시되어 있다.

『전선』 제1호의 '머리말'이라는 창간사는 검열에서 전면 삭제 당하고, "우리들의 전선(全線)적 진출! ××하는 곳으로 날아갈 우리들! 낙망(落望)은 절대의 금물이고 적(敵)이니 <이하 전 부 생략>"이라는 한 구절만 실려 있다. 또한 창간호 사고(社告)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리지 못했다는 20여 편의 제목이 나열되어 있다. 일제의 검열 이외에도 대부분의 잡지가 경영난, 편집난, 원고난으로 휴간과 속간을 거듭하는 등 발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전선』이 총 5회 발간으로 그친 것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선』은 『부인공론(婦人公論)』을 『여선(女線)』으로 개제하여 부록으로 발행하였다.

1933년 1월 1일에 발행된 창간호에는 사회주의 계열 잡지 답게 당대 산업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논문들이 실려 있다. 「농업생산의 위기와 농촌구제책」(박일형), 「어민생활의 참상과 그 구제책」(김기환), 「물질적 생산력과 사회조직」(이송규), 「1932년간의 군축회의경과」(맹열) 등이 그것이다. 또한 특집란에서는 '반천도교투쟁의 현단계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김약수, 홍효민 등 당대 인사들의 의견을 받았다. 같은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 『신계단』(新階段)에 대한 천도교도들의 폭행사건에 대해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검토한 것이다. 창간

창간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예면으로, 7편의 비평과 문예시평, 3편의 시, 그리고 안톤 체홉의 부활제야(復活祭夜)의 번역 소설을 포함한 소설 2편 등으로 짜여졌다.

2호에서 5호까지도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였다.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당대 사회를 진단한 논문들과 시론들과 프로문학 계열 작품들을 실었다. 창작란의 주요 필자는 조벽암, 김해강, 이흠 등이다. 1933년 3월에 발간된 3월호에는 '신춘현상창작평'이라는 제목으로 당대 중앙일간지가 발표한 신춘문에 당선작들에 대한 평을 싣고 있다. 이는 민족주의 문학을 아우르는 당대의 문단에 대한 비판적인 조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제5호에는 ‘자본주의 제국 공황’이라는 특집과 ‘소비에트 경제특집’이라는 기획 아래, 당대의 체제와 경제 문제에 대한 분석에 힘을 기울인 글들이 실려 있다. 잡지 『전선』의 마지막 권이 된 제 5호의 ‘사고’에 “내일부터는 될 수 있는대로 일찍이 보

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볼 것 없는 것이나마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잡지가 중단된 것은 갑작스러운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제: 허병식)

핵심어 전선, 사회주의 시각의 정경론, 프로문학, 소비에트

참고문헌 김민환, 「일제하 좌파 잡지의 사회주의 논설 내용 분석」, 『한국언론학보』49(1),

한국언론학회, 2001.

김문중,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과 지국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40,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14 신가정

新家庭

신동아사

1933. 1. 1 ~ 1936. 9. 1

『신가정』은 신동아사에서 발행하는 월간 종합 잡지 『신동아』의 “누이 잡지”로 발간되었다. 『신동아』의 여성, 부인, 가정란을 분리해 『신가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1933년 1월에 창간해 통권 45호를 발간했다. 동아일보사가 1936년 8월 25일자 『동아일보』 2면에 베를린 올림픽대회의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유니폼에 그려진 일장기를 없애 버린 사건이 빌미가 되어 1936년 9월에 강제 폐간되었다. 잡지의 체재 및 내용이 풍성하고 편집이 세련되어 『신여성』, 『여성』과 함께 일제강점기의 독보적인 여성 잡지로 평가받았다. 1967년 복간되어 현재에도 발행 중인 『여성 동아』의 전신이다.

『신가정』은 약 190~220매 분량으로 출판된 월간지이다. 저작 겸 발행인 양원모, 인쇄인 김진호, 인쇄소 한성도서(주), 발행소 신동아사로 되어 있다. 이후 인쇄소는 창문사로 변경되었지만 발행인은 동일했다. 잡지의 크기는 A5판으로 한 권에 20전이었다. 표제는 “新家庭”으로 한자로 표기 되어 있지만, 본문은 국문 세로쓰기 형식을 취했다. 창간호의 인쇄 부수는 약 7천부였으나, 이후에는 5천부를 발행하였다. 잡지의 초대 편집자는 시조 시인 이은상이었으며, 1935년 4월호부터는 변영로가 담당하였다. 주요섭, 최영수, 최승만 등과 같은 남성 기자들과 김자혜, 김원경, 황신타 등의 여기자들이 잡지 발간에 참여 했다. 잡지의 표지는 아름다운 여성들이나 자연의 평화로운 모습을 담은 삽화에 색을 입혔다. 『동아일보』의 연재소설 삽화를 맡아 그린 화가 이상범과 정현웅이 표지를 담당했다. 창간호는 중앙의 닭 한 마리를 중심으로 모자(母子)의 정겨운 모습을 담았다.

신동아사의 사장인 송진우는 잡지의 창간사에서 “우리는 진실한 의미에서 가정생활을 갖

015 조선문학

朝鮮文學

경성각

1933. 5 ~ 1939. 7. 1

『조선문학』은 1933년부터 발간되었던 문예잡지이다. 창간호가 몇 월에 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현재 창간호를 구할 수 없어서 정확한 창간 시기는 불명확하나 대체로 1933년 5월부터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소설가 이무영은 1933년 12월에 자신이 조선문학 창간호를 발행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조선문학』 제 5호에 해당하는 권이다. 편집 겸 발행인 이무영, 발행소는 경성각(京城閣)이다. 이후 잡지의 발행인은 이무영, 정영택, 지봉문 등으로 바뀌면서 1939년 7월까지 모두 20호가 간행되었다. 잡지의 표지에는 상단에 한자로 ‘朝鮮文學’이라는 제호가 쓰여 있고, 가운데 검은 박스 안에 권호와 년도가 표시되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조선문학사’라는 한자가 쓰여 있어, 발행소인 경성각에서 따로 잡지를 발간하는 ‘조선문학사’를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1933년 10월호의 목차를 보면 맨 앞에 ‘창작 9편’이라는 표제로 소설을 배치하고 있다. 이효석의 『돈』, 박태원의 『오월의 훈풍』, 한인택의 『문인과 거지』, 이종명의 『아마(阿媽)와 양말(洋襪)』, 안필승의 『연기』, 이태준의 『코가 붉은 여자』, 이무영의 『오도령』, 주요섭의 『도롱속의 숙녀』 등 8편이 실려 있다. 그리고 조명희의 『무제』, 김소운의 『차창』, 조벽암의 『여광(黎光)을 찾아오느냐』, 이흠의 『송우사(送友詞)』, 그리고 서항석의 『니체 시 2편』 등 5편의 시를 수록하였다. 당대 문단이 사회주의 계열의 카프, 그리고 민족문학, 혹은 모더니즘으로 양분되어 있었던 상황을 떠올려본다면, 『조선문학』은 두 진영의 작가들이 골고루 참여한 본격문학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연현은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잡지 『조선문학』에 대해서, “형식상으로 동인지가 아닌 범문단적 순문예지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프로문학계가 그 중요 집필진으로 구성됨으로써, 당시의 문학적 주류인 순수문학적인 방향에 은연중 항거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1933년 10월호에 실린 이효석의 단편 『돈』은 동반자 문학 작가로 분류되던 이효석이 원시적인 자연 속 인간의 모습과 심리를 조명하기 시작한 작품으로 의미가 있다. 같은 호의 박태원의 『오월의 훈풍』은 그의 초기작으로, 특히 문체에 관심을 기울였던 모더니스트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당대의 풍속을 세밀하게 묘사한 이기영의 중편 『진통기』가 모두 6회에 걸쳐 연재되었으나 『조선문학』의 폐간으로 인해 완결되지 못한 점도 기억될 부분이다.

시와 소설 외에 주요 작가의 수필과 번역을 싣고 있어서 본격적인 문학잡지의 면모를 보여준다. 편집의 말에 해당하는 글인 ‘편집 전언(前言)’에는 이무영으로 짐작되는 ‘M. Y.’라는 인물이, “『文타』 계연(繼燃) 이번엔 증혈(增頁)을 했다. 값도 좀 올렸다. 이 페이지, 이 원고, 이 종이, 이 정성을 따진다면 비싸다고 할 분은 없을 듯”이라고 쓰고 있다. 이 부분으로 미루어 보면, 지금 실물을 구할 수 없는 1933년 10월 이전의 『조선문학』은 『文타』라는 이름의 잡지로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0월호에 ‘동반자작가 문제를 청산함’이라는 글을 쓴 평론가 안함광도 글의 서두에 “원고를 청탁한 『文타』사의 착안점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이런 추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동아일보』 1933년 10월 10일자 ‘신간소개’ 기사에,



3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3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조선문학(문학타임즈 개제(改題) 시월부활호(十月復活號)”라는 문구가 나온 것으로 보아, 이무영과 안함광이 말한 『文타』는 ‘문학타임즈’의 약자이고, 이전까지 이 이름으로 잡지를 간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936년 5월 2권 1호부터 편집 겸 발행인이 정영택으로 바뀌었다가, 1937년 8월 휴간하였고, 속간된 1939년 1월의 4권 1호부터 지봉문이 편집인을 맡았다.

『조선문학』에 작품을 발표한 주요 필자는, 김광섭, 김기림, 김소운, 모운숙, 박태원, 박팔양, 박화성, 백철, 서항석, 심훈, 안석영, 안필승, 안함광, 엄홍섭, 유진오, 이무영, 이북명, 이석훈, 이종명, 이효석, 이흠, 임화, 정지용, 조벽암, 조용만, 주요섭, 최정희, 한설야, 한인택, 함대훈, 홍효민 등으로, 필자의 면면을 보아도 명실공히 좌우와 신구를 아우르는 당대의 대표적인 문학잡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해제: 허병식)

핵심어 조선문학, 문학타임즈, 이무영, 좌우병존, 친구공존

참고문헌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8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16 가톨릭청년

가톨릭靑年

가톨릭청년사

1933. 6. 10 ~ 1936. 11. 25

『가톨릭청년』은 1933년 6월에 창간되어 1936년 11월에 통권 43호를 내고 폐간된 가톨릭계 종교잡지이다. 해방 후 1947년 4월에 복간했다가 6·25전쟁 때 휴간하고, 1955년 1월호부터 속간해 1971년 8월에 통권 196호로 폐간하였다. 여기서는 1930년대에 발행된 통권 43호까지의 『가톨릭청년』만 다루기로 한다.

『가톨릭청년』 창간호의 편집 겸 발행인은 원형근, 인쇄인은 양수춘, 인쇄소는 조선인쇄주식회사, 발행소는 가톨릭청년사이며 가톨릭청년사의 주소는 경성부 명치정 2정목 1번지로 나와 있다. A5판 77면, 정가 15전으로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발행인 원형근은 라리보(A.J. Larribeau) 주교의 한국명으로 잡지에는 ‘원 주교’라고 나온다. 편집 주간은 신부 윤형중(마태오), 편집위원은 장면, 장발, 이동구, 정지용 등이었다. 편집 실무는 주로 정지용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발은 서양화가로 『가톨릭청년』 창간호의 표지를 그렸다.

『가톨릭청년』은 1933년 12월 10일에 7호가 발간되고, 연이어 같은 해 12월 25일에 8호가 발간된 것을 제외하고는 매달 한 권씩 잡지가 발행되었다. 발행일이 매달 10일에서 25일로 바뀐 것도 이때부터이다. 1933년 12월 25일에 발간된 잡지부터 2권 1호(통권 8호)로 쳐서 1934년 12월 25일 발간호가 3권 1호(통권 20호), 1935년 12월 25일 발간호가 4권 1호(통권 32호)가 되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러므로 1936년 11월 25일에 발간된 잡지가 4권 12호이자 통권 43호가 되는 것이다.

원형근 주교가 쓴 창간사에는 5교구연합 출판위원회에서 여러 달 전부터 『가톨릭청년』을 간행하기로 성명했으며 “우리 사랑스러운 조선에 가톨릭정신을 더욱 퍼기 위하여” 잡지를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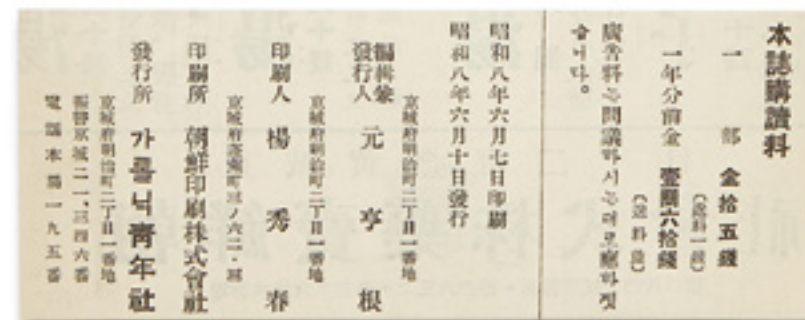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창간호는, 창간사, 논문 4편, 화제 몇 편, 이병기의 「조선어강화」 연재분 1회, 가람 이병기, 허보, 정영수, 장서언, 정지용 등의 시와 신인식, 윤을수, 장테레시아의 수필, 정지용, 설편비치(이병기 역) 등의 소설, 과학, 의학 분야의 글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논문'과 '화제'는 대체로 가톨릭 종교와 관련된 글로 꾸려져 있지만 매호에 3~5편의 시와 2~3편의 수필이 게재되었고, 그 밖에도 장편(掌篇) 소설, 단편 소설, 연재 장편 소설, 희곡, 아동 연극론, 조선어 강좌 등 문학과 관련된 글이 높은 비중으로 실렸다. 『가톨릭

청년』에 자주 작품을 발표한 문인으로는 정지용, 이병기, 이상, 김기림 등이 있으며, 이들 외에도 유치환, 박태원, 이태준, 신석정, 김소운, 김안서, 이하운 등 1930년대를 대표하는 문인들의 작품이 게재되었다.

김종수에 따르면 『가톨릭청년』에는 148편의 시, 36편의 소설, 18편의 수필, 1편의 동화, 6편의 희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가톨릭 신앙과 연관된 종교적 신앙시는 43편의 창작시와 18편의 번역시 등 61편이며, 그 밖에 소설 20편, 수필 6편, 희곡의 경우 수록 작품 전부가 가톨릭 신앙과 연관되어 있다.(김종수, 2006:177~178) 『가톨릭청년』 수록 문학작품 중 잘 알려진 작품들로는 이상의 「거울」, 「꽃나무」, 「이런詩」, 정지용의 「시계의 죽음」, 「홍역」, 「다른 한울」, 김기림의 「바다의 서정시」, 유치환의 「영원의 편지」 등이 있다.

『가톨릭청년』은 한국 천주교의 과거와 현재 및 신학적 제반 문제를 다룬 논설들을 주종으로 한 종교 잡지로서의 성격이 뚜렷하지만, 시, 소설, 수필, 희곡, 외국 작품의 번역물 등 문예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작품을 비롯해 근대 조선 사회가 당면한 제반 문제들을 다룬 논설을 실음으로써 종합 교양 잡지의 면모를 함께 지니고 있다. 김윤식은 1930년대 문단에서 『가톨릭청년』이 주목을 받은 이유로 프로문학의 퇴조와 서구 근대문명의 위기의식의 타개책의 하나로 가톨릭시즘이 유입되었고, 정지용·이상·김기림 등 한국 모더니즘 시 운동의 질적 온상이라고 할 만한 문인들이 작품을 발표한 지면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김종수는 『가톨릭청년』을 현대 문명 비판과 윤리적 문학관을 지향한 매체로 평가하며, 1930년대 폭압적인 식민지 현실에서 가톨릭 종교 잡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민족문화의 보급과 문학적 감수성의 확대라는 차원에까지 기여했다고 보았다. (해제: 이경수)

핵심어 천주교 기관지, 가톨릭 운동, 원형근, 정지용, 현대 문명 비판

참고문헌 김윤식, 『한국근대작가론』, 일지사, 1974.

김종수, 『가톨릭청년』의 문학 의식과 문학사적 가치 연구-1933년 6월 창간호부터 1936년 12월 폐간호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27,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12, 173~218쪽.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5.

017 학등

學燈

한성도서주식회사

1933. 10. 15 ~ 1936. 3. 1

『학등』은 한성도서주식회사가 1933년 10월부터 1936년 3월까지 통권 23호를 발간한 학생용 교양잡지이다. 창립 당시에 이미 학생 잡지 『학생계』를 발간했던 한성도서주식회사는 1933년에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학등』을 창간했다. 본래 한성도서의 주요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할 목적으로 간행했으나, 이후 자사의 책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만 한정적으로 무료 증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잡지에는 한성도서에서 발간한 책들의 광고 및 목록을 수

록하여 홍보를 겸하도록 했다. 발행 및 편집인은 한성도서주식회사의 임원이었던 한규상(韓奎相)으로 되어 있으나, 편집 실무는 김억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종수, 2009:206). 잡지의 표제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집자한 것이며, 창간호의 표지에는 ‘학등(學燈)’이 환하게 방을 밝힌 가운데, 학생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데 몰두하고 있는 삽화를 그려 넣었다. 창간사에서는 오늘날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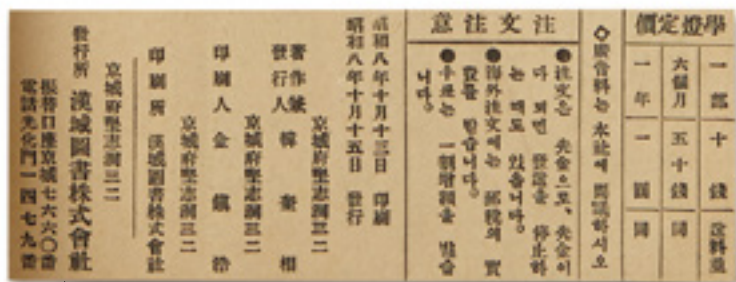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대 사회의 문명을 이룩한 힘은 오직 책에서 나온 것이라며, “글을 읽자, 글을 읽자, 얼마든지 읽자! 만권을 독파하여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글을 읽자.”고 권유하였다. 편집 후기에서도 “學燈은 現今 朝鮮의 讀書界를 위하여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이라면서 창간 의도를 명백하게 밝혀 놓았다.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데 창간 목적이 있었던 만큼 창간호는 ‘독서호(讀書號)’ 특집으로 구성하였다. 백낙준, 김윤경, 오천석, 주요한, 유헌기 등 학계 및 언론계 인사들로부터 독서 권장에 관한 내용의 원고를 받아서 실었다. 각 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창간호부터 대체적으로 특집 기획, 강좌, 연구논문, 문예 등의 체제를 유지하였다. 초창기 『학등』의 필진은 『학등』이 발간되던 해에 폐간된 『동광』의 주요 필진이 옮겨왔다고 봐도 좋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초기 『학등』의 논조는 배움과 실천을 통한 인격의 수양을 강조했던 점진적인 발전론이 주를 이루지만, 발간을 거듭할수록 점차 기획의 밀도가 떨어지면서 문예면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학등』에 꾸준히 문예작품을 발표한 작가는 전영택, 김안서, 함대훈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학등』은 제20호(1935.11)에 이르러 판형, 제호, 기획 등을 일신하고, 기획의 방향 또한 크게 바꾸었다. 창간 이후 학술적 연구 논문과 문예 작품 위주로 읽을거리를 제공하면서 독서와 수양을 강조하던 정적인 분위기를 벗어나, 생활 체육 및 학교 방문기, 시사 뉴스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활력을 더하고자 노력하였다. 물론 ‘강좌’ 란 및 ‘연구’ 란을 통해서 꾸준히 조선의 철학과 지리, 역사와 민속학 등에 대한 연구 논문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서항석의 『표현주의 문학연구』, 김도태의 『조선지리』, 송진우의 『민속학 강의』, 이재훈의 『철학 강의』 등은 대표적인 연재물이라 할 수 있고, 조운제와 김태준도 『학등』의 지면을 통해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밖에 시험공부를 잘 하는 방법이라든가 미국·중국 유학에 관한 정보 등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신기도 하였다.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잡지였던 만큼 당대에 확정된 조선 어학회의 신철자법에 의거하여 철자 표기를 통일했던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학등』은 학생 교육을 목표로 당대의 유력출판사에 의해 창간된 교양잡지이다. 이에 한편으로는 청년 교육이 곧 조선의 힘이 된다는 계몽운동 세대의 신념을 드러내는 동시에, 다른 한편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으로는 문화적 기여와 독자 확보를 동시에 겨냥했던 출판사의 홍보 전략을 보여주는 잡지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언어 및 역사에 대한 지식과 보편적인 교양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해제: 정주아)

핵심어 학생교양잡지, 한성도서주식회사, 『동광』의 계승, 독서와 수양, 조선학

참고문헌 김중수, 「일제 강점기 경성의 출판문화 동향과 문학서적의 근대적 위상-한성도서주식회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35,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9.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18 중앙

中央

조선중앙일보사

1933. 11. 1 ~ 1936. 9. 1

『중앙』은 1933년 11월 1일자로 조선중앙일보사가 창간한 종합지이다. 이 잡지의 창간은 『조선중앙일보』 속간 1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고, 『조선중앙일보』가 무기 휴간되었던 1936년 9월호를 끝으로 종간되었다. 잡지의 표지는 전체에 매호 다른 화보가 들어가고, 좌측 상단에 세로쓰기로 '中央'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아래에 ○월호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

조선중앙일보사의 사장이었던 여운형은 『중앙』 창간호의 「창간사」에서 신문에 비해 잡지가 사상을 종합하고 구체적 지식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매체라고 밝히면서, “만근(輓近) 민중의 독서력은 계몽운동의 치성(熾盛)에 따라 놀랄 만치 향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민중에게 그의 요구하는 바 지식을 제공하려 합니다. ‘지식은 힘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적절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은 당시의 종합잡지들 중에서는 문학 지면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특히 ‘기획소설’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특정한 주제에 대한 소설들을 실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1934년 12월호에는 ‘여류작가오인집’이라는 기획 아래 이선희의 「가등」, 노천명의 「결혼전야」, 백신애의 「낙오」, 장덕조의 「어떤 여자」, 최정희의 「여인」이 수록되었다. 1936년 2월호에는 ‘특선 고대소설집’이라는 기획 아래 「김진옥전」, 「배비장전」, 「숙영낭자전」, 「양산박전」이 게재되었다. 또한 『중앙』은 중편 이상의 분량을 지닌 작품을 한번에 게재하는 ‘전재소설’을 신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발표된 작품은 염상섭의 「그 여자의 운명」(1935년 2월호), 이태준의 「애욕의 금렵구」(1935년 3월호), 이북명의 「공장가」(1935년 4월호), 안화남의 「황금과 장미」(1935년 5월호) 등 4편이었다. 이외에 소설에서는 이서구, 박노갑, 김유정, 이기영, 이무영, 염상섭 등이, 시에서는 박팔

양 김기림, 유엽, 박재운 등이, 평론에서는 백철, 유치진 등이 주요 필자로 활동했다.

문학 이외의 지면에서는 당대의 국제정세와 과학기술, 가정위생학, 스포츠학 등을 폭넓게 다루었다. 창간호에는 이관구의 「모순당착의 미곡(米穀)정책」, 배성룡의 「국제정국의 동향」, 홍상하의 「산업부흥법과 미국경제의 장래」, 그리고 목상생(木床生)의 「중국문제 관견(管見)」 등의 논설이 실렸다. 또한 「근대 가정의 과학적 운영」이란 모토로 기획된 가정위생학 분야의 글로 「가정부인의 가계부」, 「초동(初冬)과 가정위생」, 「쥐잡는 법 몇 가지」, 「육아지도법」, 「초동안산법(初冬安産法)」, 등이 실려 있다. 이러한 주제 이외에도 ‘결혼특집’란을 마련하여 「결혼하려는 여성에게 보내는 글」, 「결혼반지 이야기」, 「혼담이 들어오게 하는 비결」, 「혼담의 처리비결」, 「구혼자 채점(採點)법」 등 흥미 있는 읽을거리를 실었다.

『중앙』은 신문사의 자금 사정으로 일시 휴간하였다가 1936년 1월 신년호로 속간하였다. 이로부터 중앙의 편집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되는데, ‘가정란’이 폐지되고 시사 문제를 다루는 흥미 위주의 글들이 주요 지면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 문학의 비중이 더욱 늘어났다. 이는 재정의 문제로 휴간되었던 것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더욱 흥미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지면을 구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속간호의 편집후기를 보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면 알 수 있다. 편집을 담당했던 아동문학가 윤석중은 “이제 우리는 체재, 내용, 편집을 일신해 가지고 밥만 말고 반찬과 양념도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밥도, 몸에 유조

하다는 조강밥을 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국’노릇이 아직 서툴기는 하나 여하튼 여러분 식성에 맞는 『중앙』을 꾸며드리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와 같이 『중앙』의 면모일신을 약속하였다. 한때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고 국내와 정세와 제반 사안에 대해 진보적인 의견을 내놓는다고 평가받던 『중앙』은 속간 이후 다른 신문사의 종합잡지와 구분이 되지 않는 잡지로 발간되다가 종간을 맞이하였다. (해제: 허병식)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핵심어 조선중앙일보, 여운형, 대중본위 실익잡지, 김기림의 시, 좌우문인 동석

참고문헌 박용규, 『식민지시기 언론과 언론인』, 소명출판, 2015.

유석환, 「경쟁하는 잡지들, 확산되는 문학(2) : 1930년대 『중앙』과 『사해공론』, 『조광』의 사례」, 『한국문학연구』5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7.

전상기,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 퇴조와 『중앙』의 자리」, 『사림』27, 수선사학회, 2007.

019 문학

文學

시문학사

1933. 12. 25 ~ 1934. 4. 1

『문학』은 1933년 12월 25일에 창간되어 1934년 2월 1일에 2호, 1934년 4월 1일에 3호를 발간하고 중단된 순수 문예지이다. 편집 겸 발행인은 박용철, 인쇄인은 김진호, 인쇄소는 한성도서주식회사, 발행소는 시문학사이며, 시문학사의 주소는 경성부 적선동 169로 판권장에 나와 있다. A5판 37~41면에 이르는 얇은 잡지로 정가는 20전이다. 3호는 이현구가 편집을 맡았는데 중간호가 되었다.

박용철은 짧은 생애 동안 네 종류의 문학 예술잡지를 발행했는데, 『문학』은 『시문학』, 『문예월간』에 이어 세 번째로 발행된 잡지였다. 이후 1934년 4월에 『극예술』이 발행되었다. 『문학』은 표지에 ‘文學’이라는 제호를 크게 넣고 그 아래 목차를 세로로 배열해 실어놓는 형식을 취했다. 『문학』 창간호 첫 면에 실린 에미 로웰(Amy Lowell)의 시 「Obligation」은 2호 ‘편집여언’에 ‘사의’라는 제목으로 번역, 소개된 시의 원문이다. 창간호를 보면 수필, 시, 논문, 해외문학 등으로 꾸러져 있고, 김진섭의 수필 「창」과 김광섭의 「수필문학소고」가 앞쪽에 배치되어 있다. 시로는 김영랑의 「사행소곡육수」, 조운의 「만월대에서」, 유치환의 「수선화」, 김기림의 「산보로」, 허보의 「나의일생」, 현구(김현구)의 「내마음사는곳」, 신석정의 「너는비들기를부러워하드구나」, 브라이언 후커의 시를 박용철이 번역한 「꿈나라장미의노래」 등이 실려 있다. 논문으로는 롯데 아담의 글을 독문학자 조희순이 번역한 「문학에있서서의체험과세계관」, 알랭의 글을 불문학자 이현구가 번역한 「회화론」, 영문학자 이하운의 논문 「시인더·라메-어연구(I)」 등이 수록되었다. 해외문학으로는 러시아 작가 조쉬첸코의 작품 「모(姆)(원제 나나)」를 함대훈 번역으로 실었고, 그 밖에도 영국 작가 워드하우스의 「애독자」를 김진섭 번역으로, 알버트 브로드베크의

「독일민중무대중간사」를 조희순 번역으로 게재했다. 『문학』의 필진은 앞서 살펴본 『시문학』, 『문예월간』의 필진과 대부분 겹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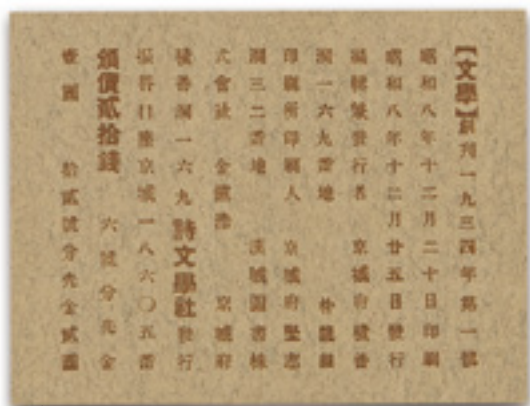
2호에는 이하운의 「더·라·메-어 의시경」, 빌헬름 빈텔반드의 글을 조희순이 번역한 「괴-테의 「파우스트」 와문예부흥의철학」, 김상용의 시 「우리 길을가고 또갈까」, 「자살풍경스케치」, 「남으로 창을 내겟소」, 임학수의 시 「면곡조」, 「항해」, 허보의 「처」 등이 실려 있다. 이 중에서 김상용의 「남으로 창을 내겟소」는 “왜사냐거든/웃지요”라는 구절로 지금도 애송되고 있다. 그 밖에 러시아 시인 데미안 베드

느이의 작품을 함대훈이 번역한 「거미와파리」, 체스터튼의 글을 김광섭이 번역한 「풍자론」, 릴리안·리온의 소설을 박용철이 번역한 「거울」 등이 실려 있다. ‘후기’에서 편집자는 『문학』이 독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고 조선 문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문학에 대한 진실한 열의”임을 강조하고 있다. ‘편집여언’에서도 잡지의 내용은 사색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지 오락과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임으로써 『문학』을 향한 독자의 비판에 맞서고 있다.

3호는 엘리너 파젠(Eleanor Farjeon)의 「The night will never stay」의 원문을 소개하면서 시작된다. A.E. 하우스만의 강연을 박용철이 번역한 「시의명칭과성질」과 함께,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유치환의 「눈」, 신석정의 「산으로가는마음」, 「바람」, 현구의 「산비탈기같은」, 임학수의 「달에빛외인정자」 등의 창작시가 실렸다. 그 밖에 김영랑의 기행시 「불지암서정」, 신석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정의 「고요한 골에는 물도 흘러가겠지」, 유치환의 「포푸라」, 최재서의 「금주린 손박사」 등이 실렸으며, ‘편집여언’에서는 프로문학에 대한 생각을 밝혀 놓았다. 3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김영랑의 대표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다.

40면 내외의 얇은 잡지였던 만큼 뚜렷한 문학적 색채나 지향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지만 김영랑, 김상용 등의 대표시

가 수록된 점이 눈에 띄고 시문학과와 해외문학과 등 필진이 박용철이 앞서 간행한 잡지들과 겹치며, 프로문학에 대해 거리를 두고자 한 지향점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해제: 이정수)

핵심어 순수 문예지, 『시문학』, 『문예월간』, 박용철, 시문학과, 해외문학과, 김영랑의 시, 번역시

참고문헌 권영민 편,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5.

020 형상

形象

신흥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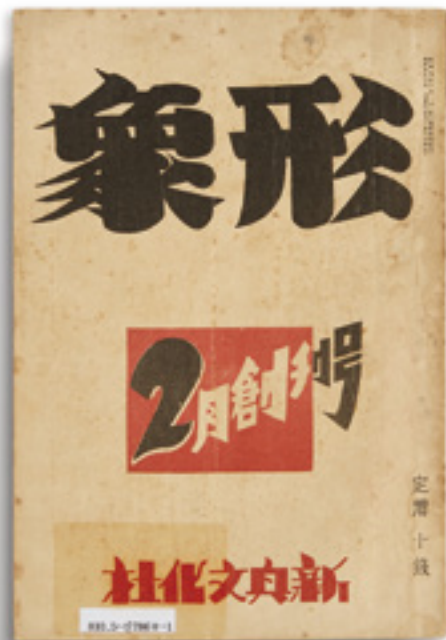
1934. 2. 6 ~ 1934. 3. 15

『형상』은 1934년 2월 창간되어 1934년 3월까지 통권 2호가 발간된 카프 문인 중심의 순문에 잡지이다. 편집 겸 발행인은 이동야(李東厓)이고, 발행소는 경성부 인의(仁義)동 119-1에 있는 신흥문화사(新興文化社)이다. 이곳은 발행인 이동야의 집이기도 하다. 인쇄인은 최봉섭(崔奉燮)이며, 인쇄소는 교본인쇄소(橋本印刷所)이다. 1호의 본문은 68페이지, 2호는 71페이지이다.

별도의 창간사는 없으며, 이동야가 쓴 창간호 편집후기에 의하면, 『형상』은 “우리들의 문학 건설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다. 문예지답게 시, 소설, 희곡, 번역, 창작평의 편집 체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기영, 한설야, 김남천, 박세영, 임화, 안함광 등 카프 계열 문인들이 주요 필진을 이루며, 특히 이기영의 「돌쇠」를 창간호의 대표작으로 내세우면서, “중국 프로문학의 「아큐정전」에 비견”할만한 작품으로서 노신(魯迅)의 「공을기(孔乙己)」를 특별히 소개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상』이 프로문학 잡지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상』에 수록된 작품으로 시로는 박아지의 「숙아」(1호), 「나는 떠날 수 없소」(2호), 김기림의 「거지들의 크리스마스 송」(1호) 등을, 소설로는 이기영의 「돌쇠(鬚釧)-서화(鼠火)의 속편-(1~2호), 최정희의 「성좌(星座)」(1호), 조벽암의 「실직(失職)과 강아지」(2호) 등을 주목할 만하다.

노동자, 농촌, 빈곤을 제재로 시를 써온 박아지는 「숙아」에서 노동자 남편을 잃은 숙이에게 다시 삶의 의지를 주고자 하지만, 「나는 떠날 수 없소」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 고향에 돌아왔으나 고향 역시 살 곳이 못되어 절망하는 이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노동자·농민의 궁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핍한 삶에 얹힌 정조(情調)를 드러내는 박아지의 시에 비해 김기림의 시 「거지들의 크리스마스 송」은 겨울의 추위와 가난을 다양한 시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이 시는 어머니로 의인화된 ‘대지’를 봄과 겨울로 대조함으로써 겨울에 고통 받는 이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특히 “우리들의 「싼타 크로스」 늑은이는 심술구저서 그가 퍼주고 간 흰눈은 어름보다도 차단다/ 교회당에서는 붉게 다른 난로에 녹

은 찬미가가 흘러오오/ 시장의 집에는 연화가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어둠의 벼”이라는 구절을 통해, 오늘·여기의 고통이 종교와 정치로도 구원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다.

이기영의 소설 「돌쇠」는 “사백팔십자원고지로 백오십매의 장편”으로서 「서화」의 속편으로 연재되었지만, 『형상』의 종간과 함께 연재도 중단되었다. 프로소설의 이른바 ‘목적 의식기’에 쓰인 「서화」와 마찬가지로 「돌쇠」에서도 본격적인 계급투쟁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주인공 ‘돌쇠’가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을 절감하며 참다운 문명개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편, 지식인 ‘광조’에 대해 더욱 호감을 갖게 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기영은 「서화」, 「돌쇠」를 거쳐 이후 프로소설의 대표작이자 한국소설사의 큰 봉우리 중 하나인 장편소설 「고향」을 발표하게 된다.

희곡으로는 송영의 「신임이사장」(1호)을, 평론으로는 백철의 「조이스에 관한 노트」(1호), 임화의 「현대의 문학에 관한 단상」(1호), 김남천의 「창작방법에 있어서의 전환(轉換)의 문제」, 안함광의 「시사문학의 융화와 타합(打合) 나이브리아리즘」(2호) 등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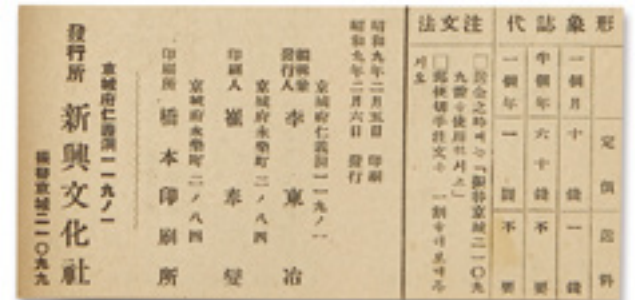
송영의 희곡 「신임이사장」은 극단 ‘신건설’의 2회 공연 대본으로, 자본주의 악덕 기업가의 정체를 폭로하는 작품이다. 삼림회사 신임 이사장 ‘이성환’은 참모인 ‘박삼천’이 써준 연설문을 제

대로 읽지도 못하고 중언부언한다. 그 사이 지난 해 삼림회사 직원의 폭행으로 아내가 죽은 것에 울분을 참지 못해 오던 ‘용진’은 연설장에서 소란을 피운다. 그러나 이사장은 직원들을 시켜 그를 끌어내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비정한 모습을 보인다. 「신임 이사장」은 계몽적 설교가 아닌, 인물의 대화와 상황 설정을 통해 악덕 자본가를 고발하고 있는 점에서 리얼리즘극의 모델이 되고 있다.

김남천의 「창작방법에 있어서의 전환의 문제」는 러시아의 라프와 일본의 나프를 예로 들면서, 창작방법의 새로운 방향으로 조직과 전 대중의 실천문제를 연결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안함광은 「시사문학의 융화와 타합 나이브리아리즘」을 통해, 문학을 포스터문학, 시사문학, 부르주아 형식주의 문학으로 나누고, 그 중 부르주아 형식주의 문학을 ‘나이브리아리즘’으로 명명하며 타도할 것을 주장한다.

이처럼, 『형상』은 1930년대 중반 프로문인들 중심의 작품을 싣는 한편, 신인 작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편집체제에 있어서는 소설의 경우 삽화를 활용한 것이나, 편집인의 말처럼 많은 글을 싣기 위해 글자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였다. (해제: 박용찬)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핵심어 형상, 프로문학, 이기영의 소설, 박아지의 시, 송영의 희곡

참고문헌 김근수, 『한국잡지사』, 청록출판사, 1980.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12.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21 극예술

劇藝術

극예술연구회, 시문학사

1934. 4. 18 ~ 1936. 9. 29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 신극운동단체인 극예술연구회의 기관지로 발행된 연극전문잡지다. 1934년 4월에 창간호가 간행되었고, 이후 1936년 9월 5호를 마지막으로 잡지 발간이 중단되었다. 현재 3호를 제외한 1, 2, 4, 5호가 전해지고 있다.

잡지의 발행처는 극예술연구회와 시문학사로 되어 있으며, 편집 겸 발행인은 시문학사 대표인 시인 박용철이 맡았다. 그는 『극예술』 이외에 『시문학』, 『문예월간』을 발행하기도 했다. 그는 극예술연구회 회원이며, 극예술연구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해외문화파의 동인이며, 문학잡지 발행인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극예술』의 편집 겸 발행인 역할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잡지 편집의 실무는 이현구, 김광섭, 함대훈 등 해외문화파의 핵심 동인이 맡았다.

『극예술』창간호의 표지에는 ‘근대극의 아버지’로 지칭되는 극작가 헨릭 입센의 사진이 실려 있다. 이는 극예술연구회가 근대극의 확립을 표방한 단체라는 사실을 상징해준다. 또 1934년 4월 18, 19일에 극예술연구회가 제6회 정기공연작품으로 경성 공회당에서 상연한 입센 작, 박용철 역 〈인형의 집〉 공연에 맞춰 잡지를 발간했기 때문에 창간호를 입센 특집호로 꾸미게 된 것이다. 창간호에 수록된 글 중에 이현구의 『조선연극사상의 극연의 지위』, 윤백남의 『조선연극운동의 20년을 회고함』, 서항석의 『신극과 흥행극』 등의 논문이 주목할 만하다. 극예술연구회가 지향하는 신극운동의 노선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대중극(흥행극)에 대한 대타의식을 뚜렷하게 드러냄으로써 신극운동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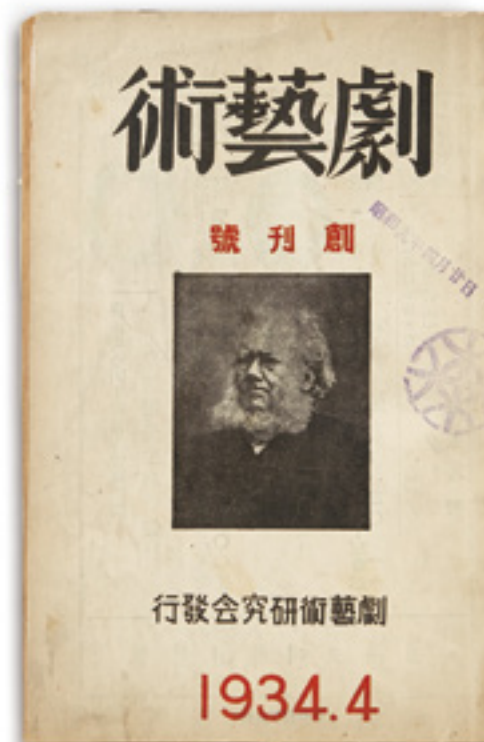
김광섭의 『입센의 예술과 사상』, 『헨릭 입센의 생애』는 입센 특집호로서 창간호가 갖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논문이다. 그밖에 홍해성의 『연출법에 대하여』, 이용규의 『연출의 개성과 통일』,

이용의 『무대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이 연극 실무에 관한 글도 나란히 게재되었다. 극연 연구부가 작성한 「극연 조사 특집」은 극예술연구회의 조직, 구성원, 공연활동 등에 관해 살펴하는 데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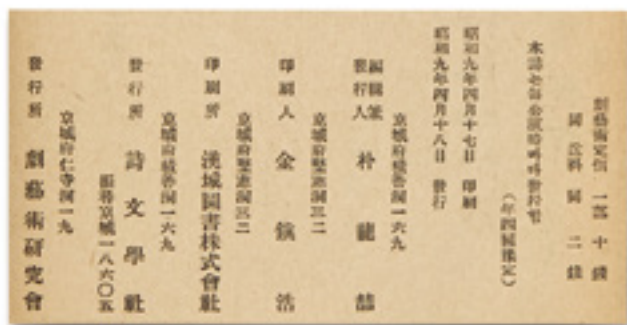
2호(1934.12)는 극예술연구회 제7회 공연인 안톤 체홉의 〈앵화원〉 상연(1934.12, 경성 공회당)과 동시에 발간되었다. 역시 잡지 표지에 안톤 체홉의 사진을 싣고, 모리스 베어링(이하운 역)의 「체홉의 희곡」, 함대훈의 「체홉의 〈앵화원〉에 대하여」, 「체홉의 극작가로서의 생애」 등과 같은 체홉 특집논문을 게재하였다. 일반 논문으로 막스 라인하르트(장기제 역)의 「극예술론」, 김광섭의 「관중시론」, 김진섭의 「연극잡필」, 이현구의 「연극시감」 등이 있고, 연극 실무에 관한 글로는 홍해성의 「연출론에 대하여(2)」, 이용의 「명일의 무대인을 위하여」, 이의춘의 「출연자로서의 느낌」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잡지에 연극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글들을 가급적 균형 있게 수록하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4호(1936.5)는 극연 제11회 공연 유치진 작 〈자매〉, 전한 작, 김광주 역 〈호상의 비극〉 상연(1936.5.29~31)에 맞춰 발간되었다. 4호에 실린 글로는 김광섭의 「번역극의 생명」, 이현구의 「영화와 연극」, 유치진의 「〈자매〉에 대하여」, 정래동의 「〈호상의 비극〉의 작품적 위치」, 김일영의 「장치가로서의 말」, 이용의 「내 존경하는 몰리에르」, 전일검의 「첫 무대를 밟던 때」 등이 있다. 잡지의 분량도 이전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으며, 11회 공연작품인 〈자매〉, 〈호상의 비극〉에 대한 해설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기획특집의 성격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5호(1936.9)는 제12회 공연 유치진 작 〈춘향전〉 상연(1936.9.29~30)에 즈음하여 출간되었



창간호 표지,
고려대학교 소장



창간호 판권지, 고려대학교 소장

다. 잡지 앞부분에 〈춘향전〉 공연 프로그램이 게재되어 있다. 권두논문으로 극연의 이론가 이현구의 논문 「조선연극운동에 대한 일소론」이 실려 있고, 〈춘향전〉 특집논문으로 송석하의 「창조(倡調)극 춘향전 소론」, 유치진의 「춘향전 각색에 대하여」, 함대훈의 「광한루와 춘향사의 인상」, 이운곡의 「〈춘향전〉연출대장에서」 등이 실려 있다. 극연의 재정을 담당했던 서항석의 「극연 경리의 이면사」는 극예술연구회의 실제 파악에 도움이 되는 글로서 가치를 지닌다.

『극예술』은 식민지시대의 대표적인 신극운동단체인 극예술연구회의 이념과 노선, 조직, 공연 활동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제공하는 잡지다. (해제: 이상우)

핵심어 극예술연구회, 박용철, 해외문화파, 입센, 체홉, 유치진

참고문헌 김재석, 「극예술연구회 제2기의 번역극 공연에 대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46, 한국극예술학회, 2014.

이상우, 「극예술연구회에 대한 연구: 번역극 레퍼터리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7, 한국극예술학회, 1997.

이승희, 「극예술연구회의 성립」, 『한국극예술연구』25, 한국극예술학회, 2007.

양승국, 『한국근대연극비평사연구』, 태학사, 1996.

022 신인문학

新人文學

청조사

1934. 7. 9 ~ 1936. 10. 1

『신인문학』은 1934년 7월 9일자로 창간된 신인 중심의 월간 종합 문예잡지이다. 1934년 7월에 창간되어 1936년 10월 1일 3권 3호로 종간되었다. 저작 겸 발행자는 노자영, 인쇄인 김진호, 인쇄소 한성도서주식회사, 발행소는 청조사(경성 견지동 32)로 되어 있다. A5판 125면이며 정가 20전이였다.

『신인문학』은 ‘신인’이라는 말을 제호로 내세우면서 어떤 경향이나 이념을 앞세우지는 않았다. 창간호에서 발간사를 붙이지 않고 대신 마지막 면에서 “본사는 근 7, 8년간이나 노자영 씨의 신병으로 정체상태에 있어온 바 금번 동씨의 병이 쾌차함을 기회로 사무를 일신하고 도서잡지를 간행”한다는 사고를 실었다. 당시 노자영은 시인이자 소설가, 수필가, 극작가로 활동할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재능을 보였는데, 잡지 역시 그런 개인적 재능과 연관되어 있다. 창간호에는 노자영의 서평 「장차올 세계 구주의 멸망과 신세계연방」, 수필 「석왕사의 은야월」, 서사시 「은하월의 화금보」, 기행문 「반월성반의 묵례」, 소설 「청묘(靑猫)」등 여러 장르에 걸쳐 5편이 수록되어 있다.

『신인문학』 창간호는 표지에서 ‘노춘성(노자영의 호) 편집’과 ‘여름꽃’을 내세우고, ‘푸른 물결’과 ‘꼬비사막’을 내지로 장식하였다. 목차는 4면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학작품보다는 다양한 읽을거리를 수록하였다. 첫머리에는 김문약의 실화 「조선인 사관의 중국남북대전 참전기」 외에 논문으로 망운루인의 「장개석과 그의 고원한 이상」, 노자영의 「구주의 멸망과 신사회 연방」, 우몽산인의 「작가 박식론」등이 수록되었다. 소설로는 이무영의 「당기 삼화」, 정은성의 「청춘 애화」, 노자영의 「청묘」 등이, 시로는 박종화의 「아춘」, 김억의 「바다」의 3편, 신석정의 「오월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의 아침' 등이, 수필로는 이광수의 「나의 문단생활 30년」이 실려 있다. 그리고 「잡록」에서 문인들의 별명, 외국어, 학력, 신문 잡지 원고료, 잡지 발행 부수 등을 실었고, 「문인들의 월수입 조사」에서는 유명 문인들의 수입 현황을 제시하기도 했다. 가령, “이광수 『조선일보』 부사장 때는 180원씩의 월급을 받았으나 지금은 판권과 고료에서 수입이 있을 뿐. 이은상 『신가정』 주간으로 월급 70원과 고료 등을 합쳐 약 80원. (...) 현진건 『동아일보』 사회부장으로 월급 80원과 양계 수입을 합쳐 월 100원을 초과. 주요섭 『신동아』 주간으로 월급 80원. 김기림 『조선일보』 기자로 월급 60원” 등과 같이 작가들의 구체적인 수입 내역을 밝혀 놓았다. 이처럼 『신인문학』은 어떤 주의나 경향보다도 일반 대중의 관심과 흥미에 부응하는 식의 편집 방향을 보여주었다.

『신인문학』은 제호에서부터 신인을 발굴하려는 목적을 내걸었다. 창간호에서부터 “투고환영”이라는 제목과 함께 장르를 불문하고 “역량 있는 작품이면 상당한 난에 게재해 드리겠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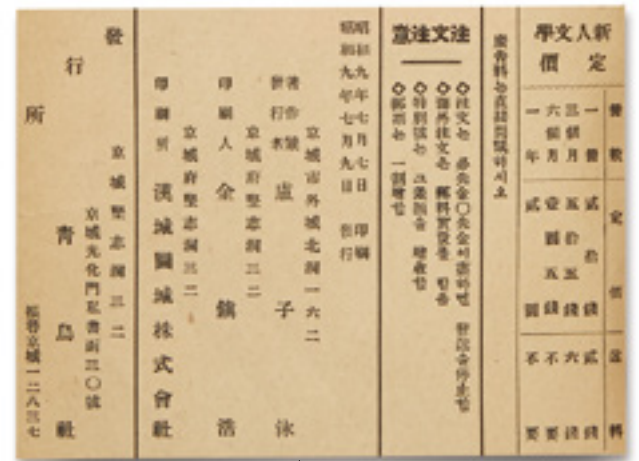
다.”라며 신인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신인문학』은 「사고」를 내건 바로 다음호부터 「신인자유시단」이라는 코너를 개설하여 신인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호를 거듭할수록 산적한 원고를 수록할 수 없어 다음 호에 게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고를 실은 데서 독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엿볼 수 있고, 실제로 「신인자유시단」에 50인의 신인 작품이 수록된 적도 있다.

노자영은 자금난으로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격월간으로 발행하다가 중간 무렵에야 몇몇 호를 월간으로 간행하였다. 종간호 「사고」에는 “종래의 편집방법을 포기하고 내용과 체재를 일신하여 중견작가의 작품을 망라하고 또 신인의 문단 등용문이 될 만한 권위 있는 순문에 잡지로 변경하겠습니다.”라고 밝혀 갱신의 의지를 보였으나 속간되지 못했다. 『신인문학』은 1930년대 중반기의 종합 문예지로 신인 발굴과 창작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해제: 강진호)

핵심어 종합 문예지, 신인 발굴, 노자영, 대중적 흥미거리

참고문헌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최호영, 「『신인문학』소재 박남수의 시와 초기 시세계의 형성 과정」, 『한국시학연구』49, 한국시학회, 2017.2.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023 삼사문학

三四文學

삼사문학사

1934. 9. 1 ~ 1936. 10. 1

『삼사문학』은 1934년 9월 1일 자로 창간된 문학동인지이다. 창간호의 편집·발행 겸 인쇄인 신백수, 인쇄 겸 발행소 삼사문학사(경성 수송동 45), 판형 A5판 64면, 정가 15전으로 되어 있다. 창간호는 활판이 아닌 등사판으로 200부를 발행했다. 이후 제2호는 B5판(4·6배판) 43면, 제3호부터는 A5판으로 간행되었다. 제1호~제5호 모두 서울 삼사문학사에서 간행되었고, 제6호는 동경에서 간행되었다고 하나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삼사문학’이라는 명칭은 창간연도인 1934년에서 유래한다.

창간 동인은 김영기, 김원호, 신백수, 유연옥, 이시우, 이종화, 정현웅, 정희준, 조풍연, 한상직, 한탁근 등 11명이다. 제2호에는 장서연, 최영해, 홍이섭 등이 참가하였다. 제5호까지는 조풍연, 정현웅이 편집을 담당하였고, 임옥인, 목일신, 정영수, 김진섭 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이상의 시 「I WED A TOY BRIDE」가 수록되었다. 제6호는 김환기, 길진섭, 김병기 등 젊은 화가들이 삽화와 컷을 그렸고, 황순원, 한적선 등이 시를 썼다고 알려져 있다.

『삼사문학』의 창간호에 「34의 선언」을 쓴 신백수는 ‘새로운 예술로의 힘찬 추구’를 내세웠다. 여기서 “개개의 예술적 창조 행위의 방법 통일을 말치 않는다.”, “끝(는) 끊(는) 의지와 섞임의 사랑과 상호 비판적 분야에서 결성될 것”이라고 하여 새롭게 출발한 동인지의 방향과 포부를 밝혔다. 창간호에는 한천의 「잃어버린 진주」, 이시우의 「아르(アール)의 비극」, 신백수의 「얼빠진」(외 1편), 유연옥의 「이중성」, 이종화의 「호린 날의 고민」, 정현웅의 「생활의 파편」, 김영기의 「결인」, 김원호의 「없는 사람들」, 조풍연의 「대각선상의 여자」, 한상직의 「풍랑」 등이 수록되었다. 이들 동인들은 잡지 발행을 목적으로 모인 스무 살 전후의 신인들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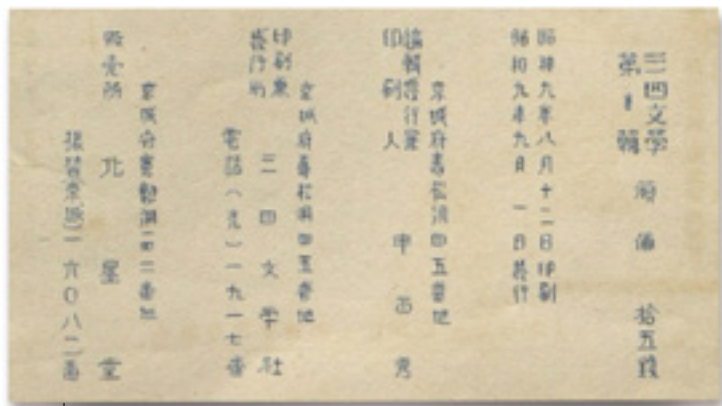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만 점차 신백수를 중심으로 경향을 같이 하는 작품을 발표하였다. 『삼사문학』은 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시, 시조, 소설, 시평, 미술 평론 등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수록된 종합문예지의 성격을 띠었지만, 제4호부터는 주로 초현실주의 경향의 시들이 수록되어 유파화될 수 있었다.

『삼사문학』에 수록된 시 작품들

은 일반 서정시, 현실의식이 강하게 드러난 시, 지적인 이미지의 시, 다다와 초현실주의 계통의 시로 대별된다. 첫째 계열로는 신백수의 「얼빠진」과 「구름이 매혹하더라도」를 들 수 있고, 둘째 계열로는 정희준의 「찾는 밤」과 유연옥의 「미-라제(祭)」가 대표적이며, 셋째 계열에는 정현웅의 연작시 「CROQUIS」의 「일기장」과 「길」이 속하며, 넷째 계열에는 이시우의 「아르의 비극」, 「제일인칭 시」, 「방」, 한천의 「프리마돈나에게」, 「성」, 신백수의 「어느 혀의 재간」, 「12월의 종기」 등 가장 많은 편수의 시들이 속한다. 이 네 번째 부류의 시는 띄어쓰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수치나 숫자를 삽입하고, 외국어 표기를 그대로 노출하는 등 초현실주의적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아르는거울안의아르와같이슬프오”(「아르의 비극」에서) 이런 경향은 언어의 현실 재현 기능을 부정하여 전통적인 서정시 형식에 충격을 주었다. 언어 및 형태 실험에 골몰하는 이러한 시적 전략은 근대의 이성 중심적 사유 방식을 해체하고 탈(脫)근대적 상상력을 펼쳐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삼사문학』에 일반 서정시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와 현실 비판적인 시도 다수 수록되었지만, 네 번째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시적 실험을 의욕적으로 시도한 동인으로 평가된다.

『삼사문학』은 이런 일련의 활동으로 시인 군의 폭넓은 교체와 창작 계층의 확대에 기여했고, 1930년대 중반의 문단에 새로운 초현실주의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시단을 풍성하게 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해제: 강진호)

핵심어 문학동인지, 초현실주의, 아방가르드, 신백수

참고문헌 강희근, 『『삼사문학』 연구—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2.12.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이시우, 「역(歷)의 내력」, 『상아탑』7, 1946.6.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홍이섭, 「나의 ‘삼사문학’ 시절」, 『나라사랑』18, 외솔회, 1975.3.

024 예술

藝術

예술사

1934. 12. 10 ~ 1936. 1. 1

종합예술지를 표방하며 1934년 12월에 창간한 잡지다. 발행일은 34년 12월로 되어 있으나, 창간호의 표지에 '신춘특집호'라는 표시와 함께 '1935'라는 년도가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잡지의 발간은 1935년 1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발행인은 박송이고, 발행소는 예술사였다. 잡지의 표지에는 상단에 'THE ART'라는 영어 표제와 '藝術'이라는 한자표제가 쓰여 있고, 하단에는 예술잡지답게 현대미술 작품이 실려 있다. 주요 분야는 영화와 연극이었고, 문학작품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창간호는 평론을 통해 다양한 예술분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화의 「언어와 문학」, 전평의 「창작방법과 영화예술」, 김수효의 「신흥연극의 무대장치 실제」, 박기채의 「영화의 교육적 의의와 본질」, 설강의 「무대사진예술에 대하여」, 그리고 김봉면의 「동극(童劇)에 대한 편론(片論)」 등은, 연극과 영화, 사진을 망라하는 예술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평을 시도하고 있다.

창간호에 실린 「아등(我等)의 배포망지사(配布網支社)를 설치하라」라는 기사에서는, “『예술』은 언제든지 그 제호와 같이 조선의 예술전당을 건설하는 기관지인 동시에 수만 동지들의 것이니, 서로 지지하고 원조합시다. 우리 진영의 확고는 배포망의 완성에 있으니 일일이라도 속히 지사를 설치하고 독자의 배가운동에 힘씁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편집후기’에서는 “『예술』은 그 이름과 같이 쓸쓸한 조선이나마 문화운동만은 다시 말하면 예술운동만은 남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령하려고 나온 것입니다.”와 같이 예술전문지의 성격을 드러내었다. 『예술』은 당대 조선사회의 예술운동을 망라한 기관지의 성격으로 발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창간호 표지,
서울대학교 소장

나 이러한 시도는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하고, 1936년 1월에 간행된 제4호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창간호에 실린 임화의 「언어와 문학」은 인간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 느끼고 의욕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언어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글로, 이후 임화의 문학론을 거론할 때 자주 인용되는 논문이다. 2호에 실린 안함광의 「조선 프로문학의 현단계적

위기와 그 전망」은 카프가 해산된 1935년 벽두에 발표된 글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는 이 글에서 프로문학의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으나, 그 위기를 탈출할 전망을 뚜렷하지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2호에서 이현구와 김광섭이 각각 「불(佛)문단 사조의 동태」와 「영(英)문단의 금후진전」이라는 글을 발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은 해외문학의 소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예술』 2월호를 기대하라!」는 기사에서는 “『예술』은 이 역사적으로 빛날 1월을 기하여 침체와 우울 속에서 비명을 하고 있는 조선문단에 불을 지르고 대중에게 실익을 줄 새로운 문학을 건설하려고 지금 편집에 분망중이니, 수만동지는 불원에 나올 이월호를 환호로 맞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조선 문학에 대한 특집 기획을 예고하였다. 2월이 아니라 4월에 발간된 제2호에는 안함광, 한효, 이현구, 김광섭, 이석훈, 장혁주 등의 문학론이 실려 있어, 종합예술지를



창간호 판권지,
서울대학교 소장

지향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문학을 두었던 예술지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로 발간된 3호와 4호에서도 주로 문학론과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지면이 구성되어 있어서, 애초에 목표로 삼았던 종합예술지로서의 성격은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해제: 허병식)

핵심어 순문예지, 예술사, 임화, 해외문학 적극소개

참고문헌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25 시원

詩苑

시원사

1935. 2. 1 ~ 1935. 12. 3

『시원』은 1935년 2월 1일자로 창간되어 통권 5호로 종간된 시 전문지이다. 2호는 1935년 4월 1일, 3호는 1935년 5월 3일, 4호는 1935년 8월 3일, 5호는 1935년 12월 3일에 발간되었는데 발행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발행일도 자주 바뀐 것으로 보아 정기적으로 잡지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편집 겸 발행인은 오희병(오일도)이고, 인쇄인은 김진호이며, 인쇄소는 한성도서주식회사, 발행소는 시원사로 주소지는 경성부 수송동 137번지 2호이다. 창간호는 A5판 54면으로 정가는 20전이다.

오일도는 창간호의 편집 후기에서 “문학을 그시대의반영이라면 문학의 골수인 시는 그시대의 대표적울음일것”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조선 시인이 무엇을 보고 느끼고 노래하는지 여러 독자에게 그대로 전해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창간호의 지면은 시, 시조, 역시, 연구, 삼대신문신춘현상당선시가초, 편집 후기로 구성되어 있다. 시로는 박종화의 「월야자명(月夜煮茗)」, 박용철의 「단편」, 김상용의 「나」, 김안서의 「해변소곡」, 노천명의 「내 청춘의 배는」, 김기림의 「충충계」 외 1편, 모운숙의 「저울밤」, 신석정의 「나는 어둠을 껴안는다」, 오일도의 「노변의 애가」 등이 실렸고, 김오남과 노산 이은상의 시조, 이하운이 번역한 조이스 시 2편, 서항석의 번역한 하이네 시초를 비롯해 조희순, 이현구, 함대훈 등의 번역시가 수록되었다. 연구 및 평론으로는 이은상의 「한산의 삼언시」, 김상용의 「오마 카이얌의 루바이얌 연구」, 김기림의 「현대시의 기술」 등이 실렸다. 그 밖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의 신춘현상모집 당선 시가를 별도의 지면을 할애해 실었다.

2호도 창작시, 번역시, 시 연구와 시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편집 후기가 붙어 있다. 2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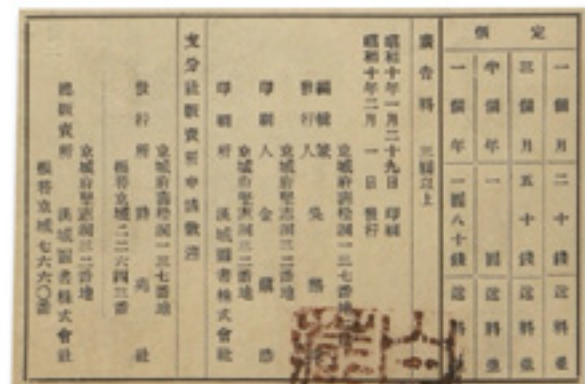
호의 편집 후기에는 고답시의 경향과 저널리스트의 본을 받은 선전시의 경향을 모두 부정하면서 양과 질을 동시에 갖추 우리 시가 운동에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2호에 수록된 창작시는 시조 2편을 포함해 20편이다. 이상화, 김광섭, 박용철, 정지용, 이일송, 김상용, 조백파, 김달진, 김기림, 임린, 오일도, 이은상 등이 시를 발표했고, 김오남이 시조 두 편을 발표했다. 이상화의 「역천」, 김광섭의 「고독」, 정지용의 「다른한울」과 「또 하나 다른태양」 등이 눈에 띈다. 시론으로 김기림의 「현대시의육체」가 실렸으며, 연구 논문으로 김상용의 「오마 카이얌의 루바이얌 연구」 2회분과 「밀턴실락원연구에 대하여」가 게재되었다. '세계각국시단소식'을 실은 점도 눈에 띈다.

3호는 프랑스의 문호이자 『레 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사후 50주기를 기념하여 빅토르 위고 특집호로 구성되었다. 빅토르 위고의 초상이 속표지에 실렸고, 빅토르 위고의 시인으로서의 생애, 시 정신을 소개하고 네 편의 시를 번역·소개한 이현구의 「빅토르·위고오십주기를기념하여」가 실렸다. 김상용, 김달진, 일석 이희승, 신석정, 임연, 장기제 등의 시가 실렸는데 시 편수가 좀 줄었다. 그 밖에 김기림의 시론 「현대시의난해성」과 김상용의 연구 논문 「오마 카이얌의 루바이얌 연구」 3회분, 「편집후기」로 구성되었다. 4호에 오면 창작시가 20편 정도로 늘어나긴 했지만 무명시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의 수준은 다소 낮아진다. 정인섭, 모운숙, 김광섭, 김여수, 박용철, 허준, 이은상, 오일도 등의 시가 발표되었으며 그 밖에 T.S. 엘리엇의 시론을 소개한 김환태의 「표현과 기술」 등이 실렸다. 5호는 시론, 창작시, 시조, 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지용의 「바다」, 김광섭의 「고뇌」 등을 비롯해 정인섭, 신석정, 박용철, 오일도 등의 창작시와 이광수, 김오남의 시조가 실렸다. 시론으로는 김

환태의 「시와 사상」이 수록되었다.

『시원』은 『시문학』과 함께 순수시를 대표하는 월간 시전문지로 시어의 옥토 개간에 애써 왔다고 잡지사에서 평가된다. 별도의 동인을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시문학』 폐간 이후 거기에 글을 싣던 시문학파와 해외문학파들이 주축이 되어 『시원』의 필진을 구성하면서

시문학과 이후 문단의 흐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원』은 『시문학』 중간 이후 순수시를 주도적으로 발표하는 매체로서 기능하였다. (해제: 이경수)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핵심어 시 전문지, 오일도, 시문학파, 해외문학파, 빅토르 위고 특집, 순수시 운동

참고문헌 권영민 편,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김근수, 『한국잡지사』, 청록출판사, 1979.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5.

한경희, 「시 전문지 『시원』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4, 한국현대문학회, 2003.12, 265~292쪽.

026 사해공론

四海公論

사해공론사

1935. 5. 1 ~ 1940. 2. 1

『사해공론』은 사해공론사에서 발행한 대중 종합잡지다. 1935년 5월 1일자로 창간되었다. 1939년 11월 1월 통권 55호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1940년 2월호까지 발행된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다. 사해공론사의 사주인 김해진은 『경성일보』 경제부 기사를 그만두고 매약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는 창간사에서 당시의 문화계와 언론계를 신랄하게 비판한 후 “가장 긴장한 분위기 속에서 창조적인 공헌을 하고자 건실한 진보 발달을 기하고자 『사해공론』을 발간한다.”는 뜻을 밝혔고, 2호의 ‘사고’에서 “문화를 촉진하고, 언론에 공정을 기하며,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廓清]” 것을 『사해공론』의 강령으로 내세웠다.

『사해공론』은 저작 겸 발행인 김해진, 인쇄소 수영사인쇄소, 발행소 사해공론사로 되어 있고 A5판으로 발행되었다. 편집은 초기에는 전원배와 김정혁이, 1937년 6월호부터는 최일이 맡았고, 시인·평론가이자 카프 중앙위원회 서기장 출신의 임화가 편집주관을 맡은 일도 있다. 창간호 195쪽으로 시작하여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한때 280쪽까지 발행하기도 했으나 1937년 이후 물자 부족 사태와 판매 부진으로 발행 면수가 100쪽 아래로 떨어졌다. 1938년 6월과 7월 혁신 준비호와 혁신호를 내면서 지면을 다시 늘렸고, 이후 120쪽에서 150쪽 내외를 오가다 1940년 전후로 지면이 대폭으로 줄어든 끝에 종간에 이르게 된다.

『사해공론』은 정치·경제·문학·예술 시평, 소설·희곡·시·수필·만화 등의 창작 외에 동요·동화·민요·전설·기타 잡문 등을 두루 싣고 있다. 언론계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나온 잡지인 만큼 시사 문제를 다룬 정론적 성격의 글이 많지만, 문학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 가운데 1936년 2월호에 ‘해외문학의 동향’이라는 특집 아래 김광섭의 ‘최근 영문학의 측면관’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유치진의 「최근 일본문단 편신」, 함대훈의 「싸베트 문학 1년의 업적과 금후의 동향」, 한후구의 「미국문학 개관」, 이현구의 「파란 많은 작금의 불문단」 등을 수록한 것이 눈에 띈다. 평론가 김문집이 쓴 「문단 인물지는 이광수, 최재서, 박태원, 김남천, 유진오, 이무영, 김상용, 박영희, 이태준, 이은상, 정지용, 주요한, 박팔양, 홍명희 등에 관한 인상을 기록해 놓아 그 무렵의 문단 사정을 떠올릴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창작이 전체 지면 가운데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특기해 둘 만하다. 다만, 양에 비해 질적인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태준, 이기영, 최서해, 김유정, 채만식 등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실린 경우도 있지만 기존 작품을 재수록한 것들이 많다. 장혁주, 엄홍섭, 이주홍, 최인준, 방인근 등이 장편을 연재했고, 심훈이 필벽의 소설 『대지』를 번역하여 연재했다. 「춘향전」과 「문장 채봉」(『채봉감별곡』의 개작) 등 고소설을 수록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런 사실들은 『사해공론』이 고급문학 작품 발표의 무대 역할을 하기보다 흥미 위주의 작품

을 통해 독자들을 유인하려는 의도로 문학을 활용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사해공론』은 문학을 중심에 둔 잡지는 아니지만, 양적인 면에서 문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30년대의 대중지가 문학을 어떤 방식으로 소비했는지 알려 주는 한편, 문학이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주요한 도구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해제: 정영훈)

핵심어 사해공론사, 김해진, 문학의 대중화, 외국문학 소개

참고문헌 유석환, 「경쟁하는 잡지들, 확산되는 문학(2)~1930년대 『중앙』과 『사해공론』, 『조광』의 사례」, 『한국문학연구』5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7.4.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27 조광

朝光

조선일보사 출판부/조광사

1935. 11. 1 ~ 1945. 6. 1

『조광』은 1935년 11월 1일에 조선일보사가 창간한 시사종합지로 1945년 6월까지 통권 113호가 발간되었다. 1946년 3월에 복간되어 1948년 초에 중단된 후 1948년 6월에 다시 복간되어 적어도 1949년 5월까지 발행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두 차례의 복간 기간 동안 통권 몇 호가 발행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창간호의 저작 겸 발행인은 방응모, 인쇄인은 김진호였다. 편집주임은 함대훈이었다.

창간사에서 강조한 대로 『조광』은 “상식 조선의 형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상식 조선의 ‘아침 햇빛’(朝光)이 되기를 자기(自期)”했다. 이 목표의 구체적인 실현방식을 『조광』의 편집주임이었던 함대훈은 창간 3주년 기념호(1938년 11월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내용과 외모에 있어서 정치, 경제, 시사, 문예, 철학, 민속, 과학, 종교 등 각 부문을 망라한 국판 사백혈(頁)의 대책이요, 표지도 조선 초유의 프로세스 육색쇄, 화보도 프로세스 인쇄에 아트를 사용하였으니만큼 그 호화찬란한 것이 조선 초유의 대호화판이었다.” 사주 방응모 역시 『조광』 1940년 10월호를 통해 “지도적 논설과 문화평론, 중량 있는 창작, 친절한 시사해설, 고상한 취미와 실생활에 필요한 뉴스”를 자신한 적이 있었다. 한 마디로 『조광』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종합지가 무엇인지를 문자 그대로 보여주려 했다.

『조선일보』의 자매지의 하나로서 창간된 『조광』의 위상이 보다 강화되었던 때는 『조선일보』가 폐간되었던 때부터였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일보』가 1940년 8월 10일부로 폐간되면서 조선일보사는 조광사로 체제를 전면 전환하게 되었고, 회사의 모든 역량은 『조광』에 집중되었다. 결국 『조광』은 1930년대 중반에 창간된 시사종합지들 중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지 발행을 이어나갔던 유일한 시사종합지가 되었다.

『조광』은 문예지는 아니었지만 문학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다. 더구나 장기간 동안 결호 없이 안정적으로 발행되어 작가들의 든든한

발표무대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그 결과 210편의 단편소설과 47편의 중·장편소설, 840여 편의 시가, 30편의 희곡, 170편의 문학평론 등이 『조광』에 수록되었다. 게다가 1939년 7월호에서는 “오백 원 현상 장편소설 모집”도 추진되었다. 잡지의 현상문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상금의 규모만큼은 획기적이었다. 『조광』의 현상 장편소설 모집은 문학에 대한 『조광』의 지원의지와 조선일보사의 자본력이 결합된 결과였다. 그 현상 장편소설의 심사위원은 유진오, 임화, 이현구, 함대훈, 김내성이었다. 당시에 응모한 53편의 작품 중 『애생금』이 1등작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조광』의 편집진은 『애생금』을 『조광』 지면에 발표할 수 없다는 피치 못할 사정을 내세우며 장편소설의 재모집을 결의했지만 『조선일보』의 강제 폐간과 맞물리면서 현상 장편소설 모집은 흐지부지되었다. 비록 현상 장편소설 모집은 용두사미로 끝나버렸지만, 문예지 못지않게 『조광』이 문예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조광』에 수록된 주요 문학작품으로는 백석의 「주막」, 김광섭의 「푸른 하늘의 전략」, 김억의 「광화문 네거리」 등의 시와,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김남천의 「소년행」, 이기영의 「귀농」 등의 소설, 유치진의 「자매」, 함세덕의 「낙화암」 등의 희곡이 있다. 이외에도 박태원의 「투도(偷盜)」·「아세아의 여명」, 정인택의 「구역지」, 김남천의 「개화풍경」, 조용만의 「매부」와 같은 전재소설(全載小說)도 찾아볼 수 있다.

『신동아』가 신문사의 잡지시대를 연 시사종합지라면, 『조광』은 신문사의 잡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제작될 수 있는지, 말하자면 그 극한을 추구했던 시사종합지였다. 확실히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광』은 당시에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조선일보사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당대 문화의 중심에 위치하여 문화를 주도했던 주요 매체 중 하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자본주의적 대중문화의 실상을 『조광』만큼 잘 구현해냈던 잡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제: 유석환)

핵심어 시사종합지, 조선일보사, 문학의 활무대, 조선학

참고문헌 김근수, 『한국잡지사연구』, 한국학연구소, 1992.

유석환, 「경쟁하는 잡지들, 확산되는 문학(2): 1930년대 『중앙』과 『사해공론』, 『조광』의 사례」,

『한국문학연구』5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7.

정혜영, 「1930년대 종합대중잡지와 “대중적 공유성”의 의미: 잡지 『조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3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현암사, 2004.

최수일, 「『조광』에 대한 서지적 고찰: 종간·복간·중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49, 민족문학사학회, 2012.

하동호, 「『조광』 서지분석: 작가 중심(문학부문)」, 『동양학』1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6.

嚴密한校正品質을共히他의追從을
배는안드시「博文書館版」을찾고싶시오
「시연則送하옵나」
練習・豫習・學習用好評의練習帳
7年度新版後期用이나왔습니다。
「무한장의國語와算術과朝鮮語를練習할수있
「模範的練習帳」입니다。小學校부터大野坪의
「國語注文」定一三・四・五・六學年後期用
價一各冊四十五錢・送料十二錢

1936 녹기

시와 소설

여성

시건설

시인부락

막

풍림

1937 백광

소년

단층

지오선

1938 청색지

맥

박문



은政府의月給生의가만어요 드로려과가들들
「.....」
「.....」 그는大膽한듯이마사리크를인하했다.
「시요 무엇은그렇게.....?」
「고 나를말한것에서요?」
조금먼저 프와크에게X X X가갈려이니 잘못
가.....있어.....하나의집에는아프고있소
「시요?」 하며 마사리크는「공」프와크를원투
하얏스나 그는빛자도안보 일이바뀌자 우두
그만가버리고말았다

하네 미안한바라는듯이, 입을닫아둔것다. 그의자그마
에그를돌아다니는「차」있었다 그는靜靜히눈을여 모...두어아
기렸고그리 마음은조곤한마사리의크를壓박에서이르렀다
「장차...」 말은수박...
「이것을대안한다」 다무엇을수만다 우두를의침을의침을하
가져온 숙지안한다.」
「무엇을대안할것인가」 정지려하는듯이. 마사리크는脫逃
를企圖했지만「차」를돌아다니는것이였다. 그의體面은後半日後完
全히恢復되었다. 미안한크를解脫한그의行動은 獨斷獨決英斷
이...安全하게되었다 그는정靜히解脫되었다. 모든것을
하였다.



1936~1938

綠旗

녹기연맹

1936. 1. 1 ~ 1944. 2. 1

『녹기』는 1936년 1월 창간, 1944년 2월까지 총 96호를 발행한 일본어 월간 잡지다. 1944년 3월 『흥아문화(興亞文化)』로 개제, 같은 해 12월까지 간행했다. 경성제대의 츠다 사카에(津田榮)가 창립한 사회교화단체 ‘녹기연맹’의 기관지다. 이 단체는 세 가지의 강령을 내걸었는데, 이를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를 위한 조선인의 덕목으로 적극 활용했다. “1. 우리는 사회 발전의 법칙에 따라 인류의 낙토(樂土) 건설에 기여한다. 2. 우리는 우리 일본의 국체 정신에 입각하여 건국 이상의 실현에 공헌한다. 3. 우리는 인간 생활의 본질에 기반을 두고 각자 인격 완성에 노력한다.”가 그것이다. 근대천황제가 목표했던 ‘왕도낙토’와 ‘팔굉일우’로의 발자국이 울울하다.

‘녹기(綠旗)’는 “언제나 생생한 생명이 넘치는 푸른색의 표징(表徵)”이다. 이것은 첫째, 혁명투쟁을 의미하는 ‘적기(赤旗)’와 죽음을 의미하는 ‘흑기(黑旗)’에 대항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둘째, ‘적기’와 ‘흑기’ 일색의 ‘혈뿔은 황토(黃土) 조선’에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펼쳐 ‘푸른빛’을 입히려는 의지의 표현물이다. ‘녹기연맹’이 식민지 조선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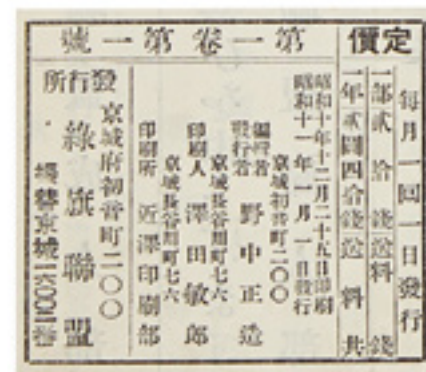


의 ‘지배와 동화’에 주력했음은 맹원들이 당시 ‘신체제운동’을 주도한 ‘국민총력조선연맹’에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창간호 판권란은 편집자 겸 발행자 野中正造, 인쇄인 澤田敏郎, 인쇄소 近澤 인쇄부, 발행소 녹기연맹(경성부 초음정[初音町] 200), 가격 20전으로 되어 있다. 『녹기』는 일본 국체(國體)와 신체제, 대동아전쟁의 총력전 등 천황제 파시즘의 승리를 향한 주제와 이념들로 매회 특집을 채웠다. 또한 ‘학생논단’ ‘부인 페이지’ 등을 통해 ‘전선(前線)’의 싸움을 뒷받침하는 ‘총후(銃後)’의 각오와 책무를 열렬히 설파했다. 표지는 ‘綠旗’를 가로와 세로로 번갈아 배치하는 한편 표지화로 자연과 정물, 일상생활 등을 묘사한 그림들을 올렸다. 매화와 기러기, 의자 위의 꽃 그릇, 화병의 꽃, 꽃바구니를 든 여성, 가로수길 등과 같은 그림들을 신기도 했다. 표면상 ‘녹(綠)’의 생활의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잡지 내부에는 제국주의 총력전을 향한 프로파간다 일색이었다. 하지만 대동아전쟁 발발(1941) 이후, 날로 궁핍해지는 물질적·문화적 환경이 반영된 탓인지 제호를 크게 새기고 간략한 밑그림을 그려 넣는 정도의 표지로 바뀌었다.

초기 필자는 일본인 일색이었다. ‘녹기연맹’ 자체가 재조일본인에 대한 국체관념 명징화와 심전개발(心田開發)을 목적했던 탓이다. 하지만 1936년 부임한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조선인의 논고나 문예작품도 빈번히 수록되기 시작한다.

논고로는 ‘녹기연맹’ 이사 현영섭(玄永燮)의 「朝鮮人の思想動向」(1937.1)이 처음인데, 그는 조선인으로서의 최다인 16차례의 글을 발표했다. 문예물로는 이광수의 장편 「心相觸れてそ(一)[마음이 만나서야말로]」(1940.3)이 최초다. 춘원은 4회(1940.7) 연재부터 ‘카야마 미쓰로(香山光郎)’를 필자명으로 쓰면서, 이후 시와 소설을 10차례 이상 발표했다. 金村龍濟(김용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는 「私は佳し(나는 아름답다)」(1941.10)를 필두로 15차례, 장혁주는 소설 「ある薦農家の述懐(어느 독농가의 술회)」(1943.1) 등 6차례, 정인택은 소설 「臆病な話(화병나는 이야기)」(1942.5) 등 5차례, 松村紘一(주요한)은 시 「南の國へ(남국에)」(1943.5) 등 3차례 발표했다. 金村八峰(김기진), 김종한, 김소운, 최재서, 최남선, 채만식, 조용만, 정비석, 모운숙, 유진오, 이석훈, 이무영, 유치진 등은 1~2회 가량 원고 청탁에 응했다.

『녹기』는 ‘생생한 생명’을 넓히기 위한 조선문화 개조를 주장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천황제 지배체제의 완성, 즉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 실현에 있었다. 조선문인들은 타의든 자의든 천황제파시즘에 호응함으로써 ‘조선적인 것’을 은폐·억압하는 일제 식민주의 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었다. 그 물적 형태가 죽음으로 얼룩진 청년학생 징병제, 근로보국대와 위안부를 포함한 징용제의 강제적 실시였다. (해제: 최현식)

핵심어 녹기의 상징성, 녹기연맹, 내선일체론, 츠다 사카에, 이광수, 현영섭, 김용제, 장혁주

참고문헌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広紀), 『녹기(綠旗) 총목차·인명색인』, 어문학사, 2011.

이승엽, 「내선일체운동과 녹기연맹」, 『역사비평』50, 2000.

정창석, 「『녹기(綠旗)』에 나타난 ‘내선일체(內鮮一體)’와 ‘황국신민화」, 『일본문화학보』66,

한국일본문화학회, 2015.

채호석, 「1940년대 일본어 소설 연구—『녹기』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37,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2010.

029 시와 소설

詩와 小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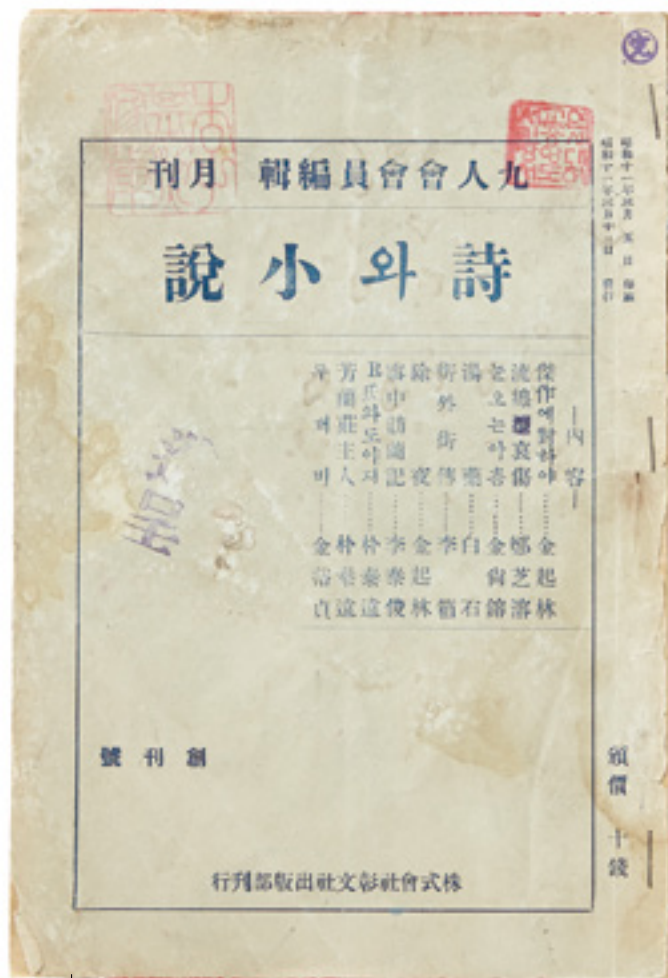
창문사출판부

1936. 3. 13

『시와 소설』은 1936년 3월 13일에 창간되어 제1호로 종간된 문학 동인지이다. 편집 겸 발행인은 구본웅, 인쇄인 고응민, 인쇄소 (주)창문사, 발행소 창문사 출판부(서울·서대문동 2가 139)로 되어 있다. 책의 판형은 국판 40면이고, 정가는 10전이다.

내용은 평론 1편, 수필 3편, 소설 2편, 시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론으로는 김기림의 「결작에 대하여」, 소설로는 박태원의 「방란장주인」과 김유정의 「두꺼비」, 수필로는 이태준의 「설 중방란기」, 김상용의 「시」, 박태원의 「R씨와 도야지」, 시로는 정지용의 「유선애상」, 김상용의 「눈오는 아침」, 「물고기 하나」, 백석의 「탕약」, 「이두국주기도」, 이상의 「가외가전」, 김기림의 「제야」 등이 게재되었다. 1936년 3월 『시와 소설』이 나올 때는 구인회 회원은 박팔양, 김상용, 정지용, 이태준, 김기림, 박태원, 이상, 김유정, 김환태 등 9인으로, 권두에 그들의 ‘편편상(片片想)’이 실려 있다. 구인회는 원래 1933년 8월 이종명과 김유영의 발기로 이효석·이무영·유치진·이태준·조용만·김기림·정지용 9인이 결성하였으나, 얼마 후 이종명·김유영·이효석이 탈퇴하고, 박태원·이상·박팔양이 가입하였고, 그 뒤 또 유치진·조용만 대신에 김유정·김환태가 보충되었다.

‘편편상’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값있는 삶을 살고 싶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박팔양), “결국은 ‘인텔리겐차’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한 부분이다. 전체에 대한 끊임없는 향수와 또한 그것과의 먼 거리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하루도 진정할 줄 모르는 괴로운 종족이다.”(김기림), “소설은 인간사전이라 느껴졌다.”(이태준), “벌거숭이 알몸으로 가시밭에 둥그러져 그 님 한번 보고지고”(김유정), “노력도 천품이다.”(박태원), “어느 시대에도 그 현대인은 절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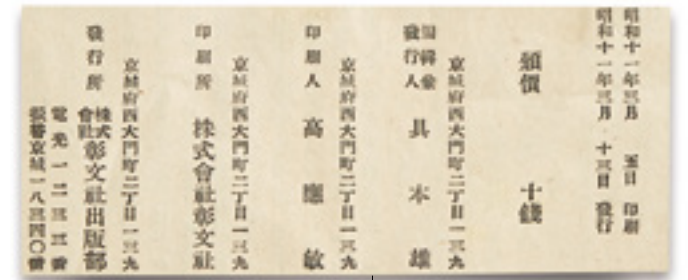
창간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다.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이상), “언어 미술이 존속하는 이상 그 민족은 열렬하리라.”(정지용), “불탄 잔디의 싹이 더욱 푸르다.”(김상용), “예술이 예술된 본령은 묘사된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종합하고 재건설하는 자아의 내부성에 있다.”(김환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시와 소설』의 필자들은 언어와 기교와 묘사를 중시하는 작가들이었다. 김기림은 권두언 「결작에 대하여」에서 언어에 대한 집착, 작가의 개성과 자율성, 내용보다는 형식 즉 제작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문학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박태원의 「방란장주인」과 「R씨와 도야지」, 김유정의 「두꺼비」, 이상의 「가외가전」에서는 언

어와 문장의 긴장성과 기교, 형식적인 실험을 행하는 근대적 가치에 대한 지향이 나타난다. 「방란장주인」에서는 적절한 심표와 연결어미를 사용하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여 한 문장으로 작품을 만들었고, 「가외가전」은 의도적으로 띄어쓰기와 단락을 무시하여 노아와 소년으로 분열되는 자의식의 혼돈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거두었다. 「R씨와 도야지」, 「두꺼비」의 경우 상대방의 행동과 말, 그리고 나의 행동과 말이 그대로 연결됨으로써 내면의식의 흐름을 세밀하게 보여주었다. 반면, 이태준의 「설중방란기」와 김기림의 「제야」, 정지용의 「유선애상」에서는 근대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극복되면서 정신의 추구나 전통 세계로의 회귀가 나타난다. 이태준의 상고주의와 후기 이후의 사상적 반성, 김기림의 전체시론의 모색, 정지용의 정적인 세계, 동양적 미를 강조하면서 현대 문명의 추구보다는 정신을 강조하면서 전통적 세계로의 회귀를 꾀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백석은 구인회 회원은 아니지만 2편의 시를 발표했다. ‘편집 후기에 의하면 회원을 맞는데 있어서 ‘너무동떨어지지 않는 한에’라는 조건부가 있는데, 농촌의 정서를 토속적인 언어로 생경하게 그려낸 백석의 작품 성향이 언어 찾기, 언어 살리기라는 구인회의 지향점과 맞았기에 수록된 게 아닌가 짐작된다.

『시와 소설』은 창간호로 끝나버린 단명의 잡지지만, 운동으로서의 문학과 집단적 언어로서의 문학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율과 개성이라든가 표현과 기교를 중시하는 문학을 지향하는 구인회 회원들의 방법론을 단적으로 보여준 잡지였다. (해제: 강진호)

핵심어 동인지, 구인회, 난해시, 실험소설, 반카프

참고문헌 이명희, 「『시와 소설』과 ‘구인회’의 의미」, 『상허학보』3, 상허학회, 2000.9.

장영우, 「정지용과 ‘구인회’: 『시와 소설』의 의의와 「유선애상」의 재해석」, 『한국문학연구』3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12.

030 여성

여성
조선일보사 출판부
1936. 4. 1 ~ 1940. 12. 1

『여성』은 조선일보사 출판부에서 발행한 월간지이다. 1930년대에 신문사가 발행하는 잡지가 여럿 출현하면서 월간종합지 『조광』의 자매지로 발간되었다. 1936년 4월에 창간되어 『조선일보』가 폐간되는 1940년 12월까지 통권 57호를 발간했다. 가장 많은 호수를 발행한 1930년대 대표적인 여성 잡지이다. 조선일보사의 풍부한 물적, 인적 조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당대 사회와 문화에 기여한 바 있지만, 여성이 발간의 핵심 주체가 아닌 때문인지 규범적이며 보수적인 여성성을 여성 독자에게 설득하는 차원에 머물렀다.

저작 겸 발행인은 조선일보사의 사장인 방응모이다. 창간호의 인쇄인은 고응민, 인쇄소는 창문사이지만, 이후 여러 번 인쇄인과 인쇄소가 바뀌었다. 발행소는 조선일보사 출판국이나 조광사였다. B5판으로 다른 여성 잡지에 비해 크기가 컸다. 창간호는 53면으로 10전에 판매되었으나, 1936년 12월호부터 약 100면으로 늘어나면서 20전에 팔렸다. 1940년 1월호에 한 해 30전으로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매 호는 나오자마자 절판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잡지의 표지는 서구적 외양의 젊은 조선여성을 대상으로 한 채색화로 장식했다. 국한문 혼용의 세로 쓰기 형식을 취했다. 함대훈, 이현구, 계용묵, 윤석중, 노자영, 노천명 등 주로 문인들이 잡지 제작에 참여했다.

잡지의 주된 독자층은 가정부인이나 혼기에 있는 중산층 여성이었다. 1920년대에 자유 연애론이나 신정조론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풍조로서 여성해방론을 이야기하던 『신여자』, 『신여성』등과 같은 여성잡지들과 구별된다. 창간호에 실린 이광수의 논설이 보여주듯이 『여성』은 가정을 신성한 삶의 장소로 추상화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사명이 모성성의 실현과 현명한 아내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릇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신여성을 구여성과 달리 성적으로 문란하고 물질주의적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로 재현함으로써 여성이 근대적 교육을 받는 데는 찬성하지만 가부장적 규범을 벗어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자녀 교육, 위생, 살림, 의복 등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중산층 생활에 적합한 기사들을 다수 실었다.

1939년 중반부터 중단될 때까지 화보와 기사로 중일 전쟁의 현장을 보도하는 한편으로, 신동아 건설과 가정의 내조를 주제로 한 글들을 지속적으로 실었다. 자녀를 우수한 인재로 길러내고, 근검과 절약으로 가족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여성의 미덕으로 제시되었다. 그러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나 『여성』은 오늘날 상업적인 여성지의 기원으로 볼 요소가 풍부하다. 여성을 소비 사회의 욕망의 대상이자 주체로 호명하기 때문이다.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미용기구나 화장법에 대한 기사를 통해 현대적인 여성미를 창출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준다는 점에서 『여성』이 구상하는 여성은 아내, 어머니, 전사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질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다.

『여성』은 영화, 연구, 음악, 스포츠, 문학 등에 관한 기사를 통해 여성들이 건전하고 세련된 취미/여가 활동을 하도록 권장했다. 이 중 독서/문예가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문화 교양으로 강조되면서 「여학생 문예」 코너가 신설되고 문예면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강경애, 이선희, 장덕조, 노천명 등의 작품들과 최초의 여성 비평가 임순득의 「불효기에 처한 조선 여류 작가」라는 문제적인 글이 실리고, 여성 작가들의 좌담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광수, 김남천, 유진오, 계용묵, 안희남, 정비석, 김광섭, 채만식 등 남성 문사들로 필진이 채워져 있어 『여성』이 여성문학의 독자적인 장이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해제: 김은하)

핵심어 여성지, 『조광』의 자매지, 외모 가꾸기, 여성인물론, 보수적 여성성

참고문헌 김양선, 「식민주의 담론과 여성 주체의 구성: 『여성』지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

한국여성문학회, 2000.

심진경, 「여성과 전쟁: 잡지 『여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4,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이희복, 「1930년대 여성 잡지광고에 비친 여성의 이미지: 잡지 〈여성〉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연구』 15(3),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031 시건설

詩建設

시건설사

1936. 11. 5 ~ 1940. 6

『시건설』은 1936년 11월 창간되어 1940년 6월 8호를 끝으로 폐간된 A5판 크기의 동인지다. 김창술(金昌述), 정강서(鄭江西), 김병호(金炳昊), 김해강(金海剛), 김남인(金嵐人)이 동인으로 참여했다. “침체한 우리 시문학의 새로운 출발을 짓기 위하여 본지를 시가부흥운동의 깃발로 널리 신진·무명작가의 역작(力作)”을 발표하는 것에 창간 목적을 두었다.

『시건설』은 한반도에서 가장 춥다는 평북 중강진(中江鎭)에서 편집·발행되었다. 창간호는 편집 겸 발행인 김익부(金益富, 평북 자성군 중강면 중평동 489), 인쇄인 김용규, 인쇄소 중강인쇄소, 발행소 시건설사, 정가 25전으로 되어 있다. 중강호에서 인쇄소 대동출판사(경성), 가격 30전으로의 변화가 확인된다. 발행인 김익부는 동인으로 이름을 올린 김남인의 본명이다. 그는 평북 자성군 장토면의 빈농가 출신으로, 중강보통학교에서 퇴학당한 후 평양, 경성, 베이징 등지를 떠돌며 고학했다. 1930년 귀향, 인쇄노동자로 근무하며 시를 쓰는 한편 『시건설』도 발행했다.

『시건설』은 표지와 편집에서 매우 파격적이며 이채로운 모습을 보였다. 첫째, 『시건설』은 세로짜기 판형을 취했던 잡지·서책들과 달리 가로짜기 판형을 취했다. 그럼으로써 한글 가로쓰기의 우수함과 편리함을 앞장서서 구현했다. 이는 진보적 의식 아래 인쇄노동자로 시를 썼으며, 그런 만큼 대중(독자)의 리터러시(literacy)에도 관심이 깊었을 시인 자신을 둘러싼 복합적 환경의 소산물일 것이다. 둘째, 『시건설』은 매호 표지를 달리함으로써 잡지 자체의 미감을 더욱 높여갔음은 물론 독자들의 독물(讀物)에 대한 호기심과 호응도도 더욱 넓혀갔다. 예컨대 제호는 굵직한 판화체로 우측에서 좌측으로의 가로쓰기 詩建設을 취하되 매호마다 글씨체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를 달리 했다. 하지만 2호의 제호만은 세로쓰기를 취했다. 또한 붉은색 혹은 붉은 바탕의 발행호수를 주로 취하면서, 이와 대비되는 녹색, 청색을 제호의 색상으로 사용하는 등 표지의 조형과 디자인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7호~8호은 정형화된 글씨체를 택하여 제호와 발행호수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써나갔으며, 표지에 “시건설사·발행”을 명기했다. 또한 턱을

핀 채 의자에 앉아 명상에 잠긴 신여성(7호), 나비와 벌이 봉봉대는 활짝 꽃핀 식물(8호)을 표지화로 그려 넣기도 했다.

『시건설』은 시론이나 비평보다는 창작시 게재에 집중했다. 우선 김남인은 발행자답게 매호 새로운 시편을 실었다. 임화의 「밤의 찬가」(5호), 이찬의 「기원」(1호)외 4편, 박세영의 「도라오라 내 아들」(2호), 장만영의 「호수로 가는 집」(4호)외 3편, 윤근강의 「한 덩이 마늘」(1집) 외 2편 등 그 면면이 화려한 기성시인들의 작품들이 눈에 띈다. 특정 이념과 사상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경향의 시인들을 선택하여 수록한 편집자의 노고가 엿보인다.

하지만 시적 다양성이라면 신진시인들의 면면도 만만찮다. 서정주의 「수대동시」(4호), 「자화상」(7호) 외 5편, 유치환의 「산」(1호), 「산·바다」(3호) 외 3편, 김동리의 「무제 외 2편」(2호), 이용악의 「밀림」(3호), 김광섭의 「황혼의 가두」(2호), 「기차」(3호) 외 4편, 박남수의 「귀로·해변」(3호) 외 3편, 신석정의 「수선화」(2호), 「참회」(3집) 외 4편, 모운숙의 「눈 오는 날」(7호), 조연현의 「과제」(7호) 외 1편, 안용만의 「꽃 수 놓든 요람」(7호), 을파소(김종한)의 「백두산타령」(2호) 외 1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백석, 오장환, 함형수, 노천명 정도를 제외한 신진시인들

이 거의 확인되는데, 1930년대 중·후반 조선시의 새로운 경향과 지형도가 손에 잡힐 듯하다.

『시건설』은 당대 시단을 엿보게 하는 시평과 설문, 시론을 1편씩 실었다. 먼저 시평이다. 김용제의 「시단시감(詩壇時感)」(3호)은 제2호 작품을 대상으로 ‘시에 있어서의 리얼리즘 문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설문(4호)이다. ‘시단동정’이라는 제목 아래 1. 조선문단의 긴급한 문제, 2. 최근의 좋은 시와 그것의 작가, 3. 구독 중인 시 잡지나 시서(詩書)를 묻는 질문을 던졌다. 박종화, 안함광, 윤근강, 신석정, 김상용, 김광섭, 임화, 김기림, 김창술 등의 답변이 실렸다. 한편 윤근강의 시론 「시인부정론」(6호)은 ‘전통에 대한 반향’과 ‘새로운 세계(우주)를 돌파하는 기쁨’이라는 관점 아래 시인의 역할과 윤리에 대해 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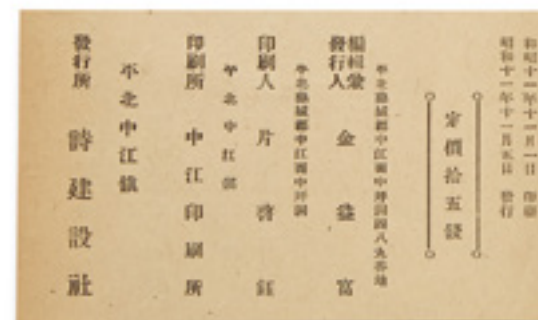
『시건설』은 그간 5호~8호 영인본이 유통되었다. 하지만 최근 고려대 중앙도서관에서 창간호부터 4호까지 PDF파일을 공개하여 그 전모에 대한 확인과 연구가 가능해졌다. 『시건설』의 시사적 가치를 따진다면, 첫째, 인쇄노동자이자 시인이었던 남인 김익부의 숨겨진 면모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 둘째, 군국주의 파시즘 강화에 따라 그 진로가 점차 불확실해지던 현대 조선시의 현황과 출구 모색에 대한 객관적 상황과 정보를 얼마간 엿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등으로 정리된다. (해제: 최현식)

핵심어 시동인지, 시건설, 김남인, 기성시인과 신진의 조화, 서정주·유치환·이용악의 출현

참고문헌 이승원, 『시의 아포리아를 넘어서』, 이룸, 2001.

이명찬, 『1930년대 한국시의 근대성』, 소명출판, 2000.

최현식, 『서정주 시의 근대와 반근대』, 소명출판, 2003.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032 시인부락

詩人部落

시인부락사

1936. 11. 14 ~ 1936. 12. 31

『시인부락』은 1936년 11월 창간되어 같은 해 12월 통권 2호로 폐간된 동인지다. 창간호 동인은 서정주, 김동리, 오장환, 함형수, 김달진, 여상현 등 12명이었고, 2집을 내며 4명이 더 가입했다. 서정주는 “우리 부락에서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의 과실과 꽃과 이를 즐기는 여러 가지의 식구들이 모여서 살기를 희망한다”라고 ‘후기’에 적었다. 시적 다양성을 중시하겠다는 다짐이었다. 동시에 선배세대 임화 류의 ‘편내용주의’와 정지용 류의 ‘기교파’를 넘어서겠다는 세대론적 투쟁의 선언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는 “시보단도 시론을 앞에 내세우고 싶지 않다”라든가, “동인 중에 한 두 사람이 시론을 써서 그것이 마치 『시인부락』 전체의 의견이나 되는 것처럼” 오해받기 싫다는 발언에서도 충분히 감지된다.

창간호의 편집 겸 발행인은 서정주(경성부 통의정 3번지, 현 보안여관) 인쇄인은 조수성, 인쇄소는 중앙인쇄소, 발행소는 시인부락사(경성부 관훈정 27의 3)이다. 발행소는 2집에서 운니정 24번지로 바뀐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써간 제호 ‘詩人部落’의 뜻은 매우 도발적이다. ‘부락’이란 말은 일본산인데, 천민들이 사는 마을을 뜻한다. 이를 감안하면, ‘시인부락’은 진선미에 고착된 시의 영토와 시인의 존재론을 ‘추’와 ‘악’의 세계로까지 확장·심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된다. 실제로 핵심 동인 서정주와 오장환은 서구 상징주의에 깊이 매혹되었으며, 추의 세계를 열어젖힌 보들레르의 『악의 꽃』을 탐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인들은 『시인부락』의 미학관을 충실히 담아냈을 법한 표지화를 정성껏 고른 듯하다. 1집 표지화는 폴 고갱의 『TE ATUA』(THE GODS)이다. 예수 탄생을 묘사한 그림인데, 고귀한 신분의 동방박사가 아닌, 하층 여인과 뱀, 공작 등이 경배를 올리고 있는지라 의외롭다.

창간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2집 표지화는 밀림 같은 자연 속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나비, 말, 물고기, 새들을 그렸다. 이를 종합하면, 두 그림은 진정한 시란 다양하고 낮으며 추악한 것들 속에서 탄생하는 숭고한 무엇임을 말하려는 상징물로 이해된다. 한편 내지화도 흥미롭다. 1집은 바닷가에 누워 먼 산을 바라보는 남성의 뒷모습 누드화를, 2집은 거센 파도 위를 날아가는 천사를 묘사한 그림을 골랐다

1호에는 시 34편이 실렸다. 어느 ‘청년화가’를 애도하며 지은, 그래서 그의 비유체인 “노오란 해바라기”가 더욱 강렬한 함형수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이 첫 시로 올랐다. ‘소년시조’ 3편(『형화(螢火)』, 『홍도(紅桃)』, 『그 애』)도 함께 실렸다. 다음으로 서정주의 『문둥이』, 『옥야(獄夜)』, 『대낮(正午)』이 보인다. 성애로 들끓는 육체적 욕망을 ‘문둥이’ 종신 금고(禁錮)의 ‘페닉스’ 등 불구적이며 추악한 존재 내부로 자아를 넣었다. 존재의 고독과 갈 길 없음을 아프게 토로한 김동리의 『호올로 무어라 중얼거리며 가느뇨』, 『간 이는 간 이는 다시 없네』, 『행로음(行路吟)』도 흥미롭다. 오장환은 낡은 봉건유습과 가난한 삶에 찌든 전근대적 조선을 음울하게 노래한 『성벽』, 『모촌(暮村)』, 『정문(旌門)』과 식민지 근대의 불모성을 묘화한 『온천지』, 『경(鯨)』, 『어족(魚族)』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날카롭고 유려한 댄디즘을 한껏 발산했다. 김달진은 『황혼』과 『밤』을 통해 조선 자연의 그윽함을 차분하게 환기시켰다.

2호에는 시 35편이 실렸다. 여상현은 『법원』과 『가마귀』(『법원과 가마귀』), 『얼어붙은 세월』과 『살아나는 기계들의 세찬 숨소리』(『호흡』)를 조합하여 낯선 일상과 비관적 청년상을 새로 그려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냈다. 함형수는 「소년행」 속 7
편의 시로 어둠과 무,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힌 소년의 무의
식을 우울한 목소리로 끄집어
냈다. 오장환은 매음굴과 술
집, 방황하는 선원들로 시끄

러운 항구와 도시를 감각적으로 조감한 「항해도」, 「매음부」, 「야가(夜街)」, 안개 자욱한 가난한
포구의 투전판을 날카롭게 응시하는 「어포(漁浦)」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황량한 풍경을 비판
적으로 그려냈다. 서정주는 인간의 원죄의식과 욕망의 양면성을 ‘꽃뱀’에 비긴 「화사」, 일상에서
유폐된 불구적 자아의 좌절과 소외를 입체화한 「달밤」과 「방」을 발표했다. 한편 ‘상해(象海,
본명 이용희)’의 시론 「현대시의 주지(主智)와 주정(主情)」도 실렸다. 김기림, 이상, 임화, 오장환
시를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던 조선시의 주지적 성격을 논한 글이다.

『시건설』은 1930년대 후반 신진시인들의 다양성 추구, 선배세대에 의한 ‘영향에 대한 불안’
을 넘어서려는 주제 선택과 형식 실험이 돋보인다. 그 한 줄기가 인간의 생명과 허무 탐구에
집중하는 서정주, 오장환, 유치환의 ‘생명파’로 덩굴졌다. 이것은 이념성과 형식미에 치중된 자
유시의 편폭을 넓히는 한편 한국적 ‘순라(純裸)의 미(서정주)를 새로 건축하는 미학적 사건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해제: 최현식)

핵심어 시동인지, 서정주, 오장환, 함형수, 상징주의, 생명파

참고문헌 김용직, 『한국현대시사 2』, 한국문연, 1995.

신범순, 「『시인부락』파의 ‘해바라기’와 동물 기호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37,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12.

이은정, 「『시인부락』의 모색과 도정」, 『상허학보』4, 상허학회, 1998.

최현식, 『서정주 시의 근대와 반근대』, 소명출판, 2003.

033 막

幕

동경학생예술좌

1936. 12. 1 ~ 1939. 6. 5

1930년대 동경 유학생들의 연극운동단체인 동경학생예술좌가 일본에서 발행한 연극전문
잡지다. 1936년 12월에 편집 겸 발행인 박동근, 발행소 동경학생예술좌의 이름으로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이후 1938년 3월에 2호가 발간되었고, 1939년 6월에 3호를 끝으로 발행이 중단
되었다.

『막』을 발행한 동경학생예술좌는 1934년 6월 일본 동경에서 연극운동에 뜻을 둔 10여명의
조선 유학생들이 구성한 단체다. 박동근, 주영섭, 마완영, 최규홍, 임방일, 이진순, 이해랑, 한
치니, 황순원, 김동원 등이 중심인물이다. 이들은 산하에 문예부, 연출부, 연기부, 서무부 등
의 조직을 두고 연극공연 활동과 더불어 이론 활동의 일환으로 연극전문잡지를 발간하였다.
『막』은 신극운동단체 극예술연구회의 기관지 『극예술』의 맥을 잇는 신극운동 잡지라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1936년 12월에 발간된 1호에는 「학생예술좌 부감도」, 주영섭의 「연출론 점묘」, 마완영의
「연기 노트의 대략」, 최규홍의 「언어의 극예술적 지위」, 한적선의 「사투리의 매력」, 박동근의
「생활무대」, 문예부의 「연극어 정리 초안」, 연출부의 「연출부의 일」, 연기부의 「연기론」 등이 실
려 있다. 전반적으로 잡지의 편집체계가 일목요연하지 않지만 내용이 학구적이고 연극 실제
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두언의 성격을 갖는 「학생예술좌 부감도」
는 2년간 동경학생예술좌의 조직과 활동사항에 대해 정리한 글이다. 주영섭, 마완영, 최규홍,
한적선의 글은 연출, 연기, 극언어 등 연극 실무와 기술에 관한 학구적 관심과 열의를 보여준
다. 문예부, 연출부, 연기부의 글도 마찬가지다. 이는 동경학생예술좌의 회원들이 대개 호세이



창간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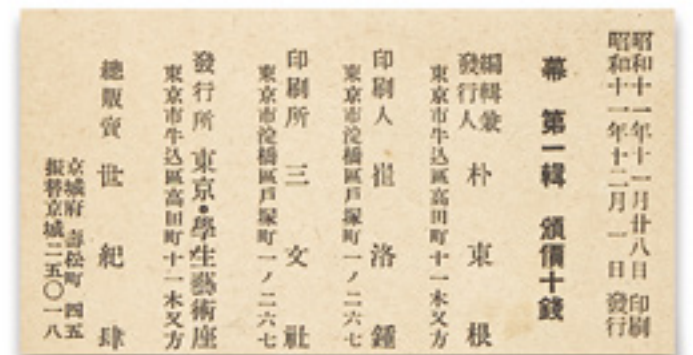
대(法政大)와 니혼대(日本大) 예술과 출신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연극에 대한 인문학적 관심 이외에 예술 실무와 기술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동경학생 예술좌 제1회 공연 유치진 작 <소>와 주영섭 작 <나루>의 공연 사진도 실려 있다.

2호(1938,3)는 동경학생예술좌 제2회 공연 유치진 작 <춘향전> 상연 이후에 발행되었다. 2호에는 주영섭의 「낭만주의 연출체계」, 김영화의 「예술가와 세계관」, 이해랑의 「신희극」, 주경은의 「딜레탕트의 의식」, 조우식의 「무대장치가의 태도」, 유종렬

의 「방자와 나」, 서진의 「음악잡상」 등이 실려 있다. 임호권의 「좌원인물묘사실」에는 동경학생 예술좌 구성원에 대한 인물평이 실려 있어서 흥미롭다. 문예부의 「1937년도 신극단체 상연목록」은 당시 일본의 신극 상연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연극사적 자료 가치가 크다.

3호(1939,6)는 제3회 공연 유진 오닐 작 <지평선>, 주영섭 작 <별관> 상연 이후에 발간되었다. 권두언 「우리들의 극장」을 비롯해 박익원의 「무대조명이란」, 주영섭의 「시, 연극, 영화」, 홍성인의 「화가와 무대미술」, 박동근의 「연출론」, 박용구의 「서론적인 음악극론」, 신영의 「음향효과 소론」, 이해랑의 「연극의 본질」, 장계원의 「여배우의 지위에 관한 수상」, 이철혁의 「조선연극개괄」, 유종렬의 「무대연기자에 대한 사론」, 임호권의 「속·좌원인물묘사실」 등이 게재되었다. 연기, 무대미술, 조명, 음악, 음향효과 등 연극 실기에 대한 글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당시 『연극운동』, 『극예술』 등 다른 연극전문잡지들이 이론 지향적 연극론이 다소 비중이 컸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음에 비해 『막』은 연극 실무와 기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막』을 살펴보면 호세이대학 출신의 주영섭, 박동근, 마완영 등이 연극운동의 이론, 이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그밖에 다른 회원들이 연극의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연극전문잡지로서의 균형을 잡아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후 국내로 돌아와 극예술연구회와 대중극, 영화계 등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연극, 영화계를 이끄는 역할을 했다. 『막』은 그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다. (해제: 이상우)

핵심어 동경학생예술좌, 연극전문잡지, 이론치중, 연극실기론, 재일조선인연극, 학생극

참고문헌 김동원, 『예에 살다』, 발행처 미상(김동원희수기념집), 1992.

박영정, 『한국근대연극과 재일본 조선인연극운동』, 연극과 인간, 2007.

034 풍림

風林
풍림사
1936. 12. 1 ~ 1937. 5. 1

『풍림』은 1936년 12월 창간되어 1937년 5월까지 통권 6호가 발간된 순문에 중심의 월간 잡지이다. 편집 겸 발행인은 홍순열(洪淳烈)이고, 발행소는 경성 경운정 96번지에 있는 풍림사(風林社)이다. 인쇄인은 고응민(高應敏)이며 인쇄소는 주식회사 창문사(彰文社)이다. 표지, 비화(扉畵) 및 컷은 향파(向破) 이주홍(李周洪)이 담당하였다. 『신소년』 등에 경향적 아동문학 작품을 많이 발표하고 있던 이주홍이 『풍림』의 장정을 거의 도맡다시피 하였다. 그는 장정은 물론 수필(『실춘보(失春譜)』), 소설(『하이네의 안해』, 『제수(弟嫂)』)까지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풍림』지의 편집 및 발간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순문에 중심의 잡지를 표방하였으나 카프 계열의 이주홍, 홍구 등이 실무를 맡아보면서, 윤기정, 엄홍섭, 이갑기, 이기영, 임화, 한효, 이북명, 한설야, 박승극, 이병각, 박세영, 조벽암 등 경향 작가들의 참여가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풍림』은 ‘카프 해체’(1935) 이후 뚜렷한 주조(主潮) 없이 침체와 혼란을 거듭하던 1930년대 후반 문단의 출발기에 발간된 문예지이다. 편집인이 쓴 창간사에서는 “이것은 동인지도 아니요, 어떤 종파적(宗派的) 집필을 특색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누구나 문학인이면 다 쓸 수 있는 그야말로 여러분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저널리즘이 갖기 쉬운 불쾌한 편집방침”이나 “저열한 가십(gossip)이나 잡문독물(雜文讀物) 등속”이 실리는 것을 거부한다. 이어서 그는 『풍림』이 “순문에 중심의 깨끗한 정기물”, “건강한 문학의 집터”(『풍림』 창간호, 1936. 12: 6~7)가 될 것임을 표방하고 있다. 실제 『풍림』은 좌·우 구분 없이 많은 문학자들이 참여하여 시, 콩트, 수필, 평론,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영, 채만식, 유진오, 이효석, 임

화, 한효, 홍효민, 신석정, 안화남, 이찬, 한설야, 이북명, 박세영, 김동리, 이육사, 이병각, 오장환, 김광균, 유치환, 정청산 등이 시기에 활동한 대부분의 작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한효가 「신진작가론」(2집)에서 거론한 최인준, 김유정, 이동구나, 「신인의 직언」(3집)란을 통해 설문이 소개된 김소엽, 박향민, 김동리, 박영준, 안화남, 김유정, 현경준, 방인희 등의 일부가 주요 필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풍림』이 신진작가들에게도 널리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풍림』에 수록된 글 중, 평론으로는 임화의 「진보적 시가의 작금(昨今) - 프로시의 걸어온 길」(2집), 「문예이론으로서의 신희만이즘에 대하여」(5집), 한설야의 「문단주류론」(3집), 백철의 「문단주류론」(3집) 등이, 시로는 이육사의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1집), 「해조음」(3집), 박세영의 「시대병 환자」(1집), 오장환의 「종가(宗家)」(2집), 임화의 「지상의 시」(3집) 등이, 소설로는 장혁주의 「그는 왜 죽었나」, 김동리의 「어머니」, 박영준의 「쥐구녕」, 안동수의 「유산」, 현경준의 「조고만 삽화」 등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풍림』지가 거둔 성과 중의 하나는 4, 5, 6집에 연달아 기획된 작가론 특집, 시인론 특집, 평가(評家) 특집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작가론 특집은 「이광수론」(이동규), 「한설야론」(박영준), 「이무영론」(이봉구), 「유진오론」(정비석), 「이효석론」(정청산), 「엄홍섭론」(최인준), 「유치진론」(이광래), 「이태준론」(김동리), 「채만식론」(김우철), 「이북명론」(안동수), 「주요섭론」(현동엽), 「박영희론」(홍구), 「장혁주론」(김소엽), 「염상섭론」(성경린) 등으로 꾸며졌고, 시인론 특집은 「박세영론」(박이지), 「정지용론」(신석정), 「이은상론」(민병균), 「백석론」(오장환), 「김기림론」(김광균), 「임화론」(윤근강), 「김해강론」(이병각) 등으로 꾸며졌고, 평가론(評家論) 특집은 「임



창간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화론」(이동규), 「최재서론」(김우철), 「이원조론」(계용묵), 「백철론」(정비석) 등으로 꾸며졌다. 이기영은 별도로 「이기영 검토」(김남천, 박승국, 6집)란 특집으로 다루어졌다. 1930년대 중반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시인, 소설가, 비평가들에 대한 평(評)을 문학 동료들의 눈을 통해 시도하였다. 이들의 비평은 인상비평에 가깝긴 하지만 작가들의 취향이나 문학적 궤적, 그리고 작품의 제 특징을 비교적 정확히 추출하고 있다. 『풍립』지의 이러한 특집은 다른 잡지에서는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색다른 기획으로, 당대의 작가, 작품들에 대한 정전화 작업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작가들의 인물 사진까지 곁들인 이러한 작업은 근대문학사 서술이나 작가론 기술시 당대의 자료로 그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풍립』은 카프가 해체된 1930년대 후반 문단에서 특정 이념이나 문학적 성향에 구애됨이 없이 신진작가들에게까지 문호가 개방된 월간 순문예지였다. (해제: 박용찬)

핵심어 이주홍, 종파초월, 순문예지 지향, 친카프경향, 특집중심

참고문헌 문덕수 편, 『세계문예대사전』, 성문각, 1975.

이주홍, 『격랑을 타고』, 삼성출판사, 1976.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35 백광

白光

백광사

1937. 1. 1 ~ 1937. 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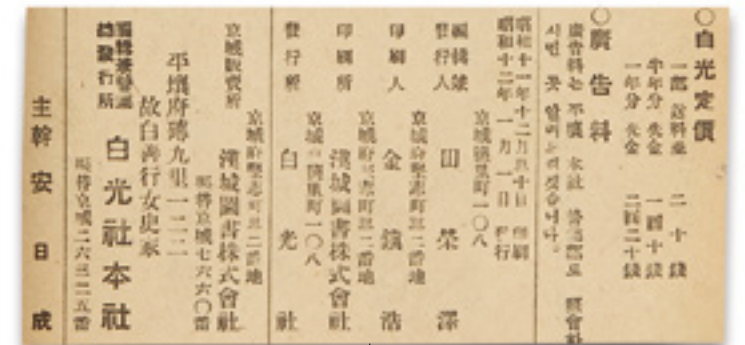
『백광』은 백광사 발행으로 1937년 1월부터 그해 6월까지 통권 6호를 발간한 종합잡지이다. 『백광』은 평양 지역의 저명한 독지가였던 백선행(白善行)의 뜻을 기려 수립한 '백선행기념관 재단'의 후원으로 발간되었다. 평양 출신의 작가로 잡지 편집 경험이 많았던 전영택이 편집 겸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제2호부터는 안승겸으로 바뀌었다. 편집 실무는 주간 역할을 담당했던 백선행의 양아들 안일성과 역시 평양 출신의 작가였던 한세광이 담당하였다. 백선행은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나 남다른 사업 능력으로 재산을 축적한 여장부로 유명하다. 만년에는 재산을 모두 평양 지역의 학교와 사회 시설에 희사하여 평양의 교육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대모 역할을 하였다. 공회당 및 도서관 시설이 필요하다는 조만식의 요청에 따라 건축 공사비를 부담하여 대동강변에 '평양 공회당(백선행 기념관)'을 설립하였고, 이밖에 광성(光成) 보통학교, 숭현(崇賢)여학교, 숭인(崇仁)상업학교 등 평양의 기독교계열 사립학교에 토지와 기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 강점기에 발간된 잡지 대부분이 경성에 근거를 두었던 데 비하여, 『백광』은 평양 지역의 문화 자본과 인력을 토대로 발간된 잡지라는 특수성이 있다. 창간호의 '편집후기'에서 주간 안일성은 “平壤에서 全鮮을 상대로 하는 책이 발간되기는 이「白光」이 효시다. 더구나 잡지 한 권 신문 한 장 없는 平壤에서 이「白光」의 出現이아말로 커다란 驚異”라고 소감을 밝혔다. 종합지 『대평양』(1934)이나 순문예지 『창조』(1919), 『단충』(1937)처럼 평양 지역을 근거로 창간되어 읽힌 잡지들이 있었으나, 『백광』은 평양 지역에서 조선 전역을 상대로 하여 최초로 발행된 종합지였다. 편집주간의 언급에서는 '전조선에 상대하는 지역 잡지'를 발간한다는 자의식과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함께 자긍심도 묻어난다. 창간호에는 「고(故) 백선행 여사 약력」, 「조만식씨 방문기」, 「평양문인 좌담회」, 조만식, 김동원, 이광수, 주요한의 축사 등 지역색을 담은 기사들이 다수 실렸으나, 이후 지역적 소재를 탈피하여 다양한 기획과 기사를 신기 위해 노력하였다. 잡지 간행 초반에는 문화계 동향 및 문예면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제5호(1937.5)부터는 면모를 일신하여 언론 및 학술계의 동향, 국제 뉴스, 사회 논평, 문단 및 예술계 소식 등을 고루 다루면서, 세간의 화젯거리나 세태평 등 흥밋거리도 늘렸다. 소설 및 시가 등을 수록한 문예란도 운영하였고, 비단 평양 지역의 작가뿐만 아니라 박태원, 양주동, 채만식, 한설야, 이기영 등 지역 및 정치적 이념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현역 정치인에 대한 인물평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인 「여운형론」(창간호)과 「장덕수론」(제3·4 합본호), 박영희의 문학평론인 「문학연구의 소재에 관한 재음미」(제2호), 고인이 된 소설가 김유정을 추모한 글들을 묶어 기획한 「곡(哭)유정」(제5호) 등은 그 자체로 학술적인 가치를 지닌다.

‘편집후기’를 보면, 창간호 및 제2호는 품절되었고 출판을 거듭할수록 출간 부수가 증가하고 주문도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세광은 “『백광』의 압길은 실노 坦坦하다”고 자랑하기도 했으나, 제6호에 이르러 종간되었다. 종간의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경성 중심의 근대 한국문화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지역 잡지였다는 점에서 『백광』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해제: 정주아)

핵심어 평양, 백선행기념관재단, 전영택, 한세광, 경성 중심 문화에의 도전

참고문헌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36 소년

少年

조선일보사출판부, 조광사

1937. 4. 1 ~ 1940. 12. 1

『소년』은 조선일보사 출판부에서 발행한 월간 아동잡지로서, 1937년 4월부터 1940년 12월 까지 총 45호가 발행되었다. 중도에 조선일보사 출판부가 조광사로 개편됨에 따라, 1940년 5월부터는 발행처가 조광사로 바뀌게 된다. 매호 80면 내외의 분량으로 편찬되었으며, 가격은 10전이였다. 유년독자를 대상으로 한 작품도 수록되었으나, 주요 독자층은 10대의 초중등 학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문학가 윤석중이 초대 편집주간을 맡았으며, 1939년 7월호부터는 이석훈이, 1940년 11월호부터 중간호까지는 김영수가 편집을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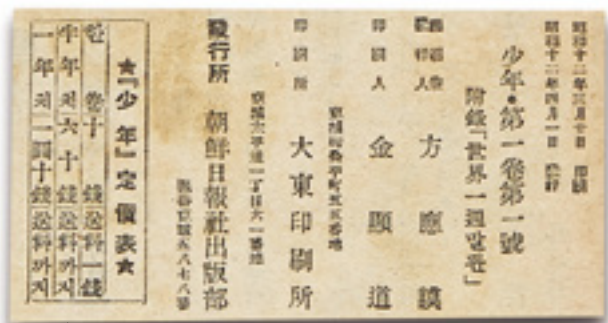
『소년』은 동요, 동화, 소년소설, 아동극 등 아동문학 장르는 물론이고, 뉴스, 상식, 유머, 만화, 퀴즈 등 다양한 종류의 읽을거리를 독자의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안배하였다. 장편동화나 탐정소설을 연재하여 독자의 흥미를 끄는 한편, '소년담화실', '독자사진첩', '독자현상공모'를 통해 독자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독자들의 투고작을 신는 '소년작품란'은 많은 관심을 모았다.

윤석중을 비롯하여, 강소천, 박영종(박목월), 이원수, 윤복진, 윤동주, 최순애, 김영일 등의 동요가 자주 실렸으며, 이들 동요에 흥난파, 윤극영, 이일래, 정순철 등이 곡조를 얹은 악보가 함께 소개되기도 했다. 윤석중은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난 형식에 밝고 긍정적인 생활감정을 담는 새로운 창작 방법을 이끌었으며, 박영종은 「토끼길」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강소천의 대표작 「닭도 이 잡지에서 처음 발표된 것이다. 이원수는 「보-야, 넌네요」, 「나무간 언니」와 같이 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포착했다. 동화와 (소년)소설 장르명에는 작품의 유형이나 독자 정보를 담은 용어가 덧붙는 경우가 많았다. 유년동화, 그림동화, 동물동화, 조선

창간호 표지,
고려대학교 소장



동화, 전래동화, 모험소설, 탐정소설, 역사소설, 학교소설, 가정소설, 소녀소설 등이 그 예다. 고전서사가 바탕이 된 작품은 소년야담, 소년사회와 같은 명칭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소년』을 통해 발표된 대표 작품으로 주요섭의 장편동화 『웅철이의 모험』을 꼽을 수 있다. 『앨리스의 모험』을 모티브로 한 이 동화는 웅철이라는 소년이 땅속나라, 달나라, 해나라, 꿈나라 등을 차례로 여행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로,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본격적인 판타지 장르의 출발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김내성의 『백가면』과 박태원의 『소년탐정단』은 독자들의 인기를 얻었던 탐정소설로 1930년대 소년탐정물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현덕은 동화 『삼형제 토끼』, 소년소설 『하늘은 맑건만』과 같이 문학성을 높게 평가받은 작품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이외에



창간호 판권지,
고려대학교 소장

채만식, 김영수, 김복진, 박계주, 이현구, 이석훈, 조풍연, 송창일, 노양근, 이구조, 박영만 등도 필자로 나섰다. 아동극은 신고송의 「요술모자」, 함세덕의 「오월의 아침」 등이 발표되었다. 『소년』은 표지와 화보가 화려하고, 삽화가 풍성했다. 표지는 도회적이고 활동적인 분위기의 남학생을 그린 것이 가장 많았는데, 주로 정현웅, 김규택 등이 그렸다. 만화도 비중 있게 수록되었는데, 임흥은, 김용환, 현재덕, 박인수, 오택기, 정청익, 김상욱, 전용호 등이 주로 활동했다.

『소년』은 1930년대 후반을 대표하는 아동잡지로, 아동문학가뿐만 아니라 기성문인까지 폭넓게 참여하였으며, 아동문학사에서 정전으로 꼽을 만한 작품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윤석중의 뛰어난 편집 역량이 발휘되어 지면이 다채롭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으며, 독자 대중의 요구와 취향에 적극적으로 맞추어가는 기획 방향을 보여주었다. 독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장르의 분화와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 매체이다. (해제: 조은숙)

핵심어 아동잡지, 조선일보사출판부, 윤석중, 아동문학장르의 다양성, 기성문인 참여

참고문헌 오현숙,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소년탐정소설과 아동문학으로서의 위상」, 『현대소설연구』

53, 현대소설학회, 2013.

원종찬, 「1930년대 동요 동시의 분화와 갈림길」, 『창비어린이』 14, 창비어린이, 2016.6.

조은숙, 「일제강점기 아동문학 서사 장르의 용어와 개념 고찰- 아동 잡지에 나타난 '동화'와

'소설'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4,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9.6.

037 단층

斷層

단층사, 박문서관

1937. 4. 22 ~ 1940. 6. 25

『단층』은 1937년 4월에 창간된 소설 중심의 문예잡지이다. 1937년 4월 22일 평양에서 창간호를 간행했고, 이후 1937년 9월 7일에 제2호, 1938년 3월 3일에 제3호, 1940년 6월 25일에 제4호를 낸 뒤 중단되었다. 제1호~제3호의 발행처는 경성 단층사이고, 제4호는 경성 박문서관이다. 창간호의 편집 겸 발행인은 박용덕, 인쇄인은 김병룡, 인쇄소는 기신사(평양 신양리 150), 발행소는 단층사(서울 인의동 17)이고, 판형은 변형 A5판 122면, 정가 15전이다. 허가는 서울에서 얻고 편집과 인쇄는 평양에서 했다.

『단층』동인은 김이석, 김화청, 이휘창, 김여창, 유항림, 양운한, 김환민, 최정익, 구연묵, 김조규, 김성집, 최규원, 한주현 등이다. 여기서 『단층』을 주도한 인물은 평양 출신의 김이석이다. 김이석은 유항림, 최정익, 김화청, 김매창 등 평양 광성중학 출신의 동문들을 중심으로 동인을 구성해서 지역적 차별성을 뚜렷이 드러내었다. 김이석, 김화청, 유항림, 구연묵 등이 소설을 발표했고, 양운한, 김조규 등이 시를 발표했다. 『단층』에 발표된 작품은 시 29편, 소설 17편, 평론 4편으로, 『단층』은 소설의 비중이 높은 문예 동인지라고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동인지들이 30~60면 가량의 부피인 데 비해서 『단층』은 125~145면으로 비교적 두툼하게 제작되었다.

창간호에는 김이석의 「감정세포의 전복」, 김화청의 「별」, 이휘창의 「기사창」, 김여창의 「육체」, 유항림의 「마권」 등의 소설과 양운한의 「계절 판도」, 김환민의 「청춘」, 「시골길을 자동차로」 등의 시, 그리고 최정익의 「D. H. 로렌스의 성과 자의식」 등의 평론이 실려 있다.

『단층』은 전권을 통틀어 편집 후기를 비롯하여 동인의 문학적 경향과 성격을 짐작할 수 있



2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는 어떠한 종류의 안내문도 수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단층'(斷層, La Dislocation)이라는 제호부터 기존 문학과 스스로를 차별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제4호 표지의 단층 그림, 곧 외부의 힘을 받은 지각이 두 개의 조각으로 끊어져 어긋난 지질구조처럼, '단층'은 기존의 문학과 구별되는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드러내었다. 그런 의도대로 『단층』의 작품들은 문학적 성취와 수준에서 새로운 경향과 특성을 보여준다. 『단층』의 작품 경향은 심리주의적·실험적 색채가 강한 모더니즘이라고 평가된다. 최재서가 “사회적 양심과 이론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신념에까지 윤리화시킬 수 없는 인테리의 회의와 고민을 심리분석적으로 그리려는 것”이라고 『단층』 동인들의 작품 경향을 지적한 것이 거의 정설이 되었다. 유헌림의 「마권」과 「구구(區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사회적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표출할 수 없었던 당대 인텔리의 고뇌와 자의식을 모더니즘의 방식으로 드러내었다. 「마권」의 종서는 과거와 함

께 이념을 청산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을 모색하는 것마저도 “한 켄너레이슨 전의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금의 공허한 현실을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버팀대조차 구할 수 없음에 절망하고, 충동적인 행동에 몸을 내맡기며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김이석의 「감정세포의 전복」 역시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모두 사회적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내면의식에만 집착하였던 1930~40년대 지식인들의 무력화된 삶의 양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단층』은 다소간의 이질적 경향이나 습작기적 미숙성에도 불구하고 유파 개념으로서의 성격, 즉 '단층파'로 논의되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고른 경향과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당시 동인지의 주조가 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단층』은 소설 중심의 잡지라는 데 그 독특함이 있다. 『단층』 동인이 이루어낸 형식적 실험들은 1920년대 중반의 전위시 운동에서 1930년대 초중반의 이상 및 『삼사문학』으로 이어져온 일련의 문학사적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해제: 강진호)



2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핵심어 단층파, 문학동인지, 소설 중심, 자의식의 문학, 실험정신

참고문헌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김명석, 「『단층』 4호에 대하여」, 『현대문학의 연구』16, 한국문학연구학회, 2001.

김정훈, 「『단층』 시 연구」, 『국제어문』42, 국제어문학회, 2008.

신수정, 「『단층』파 소설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2.8.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38 자오선

子午線

자오선사

1937. 11. 10

1937년 11월 10일 창간호가 종간호가 된 시 동인지로, 분량은 국판 57쪽이다. 창간사와 후기가 없어 간행 의도나 목적을 알기 어렵다. 판권란은 편집 겸 발행인 민태규(경성부 돈암정 399-8), 인쇄인 조수성, 인쇄소 중앙인쇄소, 발행소 자오선사(경성부 돈암정 399-8), 총판매원 동광당서점으로 되어 있다. 발행소 주소는 민태규의 자택으로 추정된다. 그는 윤근강, 이병각 등과 함께 결성한 '낭만동인회'의 동인지 『낭만』(1936.11)을 발행했던 경험을 살려 『자오선』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자오선』의 편집은 두 가지 사항에서 흥미롭다. 첫째, 붉은 색 바탕의 표지화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써간 제호 '子午線'을 중심으로 상단에는 장년의 민둥머리 서양 남성과 긴 머리의 젊은 여성 얼굴을, 하단에는 뿔 달린 황소와 긴 머리와 수염의 노년 남성의 얼굴을 배치했다. 남성 얼굴 아래에는 'poëie'를, 황소 머리 왼쪽에는 'poëme'을 적어 넣었고, 여성의 목 부근에는 '나비'를 그려 넣었다. 『자오선』이 진정한 시를 위해 바쳐진 매체임을 또렷이 드러낸 장면이다. 둘째, 『자오선』에는 당시 출간된 서적들의 광고가 몇 편 실린다. 총판매원 '동광당서점'에서 발행한 서적들의 광고로 채워지고 있어 특징적이다(〈표 4〉의 이찬 작(作) 『대망(待望)』(풍림사)만은 예외임). 예컨대〈표 2〉에는 임화의 『현해탄』과 이태준의 『황진이』, 8쪽에는 오장환의 『성벽』, 51쪽에는 “조선 초유의 「에스페란토」 잡지” 『KOREA ESPRANTISTO』, 〈표 3〉에는 이기영의 『서화(鼠火)』 광고가 실렸다.

『자오선』에는 시 32편이 실렸다. 우선 “수도의 폐허”를 배회하는 “고독한 기술사(奇術師) ‘카인’”의 소외된 일상과 내면을 고백한 이상(李箱)의 유고작 「파첩(破帖)」이 주목된다. 여기 발맞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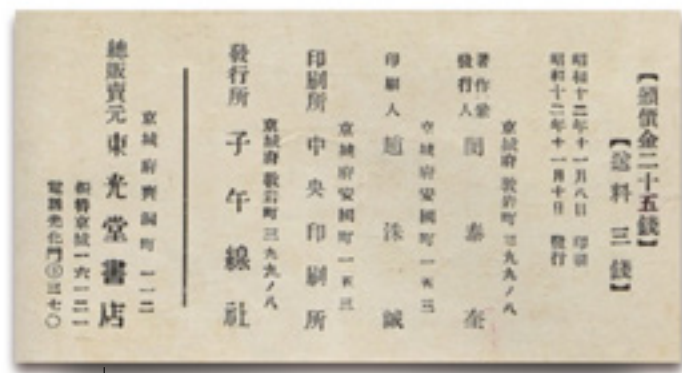
춰 이성범은 1937년 4월 도쿄에서 요절한 이상(李箱)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상애도(李箱哀悼)」를 정중하게 올렸다.

오장환은 권두시격인 「황무지」, 환락과 관능으로 퇴폐한 항구의 풍경을 묘사한 「선부(船夫)

의 노래 2」를 발표했다. 여기 실린 「황무지」는

2014년 미발표 장시(6장 550행)로 발굴된 「황무지」의 3연에 해당된다. 시인은 퇴폐적 문명현상과 제국주의의 횡포, 식민지의 궁핍한 삶 따위를 “숫한 절망과 무기력”의 데카당스에 비추어 예리하게 형상화했다. 그와 동인지 『시인부락』을 함께 한 서정주의 「입마춤」, 「맥하(麥夏)」, 「얕은뱅이의 노래」도 소중한 성과다. 뜨거운 성애와 불구적 육체, 그에 결부된 뜨거운 생명의 식과 부끄러운 죄의식에 대한 복합적 이해와 표현을 형용사를 배제한 동사 중심의 ‘직정언어(直情言語)’에 담아냈다.

일제에 맞서 투쟁하는 떠돌이 삶을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조각”에 비겨 그 고통과 위험을 단번에 드러낸 이육사의 「노정기(路程記)」도 인상적이다. ‘경애’라는 여성의 영전에 바친 김광균의 「대화」, 몸의 율동을 통해 생명을 발산하는 ‘나비(호접(胡蝶))와 ‘무녀(무녀의 춤)」를 노래한 신석초, 소년의 내면과 육체의 성장 서사를 노래한 함형수의 「소년행」 속의 6편도 흥미롭다. 자아의 정열(고백)과 ‘별바다’에 대한 추억(별바다의 기억)을 노래한 윤근강, 저항시인으로 기억되지만 서정적 감각의 표현에도 능했던 이병각의 「귀로(歸路)」와 정호승의 「노래를 잊은 마음」도 함께 실렸다. 『자오선』 말미에는 “시인의 주요 목적은 경험의 정확한 세목을 전달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색조와 음률을 전달하는 것”이라 주장한 C. D. 루이스의 「시에 대한 희망」이 이성범 번역으로 실렸다.

『자오선』은 『시인부락』, 『시건설』, 『낭만』 등과 유사하게 1930년대 후반 신진시인의 시편 전달에 집중했다. 이런 조건은 젊은 시인들의 발표지면 증대, 식민지 근대성에 맞선 새로운 감각과 주제의 발현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판단된다. (해제: 최현식)

핵심어 시동인지, 민태규, 『낭만』의 연장, 이상, 이육사, 서정주, 오장환

참고문헌 김용직, 『한국현대시사 2』, 한국문연, 1995.

김학동, 「한국 근대시지의 전개—8.15 해방 이전까지」, 『서강인문논총』1,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92.

039 청색지

靑色紙

청색지사

1938. 6. 3 ~ 1940. 2. 15

1938년 6월 창간되어 1940년 2월 통권 8호로 종간되었다. 문학·연극·영화·음악·미술을 아우른 예술종합잡지를 지향했다. 2호 ‘편집후기’에서 잡지경영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 하지만 『청색지』는 문화취미잡지를 목표한다는 것, 1호가 모두 판매되어 놀랍다는 사실을 밝혔다. 3호에서는 전시(戰時) 상황의 전개로 종이 수급이 어렵다는 것, 하지만 『청색지』는 많은 지면을 “컴마샤리즘”(commercialism)으로 채우는 상업주의 잡지와 달리 “훌륭한 잡지의 생산”을 추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편집자는 시와 소설 공히 중견작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게재했다.

창간호의 판권란은 편집 겸 발행인 구본웅, 인쇄인 고응민, 인쇄소 창문사, 발행소 청색지사(경성부 다옥정 7), 총판매소 삼문사, 정가 15전으로 기록된다. 8호에서 인쇄인이 구본웅으로 교체되었다. 당대의 문제적 화가답게 구본웅은 표지화의 구성에 정성을 기울였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써간 큰 글씨의 제호 ‘靑色紙’ 아래, 창간호는 두 여성의 누드를, 2호는 백합과 모란 속의 세 여성을, 3호는 단발 퍼머넌트의 여성을, 6호는 짧은 저고리 아래 가슴을 드러낸 기생을, 7호는 신여성의 얼굴 스케치를, 8호는 갈색으로 그린 구름 문양의 백자를 표지화로 실었다.

구본웅은 이상(李箱)의 유작 4편을 실었다. 「사—정식(正式) 1’~정식(正式) 6」과 나—순영—송군의 이상한 애욕을 서사화한 「환시기」(1호), 소설체로 쓴 작가론 「김유정과 소설 「병상 이후」(5호)가 그것이다. 정인택은 이상의 문체를 차용한 「추방」(6호)을 실어 친우를 깊이 애도했다. 다방면에 걸친 임화의 글쓰기도 주목된다. “꽃과 애인과 승리와 패복과 원수까지를 한



창간호 표지, 고려대학교 소장

정열로 찬미”하자는 시 「한 잔 포도주를……」, 제국의 자본에 포위당한 조선문화의 슬픈 현실을 비평한 「문화기업론」(1호), 작가의 기질로서 장인정신의 중요성과 매너리즘에의 경계를 강조한 「작가기질론」(2호), 신파극 이후 조선근대극의 역사와 현실을 검토한 「신극론」(3호), 운명의 역사적 성격과 영웅적 실현을 갈파한 산문 「잡록」(5호)이 보인다.

정지용의 금강산 연작 「비로봉」과 「구성동」(2호), 유치환의 빛나는 삶을 약속하는 「기약」과 부산항의 풍경을 담은 「부산도」(2호), 삶의 고통을 극화한 「내 차라리

생기지 않았거든!」(5호), 오장환의 청년의 비애와 열망이 가득한 「헌사(獻詞)ARTEMIS」(3호), 이찬의 국경생활을 담은 「국경일절」(3호)과 삶의 우울을 아로새긴 「우수」(5호), 신석정의 자연예찬 「가을을 보는 마음」(7호) 등은 조선시의 폭과 깊이를 잘 보여준다.

소설의 성과도 기억할 만하다. 시골기생 수향과 아버지의 갈등을 그린 김남천의 「누나의 사건」, 여급의 비애를 부조한 안희남의 「에레나 나상(裸像)」(1호), 할머니와 하녀의 세대론적 갈등을 그린 이무영의 「적(敵)」(2호), 무능한 남편과 주의자 형부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의 양가적 욕망을 다룬 송영의 「경대(鏡臺)」(3호), 문학청년기 자아의 형상을 형제의 갈등을 빌려 묘사한 이기영의 「형제」(6~7호), 이석훈의 「소작인 덕보」와 현경준의 장편 「겨울야화(夜話)」(8호) 등이 실렸다.

현실모순을 넘어선 조화로운 인간상을 강조한 백철의 「휴머니즘의 본격적 경향」, 김남천의 ‘모랄론’이 제출된 「장편소설에 대한 나의 이상」(2호)과 작가의 안정적 직업을 요청한 「작가의 생활」(3호), 이기영의 인간과 기술자의 공동성을 강조한 「인간과 기술자」(5호)와 원산 방문기

「원산행 소감」(7호), 점심 요릿집에서 ‘신동아건설’의 세태를 일별하는 이태준의 「추억」(6호), 한설야의 「말의 매력」(7호), 「이런 처지」와 「소망(少妄)」과 「탁류」 등의 집필 과정과 의미를 소개한 채만식의 「자작 안내」(5호), 봄맞이의 기쁨을 그린 안희남의 「영춘사(迎春詞)」(5호), 조선영화의 현실을 이론과 작품으로 검토한 나옹(羅雄)의 「대자본의 진출과 조선영화계」(2호)와 주영섭의 「영화수첩」(3호), 조우식의 미술비평 「피카소와 지성」(8호) 등은 중견문인들이 집중했던 관심사의 다양성과 함께 『청색지』의 높은 문화수준을 짐작케 한다.

한편 인정식의 「조선사회와 신일본주의」(5호), 「인간과 정치」(6호), 「아시아적 정체성의 문제」(7호), 사공일의 「신동아건설의 신시대에 처하여 개인의 가정생활을 개선하라」(5호), 김문집의 일본어 산문 「文化表現の國語的趨勢(문화표현의 국어적 추세)」(6호) 등은 ‘신체제론’으로 진군하는 천황제파시즘에 포획된 조선 잡지들의 슬픈 운명을 착잡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청색지』는 8호로 중간함으로써 파시즘 체제와 미학에의 야합을 간신히 비껴간다. 이는 중견문인의 작품 없이 젊은 현경준과 이석훈의 소설, 시사에 흔적 없는 무명시인의 시편이 실렸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짐작된다. 다만 국가적 시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호소한 홍효민의 「문화인의 정신과 사상」은 ‘신체제론’의 짙은 그늘을 여지없이 확인시킨다. (해제: 최현식)

핵심어 청색지, 구분웅, 문화 취미 잡지 표방, 중견문인들의 발표무대

참고문헌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출판문화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창간호 판권지, 고려대학교 소장

獮

맥사

1938. 6. 15 ~ 1939. 11. 11

『맥』은 1938년 6월 창간되어 최근 통권 6호인 1939년 11월호가 발굴·소개된 시 전문 잡지로, 이 중 5호는 아직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김정린의 『현대시문학』(학문사, 1966)에 의하면 『맥』은 1940년대 국내 발행이 어려워지자 일본에서의 발행을 시도했는데, 『맥』 10호를 조판하던 중 인쇄소가 불타 발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맥』의 통권은 6호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2호는 1938년 9월, 3호는 1938년 10월, 4호는 1938년 12월, 6호는 1939년 11월에 발간되었으며, 4집에 실린 윤곤강의 평론을 빼면 모두 시작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창간호를 보면 편집 겸 발행인은 김정기(金正琦)이고, 발행소는 경성부 돈암정(敦岩町) 맥사, 인쇄인은 최봉섭(崔奉燮), 인쇄소는 교본인쇄소(橋本印刷所)이다. 발행인 김정기는 『맥』에 시를 수록했으며 이후, 잡지 『시학』(1939)을 발간하기도 했다.

『맥』의 1호부터 6호까지 비교적 다수의 작품을 발표한 시인으로는 김진세, 황민, 조인규, 김남인, 함윤수, 홍성호, 김대봉, 김우철, 박남수, 윤곤강, 장만영, 김조규 등이 있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약 46명의 시인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참여 시인의 수에 비해 한국문학사에 이름을 올린 시인은 함윤수, 박남수, 윤곤강, 장만영, 김조규 정도이며 많은 문인들이 북쪽 지방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다. 김진세, 함윤수는 함경도, 김남인, 박남수, 김조규는 평안도, 장만영은 황해도 출신이며, 『맥』 2호부터는 경성 판매소와 함께 함북총판매소 소비아서점으로 판매소가 확대되었다. 요컨대 『맥』은 당시의 경성 중심의 문단에 흡수되지 않는 지방 문단의 중요한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나민애, 2014: 214-216)

『맥』에 수록된 시 중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을 쓴 시인은 『문장』에서 정지용의 추천을 받은

‘황민’과 중앙 문단에서도 이름을 알린 ‘박남수’이다. 황민의 시 「경」(1호)은 거울 속에 비친 모습에 시적 화자의 심경을 투영한 시로 총 14연으로 이루어져있다. “거울거울 어리는 거울속에는/ 동고의 화원을 날러온 췌하아야히 바래운 나의 나비의 숨결이 있습니까”처럼 ‘거울거울~있습니다’라는 반복구 속에, 호수, 하늘, 낙엽 등 다양한 자연 이미지를 동원하여 계절의 흐름과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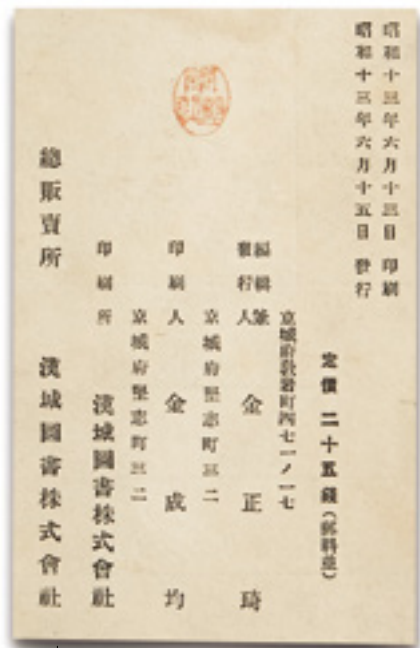
「춘락시초」(2호), 「거머리」(3호), 「쇄포

기」(4호) 등 『맥』에 실린 황민의 시는 대체로 수준 높은 이미지 사용이 주목할 만하다. 박남수의 시 중에는 「삼림」(3호)이 완성도가 높다. “내 귀 안에 밀려드는 파도는/ 멀리 패각을 산 바다의 언어와는 다르다/ 무서운 소녀의 발육처럼 자라/ 삼림속에는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짙은 성장 뒤에는 족보가 만들어/ 생명의 화판은 시들지 않는다”처럼 이 시는 ‘인간-강물-소리-시간-생명’의 이미지를 매끄럽게 연결하면서 ‘삼림’의 원초적인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 이와 함께 『맥』에는 김남인이나 김우철의 시처럼 뚜렷한 목적성에 방점을 둔 선전선동시 계열의 작품도 다수 수록되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이 늙고 몸이 여위었지만/ 새로운 <제네레-슌>의 광휘 있는 <삶>의 탐구자들은/ 우리들 지난날의 대오의 빛나는 업적을/ 문화사상 첫머리에 아로새이리라”와 같은 김우철의 시 「사의 흑단 앞에 서서-삶의 철리를 탐색할 때」(1호)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들꽃이 핀 둔덕-소녀의 비애」(3호) 등 부드러운 서정시 계열의 작품을 주로 발표한 장만영도 있다.

『맥』의 창간호에는, 별도의 창간사나 편집후기가 없기는 하나, 6호에 실린 동인들의 후기를 통해 이 잡지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다. 신동철은 “시는 조직학적 기술을 중시”하는 예술이며,



창간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새로움을 구하는 심리”로 낯은 시관과 낯은 이미지, 낯은 정신을 배척할 것을 주장한다. 김복원은 윤곤강이 『맥』의 시가 난해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 “난해의 비난이 갖는 기준의 생리”를 되물으며, 오히려 “완전한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 말한다. 황민 역시 “난해의 얼굴에는 잠들은 전통의 무의식적 인습을 살아가는 이 나라 온갖 구상들의 데드마스크가 혐오롭게 움직인다”며 낯은 시를 벗어난 새로운 시가 가진 난해성을 옹호하고 있다. 이처럼 『맥』 동인들은 공통적으로 기성 문단과는 다른 새로운 형식과 정신을 바탕으로 낯은 것을 배척하

고 새로운 시를 써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모더니즘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맥』은 동시대 『삼사문학』이 보여주는 의도적인 형식 파괴, 띄어쓰기 무시, 활자 변형과 같은 기법적인 실험에는 치중하지 않았다. (해제: 박용찬)

핵심어 맥, 김정기, 지방 문예지, 황민, 박남수, 실험정신

참고문헌 김근수, 『한국잡지사』, 청록출판사, 1980.

나민애, 「『맥』지와 함북 경성의 모더니즘」, 『한국시학연구』41, 한국시학회, 2014.

윤길수, 「시동인 『맥』에 대한 소고」, 『맥』11(재창간호), 선우미디어, 2014.2.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41 박문

博文

박문서관

1938. 10. 1 ~ 1941. 1. 1

『박문』은 1938년 10월에 창간되어 1941년 1월에 통권 23호로 종간된 수필 전문 잡지이다. 판권장에는 편집 겸 발행인 최영주, 인쇄인 김현도, 인쇄소 대동인쇄소, 발행소 박문서관(서울 종로 2가), 판형 A5판 32면, 정가는 5전으로 되어 있다. 1938년 10월부터 1941년 1월까지의 월간으로 간행되었으나 그 후 5차례에 걸쳐 격월간으로 간행되었다.

『박문』은 발간사에서 “『박문』은 조고만 잡지이나, 이 잡지는 박문서관 기관지인 동시에 각계 인사의 수필지로서 탄생된 것이다. 이 잡지의 사명이 점점 커지는 때에는 이 잡지 자신도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고만 책이 점점 자라나서 반도 출판계에 큰 자리를 차지할 때가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이 지면을 광채 있게 꾸며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와 같이 잡지의 성격, 전망, 편집 방침 등을 밝혀 놓았다. 지면은 11호까지 32쪽을 유지하다가 12호는 50쪽, 13호와 14호는 28쪽, 15호부터 종간호인 23호까지는 24쪽으로 구성했다. 2호부터는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연정독자 일만획득(年定讀者 一萬獲得)’을 위하여 1년 선금 50전을 보낼 사람을 구하는 내용의 사고를 실었다.

창간호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박문서관의 활동을 보여주는 고정란 「편집실 일기초」와 「출판부 통신」이 있고, 다음으로 잡지의 본문 역할을 하는 수필 수록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당대 문화현상을 정리하는 고정란이 있다. 창간호의 32면 중에서 23면이 수필이고, 목차 1면, 광고 3면, 고정란이 5면이다. 수필에는 이태준의 「작품애」, 김남천의 「독서」, 이희승의 「청추수제(淸秋數題)」 등이 실려 있다. 앞부분에 수필 작품을 싣고 뒷부분에 고정란을 배치하는 형태로 지면을 안배하여 종간호까지 큰 변화 없이 편집 체제를 유지하였다.



창간호 표지, 고려대학교 소장

『박문』은 매호마다 10편 정도의 수필을 게재하다가 통권 13호부터는 면수가 축소되면서 작품 수도 6~7편으로 줄어들었다. 내용상 경수필과 중수필의 비율은 거의 대등해서 편집자가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소설가를 중심으로 한 저명 문인이 대거 참여하여 수필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대표적인 수필로는, 앞의 「작품애」와 「청추수제」, 김안서의 「신변잡화」, 김동인의 「춘원과 사랑」, 이효석의 「낙랑다방기」, 노천명의 「눈오는 밤」, 손진태의 「지계」, 김광섭의 「감상」, 박태원의 「항간잡필」, 김남천의 「무전여행」, 최정희의 「춘소」, 김동석의 「녹음송」 등이 있다. 경수필 외에도 전문적인 성격의 수필로 박기채의 「영화자본의 예술화」, 임동혁의 「콩쿨 단평」, 유치진의 「연극 독본」, 이인영의 「고서 이야기」, 정인택의 「영화적 산보」, 조윤제의 「조선 문학의 고전」, 이병기의 「삼국사기 해설」 등을 볼 수 있다. 「각씨와 각지의 평문」이라는 연재에서는 각 신문과 문학지의 서평을 실었는데 고정 필자 대신 여러 명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수필 외에 시와 소설도 게재되어, 시로는 이광수의 「조박용철군」과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게재되었으며, 소설로는 박종화, 박영희, 현진건, 채만식, 이태준의 작품 중 일부를 발췌해 실었다.

『박문』의 창간호부터 종간호까지 문인 100여 명, 210여 편의 수필이 수록되었다. 그 외 조선학 관련 글들이 눈에 띄고, 고정란에는 당대의 문화 현상이 정리되어 있어 중요한 문학적



창간호 판권지, 고려대학교 소장

사료 역할을 했다. 문예 수필의 형성기인 1930년대의 수필을 토대로 현대의 수필이 발전해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1938년 창간되어 2년 여 동안 문예 수필의 창구 역할을 했던 『박문』의 가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동시에 『박문』은 박문서관의 기관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박문』의 주 내용은 박문서관의 출간 서적 광고와 홍보였으며, 본문에 수록된 수필 대부분도 박문서관과 연관된 것이었다. 『박문』은 오늘날 기업체와 출판사에서 간행하는 홍보 매체의 형태를 선구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해제: 강진호)

핵심어 한국 최초의 월간 수필전문잡지, 문인 수필과 전문가 수필의 병행, 수필의 범위 확장

참고문헌 장두식, 「박문서관 기관지『박문』연구」, 『(순천향)인문과학논총』32-2,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6.30.

장만호, 「식민지 말기 수필문학의 양상과 문학장의 변화-최초의 수필전문지 『박문』을 중심으로」, 『비평문학』36, 한국수필학회, 2010.6.

정진석, 「인물로 본 한국언론 100년-13 잡지출판인들」, 『신문과 방송』260, 1992.8, 65쪽.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최이안, 「한국 최초의 수필 잡지『박문』」, 『수필학』13, 한국수필학회, 2005, 227-248쪽.

1939	신세기 동양지광 문장 시학 총동원 인문평론
1941	신시대 춘추 국민문학
1942	대동아
1943	방송지우

042 신세기

新世紀

신세기사

1939. 1. 1 ~ 1941. 6. 1

『신세기(新世紀)』는 1939년 1월 1일에 창간된 대중 종합잡지다. 문화와 음악, 영화와 미술 등 예술을 사랑하는 이, 명랑한 마음과 굳은 육체를 바라는 이, 현실사회의 이면을 알고 싶어 하는 이, 이성에게 흥미와 매력을 느끼는 이들에게 이 잡지를 바친다는 내용의 창간사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술 외에 정치와 연예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창간호가 발행 수일 만에 동이 나고, 부수를 두 배로 늘려 발행한 2호 역시 매진되는 등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경성 시내 서점의 잡지 판매고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1940년 4월호에 친일파 박흥식의 호화 결혼식 참관기를 실은 것이 문제가 되어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11월에 발행을 재개했고, 1941년 6월 통권 27호로 종간되었다.

『신세기』 창간호는 편집 겸 발행인 곽행서(郭行瑞), 인쇄인 최인환(崔仁煥), 인쇄소 일신인쇄, 발행소 신세기사(서울 서소문동 36 덕수빌딩), A5판 156면, 정가 30전으로 발행되었다. 『신세기』는 당대 일류 화가였던 정현웅이 표지화와 삽화를 맡아 그렸고 도쿄에서 표지를 인쇄해와 장정이 매우 화려했다. 매호마다 여성의 인물화로 표지를 대신했고, 할리우드와 국내 연예인들과 미술 작품, 각종 대회 등의 사진을 화보 형태로 실었다. 1938년 국가총동원령이 공포되고 전시 경제체제로 전환되던 시기에 잡지가 창간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인지 친일적인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지면이 많았다.

『신세기』에는 시와 소설, 문인들의 수필, 서양음악과 미술에 대한 소개, 영화평, 영화 제작 현장 참관기, 영화배우와 문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에 관한 가십성 기사, 연애담, 우스갯소리 등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실려 있다. 이런 지면 구성은 예술종합잡지를 표방하며 “조선 문화

향상의 일익”이 되고자 한다고 했던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2호에 실린 『조선 여우(女優)의 남편 군상』이라는 글은 외설적이고 노골적인 내용 때문에 독자들의 항의를 받아 다음 호에 사과문을 실기도 했는데, 이는 흥미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벌어진 일이라 하겠다. 매호마다 현실 정세를 분석하고 소개하는 기사를 싣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중일전쟁의 현황과 조선인 병사들의 무용담을 소개하면서 조선 젊은이들의 참전을 독려하는 식으로 친일적 태도를 드러내었다. 이런 친일적 기사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갔다.

『신세기』는 문예란에 상당한 양의 지면을 할애했고, 질적으로도 어느 문학잡지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문예란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소설이었다. 정비석, 김래성, 방인근, 계용묵, 장혁주, 이기영, 박태원 등의 단편과, 이광수의 『늪은 절도범』, 엄홍섭의 『인생사막』, 엄홍섭의 『피난성』, 장혁주의 『안해』 등의 장편이 수록되어 있다. 시로는 노천명, 서정주, 신석정, 이병기 등의 작품이 실려 있다. 하지만 수록된 작품들 가운데 고풍을 받은 작품은 별로 없다. 1939년 9월호의 ‘각계 인물론 특집’ 가운데 ‘문단 인물론’은 여러 문인들에 대한 존평을 싣고 있어 흥미를 끈다.

『신세기』는 예술종합잡지를 표방했고 이런 취지에 부응한 면이 없지 않지만, 흥미 위주의 대중잡지에 머물렀다는 평이 더 지배적이다. 친일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것도 잡지의 위상을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043 동양지광

東洋之光

동양지광사

1939. 1. 1 ~ 1945. 1. 1

떨어뜨린다. 『신세기』는 식민지시대 말기에 잡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잡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해제: 정영훈)

핵심어 대중잡지, 친일 색채, 정현웅, 문학작품의 수준 저하

참고문헌 이진석, 「1939~1941년의 한국 여성에 대한 인식 연구-아단문고 미공개자료총서의 『신세기』

잡지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11(3), 한국법교육학회, 2016.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동양지광』은 1939년 1월 1일 발행인 박희도, 발행소 동양지광사, 인쇄소 조광인쇄주식회사에서 1호가 발행되었다. 2005년에 발간된 영인본에는 '1939년 12월호, 1940년 2월호 ~ 1941년 11월호, 1942년 4월호와 9월호, 1943년 2월호, 1943년 10월, 1944년 12월호'가 누락되어 있으며, 1945년 1월호까지만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중간' 여부가 고지되어 있지 않아서 이 잡지가 언제 중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동양지광』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박희도가 1939년 1월에 창간했던 잡지이다. 1921년 이래, 박희도는 언론 활동을 통해서 일제에 저항했지만, 거듭되는 탄압과 투옥, 그리고 일제의 회유 끝에 결국 친일의 길로 들어섰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처럼, 박희도도 『동양지광』을 창간하고 스스로 동양지광사의 사장이 되었다. 『동양지광』은 국판의 일본어로 된 잡지로서, 매월 120쪽 내외로 발행되었다.

『동양지광』은 주로 시국과 관련된 사상을 다루는 잡지로서, 내선일체와 황도선양, 전쟁 수행과 일본어 보급 운동 등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당대 친일 지식인들과 문인들이 필진으로 참여했지만, 조선 총독부 관료들이나 재조선 일본인 수양단체 녹기연맹의 회원들도 글을 발표했다. 『동양지광』의 창간호 논설란은 코노 세조(河野省三, 국학원 대학장)의 「대화심(大和心)의 특색」,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귀족원 의원)의 「봉공정신과 경신(敬神)행사의 실천」, 인정식(경제학자)의 「내선일체의 필연성에 대하여」, 쿠리하라 미노루(栗原美能留, 대일본연합청년단 상임이사장)의 「국민정신과 근로보국운동」 등으로 채워졌다. 여기서 '대화심'이나 '경신행사' 등은 일본의 고유한 정신을 의미하며, 조선 지식인의 '내선일체론'도 확인된다. 그리고 '근로보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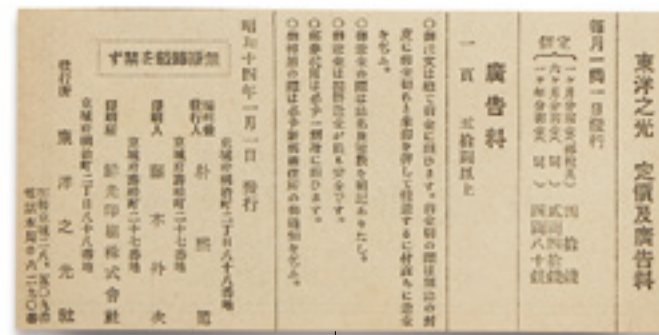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중국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노동력 동원을 암시한다. 이로써 『동양지광』이 지식인 중심의 시국 관련 잡지였음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동양지광』의 편집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권두언에 이은 논설란이다. 『동양지광』의 논설란은 전시 체제 구축과 내선일체의 선전 등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 수행의 과정에서 필요한 청년, 여성, 지식인 등의 정신적, 육체적 동원을 강요하는 언설로 채워진다. 신동아 건설, 대동아 공영권, 국민총동원 체제, 지원병 및 징병제도 실시 등이 주된 이슈였다.

『동양지광』은 시사지였기 때문에, 문학과 예술과 관련된 작품이나 기사, 평론 등이 많이 실리지는 않았다. 다만, 이광수, 유치진, 박영희, 백철 등 한국근대문학사의 주요 작가들의 작품이나 평론이 더러 실렸다. 이광수의 일본어 시 「틈틈이 노래하라 折にふれて歌へる」(1939. 2), 수필 「산기일기」(1939. 8), 박영희의 기행문 「전선기행 1, 2」(1939. 9~10), 유치진의 수필 「拉濱線にて」(1942. 10) 등이 게재되어있다. 그러나 『동양지광』의 문예란과 관련해서 친일시인 김용제의 존재를 기억해야 한다. 김용제는 「전쟁문학의 전망」(1939. 3 평론)을 필두로 「아세아시집 1~7」(1939. 7~11, 1940. 1), 「장병시초」(1942. 7), 「12월 8일」(1942. 12), 「청년시집 1~4」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44. 2~4, 9·10) 등을 1944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음을 상기할 때, 그리고 시의 제목을 생각해 볼 때, 『동양지광』에 실린 김용제의 시는 일제의 전쟁 수행에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제: 이원동)

핵심어 친일시사잡지, 일본어 잡지, 박희도, 내선일체론, 김용제·이광수 등의 친일문학

참고문헌 김승구, 「중일전쟁기 김용제의 내선일체문화운동」, 『한국민족문화』3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류종렬, 「이주홍의 일제 말기 일문 작품 연구 (1)」, 『한국문학논총』65, 한국문화회, 2013.12.

우치다 준, 현순조 역, 「총력전 시기 재조선 일본인의 ‘내선일체’에 대한 협력」, 『아세아 연구』 51, 2008. 3.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출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현암사, 2004.

044 문장

文章

문장사

1939. 2. 1 ~ 1948. 10. 15

『문장』은 1939년 2월 창간되어 1941년 4월 통권 25호로 강제 폐간된 문학잡지이다. 창간호의 편집 겸 발행인은 김연만, 인쇄인은 정경덕, 인쇄소는 대동인쇄소, 발행소는 문장사(서울 종로 한청빌딩 3층)이고, 판형은 A5판 190면, 정가 40전이다. 편집주간은 소설가 이태준이고, 표지의 제자는 추사 김정희 필적의 집자이며, 장정은 길진섭이고, 삽화와 컷은 김용준이다. 1939년 7월 임시증간호(32인 창작집)를 발행하였고, 1940년 6월과 8월은 용지난으로 휴간하였으며, 1941년 일제에 의해 폐간되었다. 1948년 10월에 '속간호'라는 제호 아래 정지용이 복간하였으나, 1호로 종간되었다.

『문장』은 『인문평론』과 함께 일제 말의 대표적인 문학전문지로, 특정한 사상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일제 말 민족문화말살정책의 와중에서 탄생하여 시, 소설 등의 창작뿐만 아니라 『한중록』, 『도강록』, 『인현왕후전』 등 우리의 고전을 발굴하여 주석을 달았고, 민족문학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취지에서 다수의 신인들을 배출하였다. 『문장』에 글을 발표한 사람은 소설 65명, 시 46명, 시조 10명, 희곡·시나리오 8명, 수필 183명, 평론 59명이다. 이들이 발표한 작품은 소설 162편, 시 180편, 시조 34편, 수필 183편, 희곡 6편, 시나리오 2편, 평론 119편에 달한다. 『문장』은 이렇듯 많은 작품들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작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국과 문필인』이라는 권두사에서 “우리 문필인의 시험관은 연구실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발견하고, 지적하고, 선양할 바 대상은 민중 속에 있고, 전 국가적인 사태에 있고, 시대라거나 세기란 방대한 국면에 있는 것이다.”와 같이 잡지의 성격을 암시했다. 외견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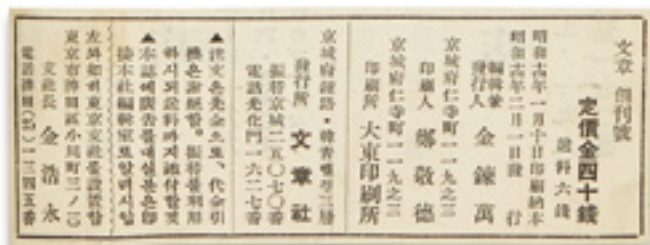


상 “태양과 같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황국정신”을 운운하며 시대현실에 맞는 활동을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실제로는 친일적 색채가 거의 없는 순수 문학 작품을 다수 게재하였다.

또한 국문학 고전을 수록하여 민족문학 유산을 옹호·전파하였고, 서구문화 도입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추천제를 두어 신인들을 적극 발굴했다. 소설가로 최태웅·곽하신·임옥인·지하련·정진엽·한병각·선진수·유운경·허민·임서하 등이, 시인으로 이한직·김종한·박남수·박두진·박목월·조지훈·박일연·조정순·최남령·허민·황민 등이, 시조인으로 조남령·김영기·김상옥·이호우·장응두·오신혜 등이 배출되었다.

『문장』은 창작뿐만 아니라 고전문학 연구논문 및 자료의 제공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이희승의 『조선문학 연구초』, 송석하의 『봉산가면극 각본』, 조운제의 『조선소설 개요』, 손진태의 『무격의 신가』, 조남령의 『현대시조론』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병기의 『조선어문학 명저해제』, 양주동의 『사뇌가석주 서설』, 정인승의 『고본 훈민정음의 연구』, 조운제의 『설화 문학교』, 최현배의 『한글의 비교연구』 및 자료 『춘향전집』 등도 조선학의 업적으로 꼽을 수 있다.

『문장』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중심 역할을 한 인물은 이병기, 이태준, 정지용이다. 이병기는 문혀 있던 고전작품들, 예컨대 「한중록」, 「인현왕후전」, 「요로원야화기」, 「춘향가」, 신재효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의 판소리 등을 발굴·소개하여 고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였고, 이태준은 거기에 보조를 같이 하면서 「문장강화」(9회)를 통해 우리의 고전과 근대문학의 대표적 작품들을 두루 언급하면서 한글 문장의 정립에 노력하였다. 「문장강화」는 말과 글의 일체감, 표현의 적절성, 각종 문장 쓰기의 요령 등에 역점을 두면서 현대적 문장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정지용 역시 조선적인 것에 관심을 보이면서 전통의 현대화와 창작적 수용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등 소위 청록파 시인들을 배출했다. 이들의 활동을 근거로 『문장』은 우리말과 정신을 지키려는 고전주의 정신의 잡지로 자리매김했다. 『문장』은 1930년대 후반기, 중일전쟁 이후 일어 상용의 강제라는 암흑기 속에서 순수한 우리말과 정신을 지키려는 민족적 자존심의 표상으로 평가된다. (해제: 강진호)

핵심어 문장, 이병기, 이태준, 정지용, 고전주의, 순문예지 지향, 신인 배출, 명작과 명시의 산실

참고문헌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김용직, 「『문장』과 문장파의 의식성향 고찰」, 『선청어문』2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95.

배개화, 「『문장』지의 내간체 수용 양상」, 『현대소설연구』2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3.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45 시학

詩學

시학사

1939. 3.12 ~ 1939. 10. 28

1939년 3월 창간, 1939년 10월 통권 4호로 중간되었다. 「권두언」은 문학 현실을 “감식(鑑識)의 폐사. 관념의 망령. 문자의 행렬”로 점철된 퇴폐기로 규정한다. 이에 맞서 “오랜 산문에 인종의 쇠사슬을 끊고 자아의 새벽을 향하여 돌진해야만 될 시와, 낡은 피견(避見)과 미몽을 아낌없이 팽개치고 눈먼 찌너리즘에 대한 시 독자(獨自)의 기폭을 옹호해야만 될 시인을 위하여 『시학』을 생탄한다”라고 선언했다.

판권란은 편집인 겸 발행인 김정기(1~2호), 한경석(3~4호), 발행소 시학사(경성부 종로2정목 67번지), 발매소 대성당, 인쇄인 김동옥, 인쇄소 한성도서주식회사, 정가 20전으로 기록된다. 표지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써간 제호 詩學을 상단부에 배치(1~2호)했으나, 4호는 중앙에 세로로 배치했다. 그림은 1호: 고대유물에 새겨진 상형문자 모양의 사자와 물고기, 현무(玄武), 2호: 초록의 탕자나무 위에서 팔랑대는 나비, 4호: 구름 속에서 웅비하는 용의 자태를 취했다. 표지화는 전통적 동양미학을 살려내고 있는데, ‘조선적인 것’을 향한 존중과 의욕이 엿보인다.

『시학』은 매호 ‘추천시고’를 공모, 신인들을 꾸준히 배출했다. 1호는 동인지의 가치와 맥락을 살피기 위해 「시단인의 동인시지관(시인용)」 및 「동인시지의 현재와 장래(각지 대표용)」라는 설문을 마련했다. 한편 「메가폰」과 「시단풍문(1호)」, 「직언판(1~2호)」, 「시인주소록(2호)」, 「촌어집(寸語集)(3호)」, 「독자시단(4호)」 등을 실어 시단 안팎의 풍경과 주장을 담아내었다.

시적 성취는 신진시인들의 몫이었다. 서정주의 「웅계(雄鷄)와 「웅계(상)」, 이용악의 「절라도 가사내」와 「두메산골」, 이육사의 「연보」와 「호수」, 유치환의 「가마귀의 노래」와 「지연(紙鷺)」, 오

장환의 「나의 노래」, 김광균의 「공원」과 「조화(吊花)」, 신석정의 「登高(登高)」와 「서정가」, 윤곤강의 「빙하」와 「폐원(廢園)」, 신석초의 「파초」와 「배암」, 여상현의 「입술을 빨며」, 권환의 「유언장」, 이병기의 「시마(詩魔)」, 이찬의 「춘교(春郊)」 등이 발표되었다. 이 외에도 이병각과 김해강, 해방기에 월북하는 이정구, 김조규, 민병균 등의 이름이 눈에 띈다.

평론도 풍요롭다. 이원조의 「현대시의 혼돈과 그 근거」, 최재서의 「시의 장래—낭만정신의 길」(1호), 신석초의 「이상과 능력의 문제」, 양운한의 「시와 비평 문제」(2호), 홍효민의 「시의 탈환」, 이병기의 「시와 시조」, 이병각의 「홍삼초허영의 생리」(3호), 한흑구의 「시의 생리론」, 이정구



창간호 표지, 고려대학교 소장

의 『『동물시집』의 안착된 정신』(윤곤강론), 이병각의 「향수하는 소시민」(김광균론), 민태규의 「시집 『헌사』를 읽고」(오장환론)(4호) 등이 게재되었다. 조선시의 현황과 방향을 다룬 시론에서부터 갓 출간된 시집 비평에 이르기까지

시단을 향한 고언과 격려가 균형감 있게 제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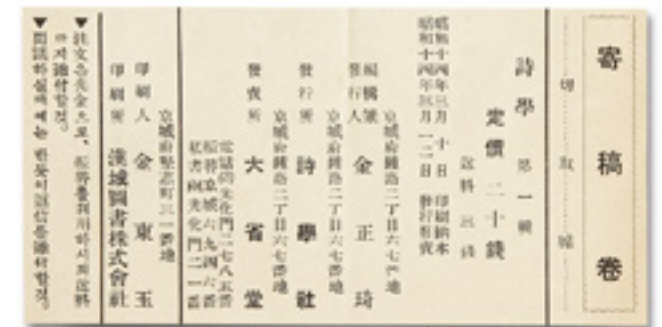
번역도 주목된다. 번역시로는 2호에 괴테의 「파우스트」(권환), 린제이의 「길손」(이하운), 예이츠의 「이니스프리로」(임학수), 푸시킨의 「소조(小鳥)」(함대훈), 포의 「엘도라도」(최재서) 등이, 3호에는 「파우스트」, 휘트먼의 「공상」(한흑구), 블레이크의 「라오콘 군상 주기(註記)」(청파) 등이, 4호에는 부릿지스의 「나이팅게일」(이하운)이 실렸다. 또한 청파생은 「뽕와로—시학초」(1호), 포의 「창작철학」(2호)을 번역하여, 앞의佳作(佳作)들을 낳은 서양의 시창작법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시학』은 60쪽 내외의 지면에 시와 시론, 비평과 번역, 신인 공모, 문단 풍경과 소식 등을 빼곡히 담았다. 이상의 항목들은 파시즘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유익한 시창작법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제: 최현식)

핵심어 시학, 추천시고, 신진시인, 평론, 번역시

참고문헌 김용직, 『한국현대시사 2』, 한국문연, 199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창간호 판권지, 고려대학교 소장

總動員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1939. 6. 4 ~ 1940. 10. 7

『총동원』은 1939년에 조선총독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기관지이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하 조선연맹으로 표기함)은 조선총독부가 재조선 일본인 사회와 조선인 상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만든 단체로서, 당대 식민지 조선 사회의 상하와 종횡을 치밀하게 엮었다. 조선 연맹의 이사장은 총독부 학무국장 시오바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郎)로서, 조선 총독부가 중앙조직을 관리하고 조선 팔도 각 부, 군, 도까지 지역 연맹 조직을 만들었다. 여기에 조선 총독부의 하부 관료들, 재조선 일본인 단체들, 그리고 조선인 사회단체, 경제단체, 문화 및 언론단체, 종교단체들이 망라되었다. 특히, 조선 연맹의 하부이자 핵심조직은 ‘애국반’이었다. 전국 각지의 마을 단위로 조직된 애국반은 조선총독부가 설정했던 사회적 의제를 조선 민중들의 일상생활까지 전달하는 구실을 했고, 『총동원』은 그것을 위한 핵심 매체였다. 따라서 『총동원』의 주된 내용은 ‘지원병 및 참전군인 독려와 원호, 공출과 현금 협조, 폐품 수집과 근검절약, 창씨개명의 설파’ 등 주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설정된 의제였다.

조선연맹의 이와 같은 조직적 성격은 잡지 『충동원』의 이중언어 사용이나 잡지의 편집 체제에도 영향을 끼친다. 『충동원』은 대체로 일본어로 되어있지만 초창기의 몇몇 호에서 주요 글들은 일본어와 조선어로 동시에 게재되었다. ‘내선일체’나 ‘생산력 증대’를 강요하는 조선 총독부의 핵심 관리들의 글이나, ‘궁성요배, 조기취침, 근검저축, 근로보국, 국방색 옷 입기’ 등 조선 민중들의 일상적인 삶을 세세하게 통제하는 글들이 특히 그랬다. 한편, 『충동원』의 편집 체제는 ‘일사분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총독부에서 ‘식량문제’를 특집의 의제로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서 설정하면, 잡지의 권두언, 논설, 기사, 문예작품 등은 그 특집에 부응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런 식으로 『충동원』에서 다룬 기본의제는 ‘재해대책, 지원병제도, 경제전 수행’ 등이었다.

그러나 『충동원』의 문예란은 상당히 빈약하다. 근대적 의미의 시나 소설, 수필은 물론 문학평론이나 문화평론도 거의 없다. 일본어로 된 짧은 시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기는 했지만, '문예'와 관련된 작품이나 글들이 매호 실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충동원』의 문예란이 '짧은 실화나 역사이야기, 종이 연극 대본' 등으로 꾸며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예를 들어, 月照의 「반도의 빛」은 '실화'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데, 조선인 이성춘이 제국의 군인이 되어 갱생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田中初夫의 「갱생의 도」는 종이인형극의 각본으로서, 난폭했던 청년 홍식이 건실한 생활인으로 거듭난다는 내용이다. 한국 근대문인 가운데 이광수와 김문집 등도 『충동원』의 문예란에 글을 썼다. 이광수는 「지원병 송가」라는 시와 함께, 일본어 소설 「옥수수」를 발표했고, 김문집은 「검은 혈서」라는 소설을 썼다. 이광수의 시와 김문집의 소설은 조선인 지원병을 소재로 한 것이며, 이광수의 「옥수수」는 식량 절약과 관계된 내용이다. 이처럼 『충동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의 문예란은 조선 민중들에게 친숙한 형식을 활용하면서, 조선총독부가 설정했던 기본의제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총동원』이 일본의 침략 전쟁과 관련된 의제들을 조선 각 지역의 민중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잡지였음을 재차 확인시켜준다.

(해제: 이원동)

핵심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지원병특집 등 여러 특집 설정, 이광수·김문집 등의 친일담론

참고문헌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출판, 2012.

임종국,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전은경, 「창씨개명과『총동원』의 모성담론 전략」, 『한국현대문학연구』26, 한국현대문학회, 2008.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현암사, 2004.

047 인문평론

人文評論

인문사

1939. 10. 1 ~ 1941. 4. 1

『인문평론』은 1939년 10월 1일 창간된 월간 문예 종합잡지로서 1941년 4월 1일 통권 16호로 종간되었다. 문학평론가 최재서가 편집주간과 발행인을 겸했으며 편집후기와 권두언도 집필하였다. 인쇄는 김용규의 대동출판사에서 맡았고, 쪽수는 국판 200쪽에서 300쪽 사이였으며 판매가는 처음에는 50전이다가 1940년 5월호부터 60전이 되었다.

『인문평론』의 발행을 맡은 인문사는 1937년 12월에 최재서가 만든, 문학을 비롯한 조선어 인문 도서를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로서 경성 광화문통 210번지 광화문빌딩 2층에 소재하였다. 전작장편소설을 기획하고 『조선 문예연감』을 간행하는 등 조선 문단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문사는 『인문평론』 폐간 이후 일본어 문학 서적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로 바뀌어 여러 권의 일본어 시집·소설집·평론집과 조선문인협회(이후 조선문학보국회)의 기관지인 『국민문학』, 『국민시인』을 발행하는 등 총독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1939년에 인문사 대표로서 황군위문 문단사절을 조직하고 조선문인협회의 발기인 및 기초위원을 맡은 등 총독부의 전쟁 동원 및 내선일체 정책에 협조적인 최재서였지만, 『인문평론』 자체가 체제 협력적이고 말하기는 어렵다. 『인문평론』 속표지에 ‘황국신민의 서사’를 실은 것도 당대의 모든 잡지에 부과된 의무였다. 이 점은 『인문평론』과 나란히 당대의 순문예지를 대표했던 『문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후자가 조선주의의 입장에 서 있었다면 전자는 서구적 이성으로 대표되는 지성주의의 입장에 서 있었다. 지성주의의 입장에서 전체주의 사회로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를 해석하고 그에 대처하려는 것이 『인문평론』의 기본적인 태도였다.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이러한 점은 최재서가 집필한 ‘권두언’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것은 ‘건설과 문학’, ‘문화인의 책무’, ‘신세대론의 진의’, ‘신질서와 인간 문제’, ‘국책과 문학’, ‘구라파 신질서와 동양 신질서’ 등으로 시국에 대처하는 문화인 또는 문학인의 자세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권두언’ 다음에는 권두 논문에 해당하는 긴 논문이 실려 있는데, 그

집필자는 서인식, 박치우, 신남철, 박종홍 등 대체로 당대의 철학자들이었다. 그 내용은 전체주의, 동아신질서론, 동아협동체론, 신체제 등 일본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상적 전환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 점은 공동 주제 하에 집필된 일련의 특집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그 주제는 교양론, 신세대론, 지식인과 직업, 신체제론, 전환기의 원리 등 당대의 지성계의 이슈들을 망라하고 있다.

시국에 대한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관심은 문학평론으로도 이어졌는데, 이 분야가 『인문평론』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쟁 문학, 생산 문학, 신세대 문학, 개척 문학, 동양 문학, 신체제 문학, 국민 문학 등의 주제는 당대 문학의 주된 논점을 거의 포괄하는 것으로서 일본 문학계에서 비롯된 문학 논의에 조선 문학계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또한 관찰문학론, 장편소설론을 비롯한 소설론, 전체주의와 모더니즘 등에 관한 논의는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을 장르와 사조의 문제로까지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 평론의 집필자는 최재서를 비롯해 이원조, 임화, 김남천, 김기림, 유

진오 등의 근대주의자로서 이들이 『인문평론』의 중심적인 논자였다. 임화의 「조선신문학사」와 같은 문학사, 최재서의 문학 시평(時評)과 같은 현장 비평을 실은 것도 『인문평론』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소설과 시 작품은 문학평론에 비하면 단출하지만 그 문학사적 비중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세대론과 관련되어 김동리, 정비석, 황순원, 박노갑 등의 소설이 실렸으며, 세대론을 소설화한 백철의 「전망」도 그 일환이었다. 김남천의 장편소설 「낭비」, 유진오의 「봄」, 「산울림」, 이무영의 「제1과 제1장」, 「흙의 노예」, 채만식의 「냉동어」, 현경준의 「유맹」 등이 『인문평론』에 실린 대표적인 소설로서 이들 소설들은 소설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시의 경우에는 김광균, 김기림, 김광섭 등의 모더니즘 시와 서정주, 오장환, 유치환, 윤근강 등의 생명주의 시는 물론, 백석, 노천명, 이육사의 시까지 비교적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다. 『인문평론』은 시, 소설 등의 문학 작품과 평론을 중심으로 전환기 조선 지성계의 대응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잡지라 할 수 있다. (해제: 윤대석)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핵심어 지성주의, 최재서, 인문사, 전환기, 특집, 문학평론 중심

참고문헌 서은주, 「파시즘기 외국문학의 존재방식과 교양 : 『인문평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4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2.6.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출판문화원, 2012.

채호석, 「1930년대 후반 문학비평의 지형도 : 『인문평론』의 안과 밖」, 『외국문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7.2.

048 신시대

新時代

신시대사

1941. 1. 1 ~ 1945. 4. 1

『신시대』는 1941년 1월 1일 창간된 월간 종합 대중잡지로서 1945년 4월 1일 통권 52집으로 종간되었다. 발행을 맡은 신시대사는, 박문서관과 대동인쇄주식회사를 소유하고 있던 출판계의 거물 노익형이 『신시대』를 발행하기 위해 새로이 설립한 회사로서 노익형(盧益亨)이 사장이었고 아들 노성석(盧聖錫)이 부사장이었다. 창간 당시 발행인·편집인은 미즈하라 에키교(瑞原益亨, 노익형의 창씨명)였고 그의 사망 이후인 1942년 1월부터는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은 아들 마즈하라 다카시(瑞原聖, 노성석의 창씨명)가 발행을 맡았다. 주간은 아동문학가이자 전문 편집인으로서 그동안 『박문』을 편집하며 박문서관과 인연을 맺은 가쓰야마 마사오(勝山雅夫, 최영주의 창씨명)가 맡아 편집을 총괄하였으나 그가 병환으로 사직한 이후인 1941년 9월부터는 채만식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신시대』는 박문서관에서 발행하던 수필 잡지 『박문』을 확대한 대중 종합잡지이다. 종합지를 발행하고자 했던 박문서관의 오랜 염원과 조선 대중에게 내선일체와 동아신질서의 이념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고자 했던 총독부 당국의 의도가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 『신시대』가 탄생하였다.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강제하던 총독부도 대중 선전에는 조선어가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한글 잡지가 다수 폐간되던 와중에도 한글 잡지인 『신시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점은 “신질서 하의 일본의 참된 자태를 구명하고 일본의 이상, 일본의 정신을 깨닫고 또 세우기 위하여 또 그것을 조선말을 통하여 조선말을 아는 동포에게 널리 전해드리”는 것, “새 시대가 요구하는 광범한 새 정신과 새 지식과 새 신념, 새 도덕, 새 예술, 새 생활의 모든 것을 가장 쉬운 말로 알기 편하게, 또 재미스럽게 전해드리”는 것이라는 『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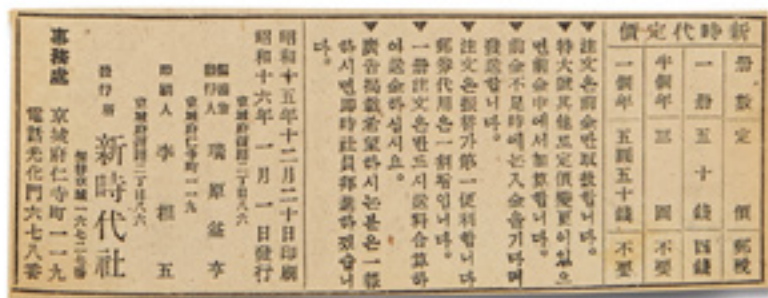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의 목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대중성과 정치성의 결합은 『신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표지는 정현웅, 안석주, 홍우백 등 당대의 유명 삽화가가 일정 기간을 계약하여 그리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진을 이용하여 편집부에서 꾸몄다. 그 내용은 전선의 군인이나 총후의 노동자, 총후 부인 등 시국적인 색채를 담은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전속 화가였던 홍우백이 맡았을 때는 풍경화나 정물화를 표지로 그렸다. 광고는 모회사인 박문서관이 출판한 책을 비롯한 각종 서적 광고와, 대중잡지답게 미용 관련 광고나 약품 판매 광고가 많았다. 또한 잡지 앞부분에 화보를 두어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는 일본군과 물자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농부들, 전쟁에 대비하는 부인·청소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시대』에 실린 글들은 크게 기사와 문예물로 나뉘는데, 기사는 시국을 해설하거나 일본의 정책과 사상을 선전하는 무거운 읽을거리와 전시 생활과 오락, 상식 등을 소개하는 가벼운 읽을거리로 나뉜다. 무거운 읽을거리는 일본 정부 및 군부 또는 총독부 당국의 책임자가 쓴 글



의 번역물, 서춘·유광렬·이광수 등 조선인 지도자층의 시국 관련 해설과 논설이 중심을 이루었다. 『신시대』가 표방한 대중성은 가벼운 읽을거리에 잘 드러나는데, 이 부류의 글들은 시국과 관련된 것도 있고 순수하게 유희적인 글들도 있다. 일본의 위안을 다룬 전기나 강담·야담·스파이물·총후미담·만화 같은 서사물들은 일본 정신을 드높이고 시국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고, 과학·생활·법률·의학 등의 상식과 관련된 글들도 총후의 생활을 규율하는 지식을 담고 있어 대중성과 정치성의 결합을 꾀하였다.

문학작품으로는 역사소설이나 연애소설, 탐정소설과 같은 대중물을 주로 실었는데, 대표적인 작가로 「잔혹」의 김동인, 「매국노」의 김내성, 「애정문한」의 박계주, 「별은 창마다」의 이태준, 「심봉사」의 채만식, 「그들의 사랑」의 이광수 등을 들 수 있다. 이광수의 소설 「그들의 사랑」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내선일체 문학의 한 본보기다. 박태원의 「삼국지」, 「서유기」 번역도 『신시대』의 대중 잡지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해제: 윤대석)

핵심어 대중성, 정치성, 박문서관, 노익형, 채만식, 총후문학, 내선일체

참고문헌 임종국, 이건제 교주,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2013.

우정덕·윤미란·이원경, 「잡지 『신시대』 세션 발표문」,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국제어문학회, 2014.6.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출판문화원, 2012.

049 **츄츄**

春秋

조선춘추사

1941. 2. 1 ~ 1944. 10. 1

『춘추』는 1941년 2월 1일, 저작 겸 발행인 양재하, 인쇄소 주식회사 대동출판사, 발행소 조선춘추사에서 1호가 발행된 월간 종합잡지이다. 2012년에 발행된 영인본에는 1941년 2월호~1944년 10월호까지 수록되어 있는데, 1943년 8월호, 그리고 1944년 4월호~7월호, 9월호가 빠져 있다. 1944년 10월호 편집후기에 ‘이번 호부터 연재되는 신동엽 씨의 『조선고서적의 전장과 산실』’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잡지를 계속 발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잡지의 종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춘추』는 1940년 8월 일제의 압력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되면서 발행된 잡지로서, 발행인 양재하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다. 1935년 11월에 이미 창간된 월간 종합잡지 『조광』이 조선일보 계열의 잡지였다면, 『춘추』는 동아일보 계열의 언론인들이 중심이 된 잡지였던 것이다.

『춘추』는 표지화, 화보, 권두언, 논설, 기사, 만문만화 등 다양한 기사들은 물론 시, 소설, 수필, 시조, 가극 등 다양한 갈래의 문학작품도 실었다. 그러나 『춘추』는 시사란과 문예란의 성격이 다소 달랐다. 표지화와 화보, 권두언과 논설, 기사 등 『춘추』의 시사란은 주로 일제의 국책사업과 전쟁수행과 관련된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유럽, 미국, 소련, 중국 등 각국의 동향을 다각도에서 점검하는 한편, 만주와 조선의 관계,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등 일본 제국주의에 새롭게 편입된 지역에 관한 지식도 다루었다. 특히, 일본의 전쟁에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해서 지원병 및 징병제 등의 청년담론, 여성 및 모성 담론, 생산력의 확충과 경제 통제 담론 등 소위 '시국적' 색채가 강력했다. 『춘추』의 시사란은 일제의 정책에 동조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꾸며진 것이다.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반면, 『춘추』의 문예면은 친일(親日)이라는 말 한 마디로 재단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조선어 신문과 잡지의 잇따른 폐간으로 한국의 주요 문인들이 조선어로 된 글을 더 이상 발표할 수 없게 되자, 『춘추』의 문예면이 한국어 발표지면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남천의 「소설의 장래와 인간성의 문제」와 같은 중요한 비평문이 게재되는가 하면, 박종화의 「빙허와 상화」처럼, 근대문인의 인물평도 실렸다. 또한 김남천의 「맥」, 이태준의 「무연」, 이효석의 「풀잎」, 한설야의 「세로」 등 시대적 어두움과 고민을 드러냈던 소설도 다수 발표되었다. 또한 『춘추』에 실린 소설 중에서 일제의 전쟁 수행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시국적 주제로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조선 민중들의 비참한 삶과 고통을 암시하는 것들도 있었다. 이무영의 「귀소」, 이북명의 「빙원」, 석인해의 「귀거래」, 최인옥의 「생활속으로」 등이 그런 작품들이다. 『춘추』에 실린 시들도

마찬가지였다. 김용제, 노천명, 주요한 등의 일본군 찬양시가 실렸는가 하면, 김광균, 김기림, 이용악, 오장환 등의 모더니즘 계열의 시도 발표되어 『춘추』의 시 지면을 다양하게 만들었다. 김광균, 김기림 등의 시는 사물의 묘사를 바탕으로 정서를 드러냈고, 오장환의 시는 주로 고향 상실의 정서를 담아냈다. 이처럼 잡지 『춘추』의 문예면은 1944년 말기까지, 매호 조선어 작품들을 수록함으로써 당대의 문인들이 조선어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거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 (해제: 이원동)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핵심어 양재하, 대일협력, 시의 다양성, 한국어문학의 발표 지면

참고문헌 김근수, 『한국잡지사』, 청록출판사, 1980.

김재용, 「춘추 영인본 발간을 환영하며」, 『춘추』(영인본), 역락, 2012.

서영인, 「일제말기 생산소설연구 : 강요된 국책과 생활현장의 리얼리티」, 『비평문학』41, 한국비평문학회, 2011.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출판, 2012.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현암사, 2004.

050 국민문학

國民文學

인문사

1941. 11. 1 ~ 1945. 5. 1

『국민문학』은 1941년 11월 1일 창간된 월간 문예 종합잡지로서 1945년 5월 1일 통권 40호로 종간되었다. 1941년 12월호, 1942년 9월호는 발간되지 않았고, 1942년 5월호와 6월호는 합병호로 발간되었으며, 1945년 4월호는 같은 해 5월호가 5권 5호인 점을 보면 발간된 것은 명확하나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그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다. 최재서가 만들고 『인문평론』을 출간하던 인문사에서 발행을 맡았으며, 인쇄는 창간호만 『인문평론』과 마찬가지로 대동출판사에서 맡았고 42년 1월호부터 42년 7월호까지는 매일신보사에서, 42년 8월호부터 43년 4월호까지는 지카자와(近澤) 인쇄소에서 맡다가, 43년 5월부터 종간까지 매일신보사에서 담당하였다. 국판 200쪽 내외의 분량에서 시작하였지만 42년 1월호부터 150쪽 내외로 줄었으며, 용지 부족이 심각해진 44년 7월호부터는 100쪽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국민문학』은 1941년 4월 총독부 당국의 잡지 통폐합 정책에 따라 『문장』, 『인문평론』 등의 잡지가 폐간된 이후 만들어진 조선의 유일한 종합문예지였다. 총독부와 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 창간된 문예지인 만큼 총독부,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이어지는 관의 통제 하에 놓여 있었으며, 조선문인협회(1943년 4월 조선문인보국회로 재편)의 기관지로서 '문보(조선문인보국회)의 페이지와 같은 난을 두어 조선문인협회의 소식을 알리거나 조선문인협회가 주최하는 일본어 현상소설 공모를 대행하기도 했다. 조선 문인협회의 기관지였지만 그 관련자가 직접 편집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었고 편집은 최재서와 김중환이 전담했다. 『국민문학』을 지탱했던 문화 자본으로 흔히 경성제대가 거론되는데, 이는 여러 측면에서 확인된다. 창간호는 24편 가운데 10편, 가장 그 비율이 높은 44년 1월호는 12편 가운데 6편, 전체적으로는 1/4에서 1/3에 이르



창간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는 필자가 경성제대 관련자였다. 그 뿐만 아니라 주요 권두 논문 대부분을 경성제대 교수 내지 졸업자가 썼다는 사실도 『국민문학』이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토착적 지식 네트워크에 의해 유지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국민문학』의 편집요강은 총독부 당국과의 교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국체 개념의 명징, 둘째 국민 의식의 양양, 셋째 국민 사기의 진흥, 넷째 국책에의 협력, 다섯째 지도적 문화 이론의 수립, 여섯째 내선 문화의 종합, 일곱째 국민문화의 건설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편집요강에 의해 당대의

관심사인 내선일체와 전쟁동원과 관련된 논문 및 문학 작품이 주로 수록되었는데, 『국민문학』의 관심사는 특집을 대신하여 마련된 좌담회에 의해 잘 드러난다. 좌담회 주제는 조선 문단의 재출발, 태평양 전쟁의 의의 및 대동아공영권, 지방·농촌 문화의 문제, 징병제, 학생 문화, 시국 영화 등이었다.

『국민문학』은 당국과의 교섭에 의해 원래 조선어판 8회, 일본어판 4회로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3호와 4호만 조선어판이고 조선어 원고 부족으로 인해 나머지는 모두 일본어판으로 발간된다. 결국 징병제의 각의 통과를 계기로 42년 5·6월 합병호부터는 일본어 전용으로 전환하여 순일본어 잡지가 된다. 『국민문학』에 게재된 문학 작품도 몇 편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어 작품인데, 중요한 소설로는 이효석의 「아자미의 장」, 유진오의 「남곡 선생」, 정인택의 「청량리 부근」, 이석훈의 「고요한 폭풍」, 한설야의 「피」, 김사량의 「태백산맥」, 최정희의 「야국초」 등의 일본어 소설과, 이태준의 「석양」, 안수길의 「원각촌」, 김남천의 「등불」 등의 한글 소설이 있다. 중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요한 시로는 정지용의 「이토」, 유치환의 「수(首)」, 이용악의 「길」 등의 한글 시가 있고 일본어 시로는 김용제, 김종환의 시가 대표적이다. 또한 『국민문학』에는 일본어 작가의 작품도 많이 실려 있다. 주요 작가로는 시인 사토 기요시(佐藤清), 소설가 다나카 히데미쓰(田中英光),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오비 주조(小尾十三)가 있었고, 그 가운데 오비 주조의 소설 「등반」은 아쿠타가와상 19회 수상작이 되기도 하는 등 『국민문학』은 재조 일본인 문학의 장이기도 했다.

(해제: 윤대석)

핵심어 인문사, 최재서, 조선문인협회, 내선일체론, 재조일본인, 일본어 문학

참고문헌 조남현, 『한국 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출판문화원, 2012.

문경연 외, 『좌담회로 읽는 국민문학』, 소명출판, 2010.

김형섭, 「『국민문학』의 서지 및 성격 고찰」, 『일어일문학 39』, 대한일어일문학회, 2008.8.

051 대동아

大東亞

대동아사

1942. 3. 1 ~ 1943. 3. 1

『대동아』는 김동환 자신이 발행하던 잡지 『삼천리』의 제호를 변경한 것으로, 저작 겸 발행자는 김동환, 인쇄소는 중앙인쇄소, 발행소는 대동아사, 발행언어는 주로 일본어로 된, 3호로 끝난 종합지이다. 『대동아』 1호 표지와 목차를 보면 5월호로 되어 있지만, 편집 후기와 판권란을 보면 발행일이 3월 1일로 되어 있다. 『대동아』 1호 편집후기를 보면 김동환은 “대동아 건설의 성전에 사상전 문화전의 전사로서 선두”에 서고자, 1941년 12월에 발발한 태평양전쟁에 적극 앞장서고자 잡지명을 변경했다. 따라서 『대동아』의 주요 내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필 수 있다.

미국과의 전쟁이 본격화되자 당대인들의 관심은 대동아 건설이나 대동아 공영권 등으로 쏠렸다. 주요 언론들은 영국과 미국을 인류의 적으로 간주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민족들이 뭉쳐서 이들과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선 민중들을 이와 같은 전쟁에 동원하려는 목적에서 『대동아』 1호는 「대동아건설의 보무는 나아간다」, 「아시아의 효종, 일억일심 확고 단결」, 「아세아주의와 동아신질서 건설」 등의 글을 실거나, 「반도지도총부인의 결전보국의 대사자후」, 「영국의 말래침략사」 등의 논설을 게재했다. 『대동아』 2호는 징병제 실시에 따른 조선 청년들의 각오를 다지는 「반도민중의 황민연성을 고조」, 「반도청년에게 여함, 징병제와 반도청년의 각오」와 같은 논설을 실었고, 전쟁 수행 물자의 생산 기지였던 조선 농촌과 만주를 조명했다. 『대동아』 3호는 「재남경『반도인사』좌담회」, 「상해반도동포의 진로-현지에 있어서 내선일체운동에 대하여」 등과 같은 글을 통해 중국에서의 조선인에 의한 내선일체 소식을 전했다.

052 방송지우

放送之友
조선방송협회
1943. 1 ~ 1945. 5. 1

『방송지우』는 일제 식민지 시기 라디오 방송을 담당했던 조선방송협회에서 발행한 방송잡지이다.

1927년 사단법인경성방송국으로 개국한 뒤 1932년 이름을 바꾼 조선방송협회의 라디오 방송은 1933년 조선어 단독 방송을 의미하는 이중방송 실시 후 해방되던 시점까지 조선어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었다. 일제 말기에 이르러 조선총독부는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맹자들, 특히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국책을 선전하고 이에 대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조선어 라디오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송국을 증설하는 등 적극적인 조선어 방송 확충을 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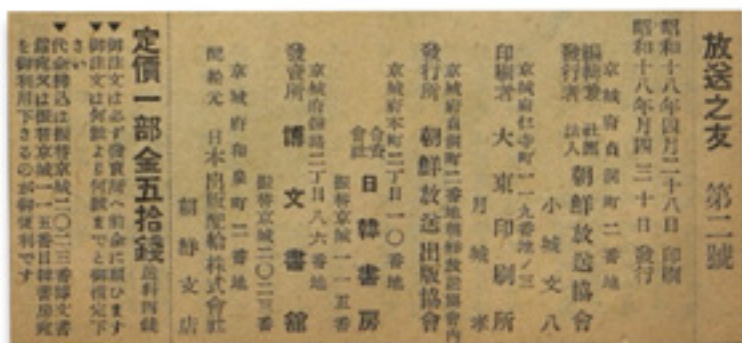
『방송지우』는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조선방송협회가 1943년 1월에 창간한 이중 언어 방송잡지로, 1권(1943년)은 6호까지, 2권(1944)은 12호까지, 3권(1945)은 3호까지 도합 21호에 걸쳐 발간되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방송 잡지의 외형을 띠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와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중 계몽 및 선전 잡지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였다. 창간호에 실린 창간사에 따르면 이 잡지는 이미 방송이 끝난 내용을 글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간행되었으며, 부인이나 청소년과 같은 청취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설정하여 일본의 국체를 분명히 하고 당시의 현안이던 징병제 등을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다.

한편 잡지의 표지를 보면 회람란이 있는데, 이는 이 잡지가 애국반과 같은 동원 조직을 통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2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해서 전시하 ‘국민’ 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뜻한다. 실제로 1943년 통권 2호에는 ‘라디오를 이용해서 국어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캡션이 달려 있는 사진이 소개되었는데 이처럼 라디오를 다양한 형태의 공동학습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자 텍스트를 활용한 잡지의 발행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이는 『방송지우』가 일본어를 읽지 못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한글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구연 텍스트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식민지 말기 종이 부족으로 인한 용지 할당제 속에서도 『방송지우』가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매호 2만 부 정도로 꾸준히 발간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결국 『방송지우』는 라디오 방송이 지닌 일회성을 보완하는 한편으로, 방송된 내용을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일종의 ‘독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잡지인 까닭에 『방송지우』는 창간호부터 매 호마다 시, 소설, 수필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이 잡지를 통해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들이 다수 소개되었다. 이광수의 소설 「면화」, 「귀거래」, 「구장님」, 「방공호」, 채만식의 「이상적 신부」, 유진오의 「가족부대」, 「김포 아주머니」, 이기영의 「저금통」, 「장끼」, 「증산일로」, 장덕조의 「재생」, 「총후의 꽃」, 정인택의 「푸른 언덕」, 안희남의 「머누리」, 이석훈의 「새 시대의 모성」, 방인근의 「기러기」, 엄홍섭의 「어머니와 아들」 등의 작품이 방송소설 혹은 콩트의 형태로 수록되었고, 방인근의 장편소설 「모자」가 장편 연재되기도 했다. 이 중에는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 노골적인 대일협력을 표방한 것도 있지만 이기영의 일부 작품들처럼 천황제 파시즘에 대한 풍자로

읽히는 작품들도 있다. 소설 외에도 방송잡지의 성격에 걸맞게 이기영의 「청년」, 「대륙의 꽃」, 이서구의 「가방」, 조명암의 「인정」 등의 방송극도 실렸다. 최정희의 「국어심청전」, 정인택의 「국어홍보전」 등은 한국 고전을 일본어로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최남선의 「신세계 건설의 도화선」, 「정의는 이긴다」 등의 논설문, 모운숙의 현장 탐방기, 김동인, 김팔봉, 이태준, 주요한, 이용악, 임화의 등의 수필이나 콩트 등도 실려 있다.

『방송지우』는 전시체제하 방송을 통한 조선총독부 정책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창간되었고 그 내용 역시 대일 협력 일색이었지만, 조선어를 사용한 문학 작품이 게재된 식민지 말기의 몇 안 되는 잡지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해제: 서재길)

핵심어 경성방송국, 조선방송협회, JODK, 방송잡지, 대일협력

참고문헌 서재길, 「일제 말기 방송 문예와 대일 협력」, 『민족문학사연구』32, 민족문학사학회, 2006.

서재길, 「식민지 말기의 매체 환경과 방송 잡지 『방송지우』의 성격」, 『근대서지』3, 근대서지학회, 2011.

목
 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1	新朝鮮	창간호	경성: 조선일보사	1927.02.10	아단문고	x
		2호	—	—	미확인	x
		3호	경성: 조선일보사	1932.09.01	아단문고	x
		4호	경성: 조선일보사	1932.10.25	아단문고	x
		5호	경성: 신조선사	1934.09.05	국립중앙도서관	x
		6호	경성: 신조선사	1934.10.01	국립중앙도서관	x
		7호	경성: 신조선사	1934.12.01	국립중앙도서관	x
		8호	경성: 신조선사	1935.01.01	국립중앙도서관	x
		9호	경성: 신조선사	1935.03.01	국립중앙도서관	x
		10호	경성: 신조선사	1935.05.01	국립중앙도서관	x
		11호	경성: 신조선사	1935.06.01	국립중앙도서관	x
		12호	경성: 신조선사	1935.08.01	고려대학교	x
		13호	경성: 신조선사	1935.12.01	국립중앙도서관	x
		종간호	경성: 신조선사	1936.01.01	고려대학교	x
2	三千里	창간호	경성: 삼천리사	1929.06.12	고려대학교	o
		1권 2호	경성: 삼천리사	1929.09.01	아단문고	o
		1권 3호	경성: 삼천리사	1929.11.13	아단문고	o
		2권 1호	경성: 삼천리사	1930.01.11	국립중앙도서관	o
		2권 2호	경성: 삼천리사	1930.04.01	미확인	o
		2권 3호	경성: 삼천리사	1930.05.01	아단문고	o
		2권 4호	경성: 삼천리사	1930.07.01	아단문고	o
		2권 5호	경성: 삼천리사	1930.09.01	국립중앙도서관	o
		2권 6호	경성: 삼천리사	1930.10.01	아단문고	o
		2권 7호	경성: 삼천리사	1930.11.01	아단문고	o
		3권 1호	경성: 삼천리사	1931.01.01	아단문고	o
		3권 2호	경성: 삼천리사	1931.02.01	아단문고	o
		3권 3호	경성: 삼천리사	1931.03.01	국회도서관	o
		3권 4호	경성: 삼천리사	1931.04.01	아단문고	o
		3권 5호	경성: 삼천리사	1931.05.01	아단문고	o
		3권 6호	경성: 삼천리사	1931.06.01	아단문고	o
		3권 7호	경성: 삼천리사	1931.07.01	아단문고	o
		3권 8호	—	—	미확인	x
		3권 9호	경성: 삼천리사	1931.09.01	아단문고	o
		3권 10호	경성: 삼천리사	1931.10.01	아단문고	o
		3권 11호	경성: 삼천리사	1931.11.01	아단문고	o
		3권 12호	경성: 삼천리사	1931.12.01	아단문고	o
		4권 1호	경성: 삼천리사	1932.01.01	아단문고	o
		4권 2호	경성: 삼천리사	1932.02.01	아단문고	o
		4권 3호	경성: 삼천리사	1932.03.01	아단문고	o
		4권 4호	경성: 삼천리사	1932.04.01	아단문고	o
		4권 5호	경성: 삼천리사	1932.05.01	아단문고	o
		4권 6호	경성: 삼천리사	1932.05.15	아단문고	o
		4권 7호	경성: 삼천리사	1932.06.15	아단문고	o
		4권 8호	경성: 삼천리사	1932.07.01/1932.08.01	아단문고	o
		4권 9호	경성: 삼천리사	1932.09.01	아단문고	o
		4권 10호	경성: 삼천리사	1932.10.01	아단문고	o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4권 11호	—	—	미확인	x
		4권 12호	경성: 삼천리사	1932.11.01	아단문고	o
		5권 1/2호	경성: 삼천리사	1933.01.01	고려대학교	o
		5권 3호	경성: 삼천리사	1933.03.01	고려대학교	o
		5권 4호	경성: 삼천리사	1933.04.01	아단문고	o
		5권 5호~8호	—	—	미확인	x
		5권 9호	경성: 삼천리사	1933.09.01	고려대학교	o
		5권 10호	경성: 삼천리사	1933.10.01	국회도서관	o
		5권 11호~6권 4호	—	—	미확인	x
		6권 5호	경성: 삼천리사	1934.05.01	아단문고	o
		6권 6호	—	—	미확인	x
		6권 7호	경성: 삼천리사	1934.06.01	미확인	o
		6권 8호	경성: 삼천리사	1934.08.01	연세대학교	o
		6권 9호	경성: 삼천리사	1934.09.01	아단문고	o
		6권 10호	—	—	미확인	x
		6권 11호	경성: 삼천리사	1934.11.01	아단문고	o
		7권 1호	경성: 삼천리사	1935.01.01	아단문고	o
		7권 2호	경성: 삼천리사	1935.02.01	고려대학교	o
		7권 3호	경성: 삼천리사	1935.03.01	아단문고	o
		7권 4호	—	—	미확인	x
		7권 5호	경성: 삼천리사	1935.06.01	아단문고	o
		7권 6호	경성: 삼천리사	1935.07.01	아단문고	o
		7권 7호	경성: 삼천리사	1935.08.01	아단문고	o
		7권 8호	경성: 삼천리사	1935.09.01	아단문고	o
		7권 9호	경성: 삼천리사	1935.10.01	아단문고	o
		7권 10호	경성: 삼천리사	1935.11.01	연세대학교	o
		7권 11호	경성: 삼천리사	1935.12.01	아단문고	o
		8권 1호	경성: 삼천리사	1936.01.01	아단문고	o
		8권 2호	경성: 삼천리사	1936.02.01	아단문고	o
		8권 3호	—	—	미확인	x
		8권 4호	경성: 삼천리사	1936.04.01	아단문고	o
		8권 5호	—	—	미확인	x
		8권 6호	경성: 삼천리사	1936.06.01	아단문고	o
		8권 7호	—	—	미확인	x
		8권 8호	경성: 삼천리사	1936.08.01	아단문고	o
		8권 9호~10호	—	—	미확인	x
		8권 11호	경성: 삼천리사	1936.11.01	아단문고	o
		8권 12호	경성: 삼천리사	1936.12.01	아단문고	o
		9권 1호	경성: 삼천리사	1937.01.01	아단문고	o
		9권 2호~3호	—	—	미확인	x
		9권 4호	경성: 삼천리사	1937.05.01	아단문고	o
		9권 5호	—	—	미확인	x
		10권 1호	경성: 삼천리사	1938.01.01	아단문고	x
		10권 2호~4호	—	—	미확인	x
		10권 5호	경성: 삼천리사	1938.05.01	아단문고	o
		10권 6호~7호	—	—	미확인	x

목
 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10권 8호	경성: 삼천리사	1938.08.01	아단문고	○
		10권 9호	—	—	미확인	x
		10권 10호	경성: 삼천리사	1938.10.01	아단문고	○
		10권 11호	경성: 삼천리사	1938.11.01	아단문고	○
		10권 12호	경성: 삼천리사	1938.12.01	아단문고	○
		11권 1호	경성: 삼천리사	1939.01.01	아단문고	○
		11권 2호~3호	—	—	미확인	x
		11권 4호	경성: 삼천리사	1939.04.01	아단문고	○
		11권 5호~6호	—	—	미확인	x
		11권 7호	경성: 삼천리사	1939.06.01	아단문고	○
		11권 8호~12권 2호	—	—	미확인	x
		12권 3호	경성: 삼천리사	1940.03.01	아단문고	○
		12권 4호	경성: 삼천리사	1940.04.01	아단문고	○
		12권 5호	경성: 삼천리사	1940.05.01	아단문고	○
		12권 6호	경성: 삼천리사	1940.06.01	아단문고	○
		12권 7호	경성: 삼천리사	1940.07.01	아단문고	○
		12권 8호	경성: 삼천리사	1940.09.01	아단문고	○
		12권 9호	경성: 삼천리사	1940.10.01	아단문고	○
		12권 10호	경성: 삼천리사	1940.12.01	아단문고	○
		13권 1호	경성: 삼천리사	1941.01.01	아단문고	○
		13권 2호	—	—	미확인	x
		13권 3호	경성: 삼천리사	1941.03.01	아단문고	○
		13권 4호	경성: 삼천리사	1941.04.01	아단문고	○
		13권 5호	—	—	미확인	x
		13권 6호	경성: 삼천리사	1941.06.01	아단문고	○
		13권 7호	경성: 삼천리사	1941.07.01	아단문고	○
		13권 8호	—	—	미확인	x
		13권 9호	경성: 삼천리사	1941.09.01	아단문고	○
		13권 10호	—	—	미확인	x
		13권 11호	경성: 삼천리사	1941.11.01	아단문고	○
		13권 12호	경성: 삼천리사	1941.12.01	아단문고	○
		중간호	경성: 삼천리사	1942.01.01	아단문고	○
	三千里文學	창간호	경성: 삼천리사	1938.01.01	아단문고	○
		중간호	경성: 삼천리사	1938.04.01	국립중앙도서관	○
3	詩文學	창간호	경성: 시문학사	1930.03.05	국립중앙도서관	○
		2호	경성: 시문학사	1930.05.20	국립중앙도서관	○
		중간호	경성: 시문학사	1931.10.10	국립중앙도서관	○
4	大潮	창간호	경성: 대조사	1930.03.15	연세대학교	○
		2호	경성: 대조사	1930.04.15	아단문고	○
		3호	경성: 대조사	1930.05.15	아단문고	○
		4호	경성: 대조사	1930.07.01	연세대학교	○
		5호	경성: 대조사	1930.08.01	아단문고	○
		중간호	경성: 대조사	1930.09.10	아단문고	○
5	彗星	창간호	경성: 개벽사	1931.03.01	국립중앙도서관	○
		2호	경성: 개벽사	1931.04.15	국립중앙도서관	○
		3호	경성: 개벽사	1931.05.15	국립중앙도서관	○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4호	경성: 개벽사	1931.06.15	국립중앙도서관	○
		5호	경성: 개벽사	1931.08.15	국립중앙도서관	○
		6호	경성: 개벽사	1931.09.15	국립중앙도서관	○
		7호	경성: 개벽사	1931.10.15	국립중앙도서관	○
		8호	경성: 개벽사	1931.11.15	국립중앙도서관	○
		9호	경성: 개벽사	1931.12.15	국립중앙도서관	○
		10호	경성: 개벽사	1932.01.15	국립중앙도서관	○
		11호	경성: 개벽사	1932.02.15	국립중앙도서관	○
		12호	경성: 개벽사	1932.03.15	국립중앙도서관	○
		중간호	경성: 개벽사	1932.04.15	국립중앙도서관	○
6	批判	창간호	경성: 비판사	1931.05.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2호	경성: 비판사	1931.06.2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3/4호	경성: 비판사	1931.07.24	국립중앙도서관	○
		1권 5호	경성: 비판사	1931.09.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6호	경성: 비판사	1931.10.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7호	경성: 비판사	1931.11.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8호	경성: 비판사	1931.12.08	국립중앙도서관	○
		2권 1호	경성: 비판사	1932.01.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2호	경성: 비판사	1932.02.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3호	경성: 비판사	1932.03.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4호	경성: 비판사	1932.04.15	국립중앙도서관	○
		2권 5호	경성: 비판사	1932.05.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6호	경성: 비판사	1932.06.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7호	경성: 비판사	1932.07.15	국립중앙도서관	○
		2권 8호	경성: 비판사	1932.09.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9호	경성: 비판사	1932.10.01	국립중앙도서관	x
		2권 10호	경성: 비판사	1932.11.06	국립중앙도서관	○
		2권 11호	경성: 비판사	1932.12.01	국립중앙도서관	○
		3권 1호	경성: 비판사	1933.01.01	국립중앙도서관	○
		3권 2/3호	경성: 비판사	1933.03.01	국립중앙도서관	○
		3권 4호	경성: 비판사	1933.06.01	국립중앙도서관	○
		3권 5호	경성: 비판사	1933.10.15	국립중앙도서관	○
		3권 6호	경성: 비판사	1935.11.15	국립중앙도서관	○
		4권 1/2호	경성: 비판사	1936.03.01	국립중앙도서관	○
		4권 3호	경성: 비판사	1936.04.00	국립중앙도서관	x
		4권 4호	경성: 비판사	1936.05.20	국립중앙도서관	○
		4권 5호	경성: 비판사	1936.07.20	국립중앙도서관	○
		4권 6호	경성: 비판사	1936.09.20	국립중앙도서관	○
		4권 7호	—	—	미확인	x
		4권 8/9호	경성: 비판사	1936.10.20	국립중앙도서관	○
		5권 1/2호	경성: 비판사	1937.02.20	국립중앙도서관	○
		5권 3호	경성: 비판사	1937.02.22	국립중앙도서관	○
		5권 4호	경성: 비판사	1937.03.20	국립중앙도서관	○
		5권 5호~7호	—	—	미확인	x
		5권 8/9호	경성: 비판사	1937.07.08	국립중앙도서관	○
		5권 9호	경성: 비판사	1937.08.31	국립중앙도서관	○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5권10호~6권2호	—	—	미확인	×
		6권 3호	경성:비판사	1938.02.26	고려대학교	×
		6권 4호	경성:비판사	1938.04.26	국립중앙도서관	○
		6권 5호	경성:비판사	1938.05.26	국립중앙도서관	○
		6권 6호	경성:비판사	1938.06.26	국립중앙도서관	○
		6권 7호	경성:비판사	1938.07.26	국립중앙도서관	○
		6권 8호	경성:비판사	1938.08.26	국립중앙도서관	○
		6권 9호	경성:비판사	1938.09.26	국립중앙도서관	○
		6권 10호	경성:비판사	1938.10.26	국립중앙도서관	○
		6권 11호	경성:비판사	1938.11.26	국립중앙도서관	○
		6권 12호	경성:비판사	1938.12.26	국립중앙도서관	○
		10권 1호	경성:비판사	1939.01.26	고려대학교	×
		10권 2호	경성:비판사	1939.02.26	고려대학교	×
		10권 3호	경성:비판사	1939.03.26	고려대학교	×
		10권 4호	경성:비판사	1939.04.26	고려대학교	×
		10권 5호	경성:비판사	1939.05.26	고려대학교	×
		10권 6호	경성:비판사	1939.06.26	연세대학교	×
		10권 7호	경성:비판사	1939.07.26	국립중앙도서관	×
		10권 8호	—	—	미확인	×
		10권 9호	경성:비판사	1939.09.26	고려대학교	×
		11권 1호	경성:비판사	1940.01.26	국립중앙도서관	×
		종간호	경성:비판사	1940.03.26	고려대학교	×
7	文藝月刊	창간호	경성:문예월간사	1931.11.01	연세대학교	○
		2호	경성:문예월간사	1931.12.01	국립중앙도서관	○
		3호	경성:문예월간사	1932.01.01	국립중앙도서관	○
		종간호	경성:문예월간사	1932.03.01	연세대학교	○
8	新東亞	창간호	경성:신동아사	1931.11.01	연세대학교	○
		2호	경성:신동아사	1931.12.01	연세대학교	○
		3호	경성:신동아사	1932.01.01	연세대학교	○
		4호	경성:신동아사	1932.02.04	연세대학교	○
		5호	경성:신동아사	1932.03.01	연세대학교	○
		6호	경성:신동아사	1932.04.01	연세대학교	○
		7호	경성:신동아사	1932.05.01	연세대학교	○
		8호	경성:신동아사	1932.06.01	연세대학교	○
		9호	경성:신동아사	1932.07.01	연세대학교	○
		10호	경성:신동아사	1932.08.01	연세대학교	○
		11호	경성:신동아사	1932.09.01	국립중앙도서관	○
		12호	경성:신동아사	1932.10.01	연세대학교	○
		13호	경성:신동아사	1932.11.01	연세대학교	○
		14호	경성:신동아사	1932.12.01	연세대학교	○
		15호	경성:신동아사	1933.01.01	연세대학교	○
		16호	경성:신동아사	1933.02.01	연세대학교	○
		17호	경성:신동아사	1933.03.01	연세대학교	○
		18호	경성:신동아사	1933.04.04	연세대학교	○
		19호	경성:신동아사	1933.05.04	연세대학교	○
		20호	경성:신동아사	1933.06.01	이단문고	○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21호	경성: 신동아사	1933.07.05	연세대학교	○
		22호	경성: 신동아사	1933.07.25	국립중앙도서관	○
		23호	경성: 신동아사	1933.09.01	연세대학교	○
		24호	경성: 신동아사	1933.10.01	아단문고	○
		25호	경성: 신동아사	1933.11.01	연세대학교	○
		26호	경성: 신동아사	1933.12.01	연세대학교	○
		27호	경성: 신동아사	1934.01.01	연세대학교	○
		28호	경성: 신동아사	1934.02.01	연세대학교	○
		29호	경성: 신동아사	1934.03.01	연세대학교	○
		30호	경성: 신동아사	1934.04.01	연세대학교	○
		31호	경성: 신동아사	1934.05.01	연세대학교	○
		32호	경성: 신동아사	1934.06.01	연세대학교	○
		33호	경성: 신동아사	1934.07.01	연세대학교	○
		34호	경성: 신동아사	1934.08.01	연세대학교	○
		35호	경성: 신동아사	1934.09.01	연세대학교	○
		36호	경성: 신동아사	1934.10.01	아단문고	○
		37호	경성: 신동아사	1934.11.01	아단문고	○
		38호	경성: 신동아사	1934.12.01	연세대학교	○
		39호	경성: 신동아사	1935.01.01	연세대학교	○
		40호	경성: 신동아사	1935.02.01	연세대학교	○
		41호	경성: 신동아사	1935.03.01	연세대학교	○
		42호	경성: 신동아사	1935.04.01	연세대학교	○
		43호	경성: 신동아사	1935.05.01	연세대학교	○
		44호	경성: 신동아사	1935.06.01	연세대학교	○
		45호	경성: 신동아사	1935.07.01	연세대학교	○
		46호	경성: 신동아사	1935.08.01	연세대학교	○
		47호	경성: 신동아사	1935.09.01	연세대학교	○
		48호	경성: 신동아사	1935.10.01	연세대학교	○
		49호	경성: 신동아사	1935.11.01	연세대학교	○
		50호	경성: 신동아사	1935.12.01	연세대학교	○
		51호	경성: 신동아사	1936.01.01	아단문고	○
		52호	경성: 신동아사	1936.02.01	연세대학교	○
	53호	경성: 신동아사	1936.03.01	연세대학교	○	
	54호	경성: 신동아사	1936.04.01	연세대학교	○	
	55호	경성: 신동아사	1936.05.01	연세대학교	○	
	56호	경성: 신동아사	1936.06.01	연세대학교	○	
	57호	경성: 신동아사	1936.07.01	연세대학교	○	
	58호	경성: 신동아사	1936.08.01	국립중앙도서관	○	
		종간호	경성: 신동아사	1936.09.01	연세대학교	○
9	東方評論	창간호	경성: 동방평론사	1932.04.01	고려대학교	x
		2호	경성: 동방평론사	1932.05.09	고려대학교	x
		종간호	경성: 동방평론사	1932.07.01	아단문고	x
10	演劇運動	창간호	—	1932.05.00	미확인	x
		종간호	경성: 연극운동사	1932.07.15	아단문고	○
11	第一線	창간호	경성: 개벽사	1932.05.20	국립중앙도서관	○
		2호	경성: 개벽사	1932.07.15	국립중앙도서관	○

목
 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3호	경성: 개벽사	1932.08.15	국립중앙도서관	○
		4호	경성: 개벽사	1932.09.15	국립중앙도서관	○
		5호	경성: 개벽사	1932.10.15	국립중앙도서관	○
		6호	경성: 개벽사	1932.11.15	국립중앙도서관	○
		7호	경성: 개벽사	1932.12.15	국립중앙도서관	○
		8호	경성: 개벽사	1933.01.15	국립중앙도서관	○
		9호	경성: 개벽사	1933.02.15	국립중앙도서관	○
		중간호	경성: 개벽사	1933.03.15	국립중앙도서관	○
12	新階段	창간호	경성: 조선지광사	1932.10.08	국립중앙도서관	○
		2호	경성: 조선지광사	1932.11.05	국립중앙도서관	○
		3호	경성: 조선지광사	1932.12.05	국립중앙도서관	○
		4호	경성: 조선지광사	1933.01.05	국립중앙도서관	○
		5호	경성: 조선지광사	1933.02.05	국립중앙도서관	○
		6호	경성: 조선지광사	1933.03.05	국립중앙도서관	○
		7호	경성: 조선지광사	1933.04.01	국립중앙도서관	○
		8호	경성: 조선지광사	1933.05.05	국립중앙도서관	○
		9호	경성: 조선지광사	1933.06.05	아단문고	○
		10호	경성: 조선지광사	1933.07.05	연세대학교	○
		중간호	경성: 조선지광사	1933.09.05	국립중앙도서관	x
13	全線	창간호	경성: 적벽사	1933.01.01	연세대학교	○
		2호	경성: 적벽사	1933.02.01	고려대학교	x
		3호	경성: 적벽사	1933.03.01	고려대학교	x
		4호	—	—	미확인	x
		중간호	경성: 적벽사	1933.05.06	고려대학교	x
14	新家庭	창간호	경성: 신동아사	1933.01.01	고려대학교	○
		2호	경성: 신동아사	1933.02.01	아단문고	○
		3호	경성: 신동아사	1933.03.01	아단문고	○
		4호	경성: 신동아사	1933.04.01	아단문고	○
		5호	경성: 신동아사	1933.05.01	아단문고	○
		6호	경성: 신동아사	1933.06.01	아단문고	○
		7호	경성: 신동아사	1933.07.01	아단문고	○
		8호	경성: 신동아사	1933.08.01	아단문고	○
		9호	경성: 신동아사	1933.09.01	아단문고	○
		10호	경성: 신동아사	1933.10.01	아단문고	○
		11호	경성: 신동아사	1933.11.01	아단문고	○
		12호	경성: 신동아사	1933.12.01	아단문고	○
		13호	경성: 신동아사	1934.01.01	아단문고	○
		14호	경성: 신동아사	1934.02.01	아단문고	○
		15호	경성: 신동아사	1934.03.01	아단문고	○
		16호	경성: 신동아사	1934.04.01	아단문고	○
		17호	경성: 신동아사	1934.05.01	아단문고	○
		18호	경성: 신동아사	1934.06.01	아단문고	○
		19호	경성: 신동아사	1934.07.01	아단문고	○
		20호	경성: 신동아사	1934.08.01	아단문고	○
		21호	경성: 신동아사	1934.09.01	아단문고	○
		22호	경성: 신동아사	1934.10.01	아단문고	○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23호	경성: 신동아사	1934.11.01	아단문고	○
		24호	—	—	미확인	x
		25호	경성: 신동아사	1935.01.01	아단문고	○
		26호	경성: 신동아사	1935.02.01	아단문고	○
		27호	경성: 신동아사	1935.03.01	국립중앙도서관	○
		28호	경성: 신동아사	1935.04.01	아단문고	○
		29호	경성: 신동아사	1935.05.01	아단문고	○
		30호	경성: 신동아사	1935.06.01	아단문고	○
		31호	경성: 신동아사	1935.07.01	아단문고	○
		32호	경성: 신동아사	1935.08.01	미확인	○
		33호	경성: 신동아사	1935.09.01	아단문고	○
		34호	경성: 신동아사	1935.10.01	아단문고	○
		35호	경성: 신동아사	1935.11.01	아단문고	○
		36호	경성: 신동아사	1935.12.01	아단문고	○
		37호	경성: 신동아사	1936.01.01	아단문고	○
		38호	경성: 신동아사	1936.02.01	아단문고	○
		39호	경성: 신동아사	1936.03.01	아단문고	○
		40호	경성: 신동아사	1936.04.01	국립중앙도서관	○
		41호	경성: 신동아사	1936.05.01	아단문고	○
		42호	경성: 신동아사	1936.06.01	아단문고	○
		43호	경성: 신동아사	1936.07.01	아단문고	x
		44호	경성: 신동아사	1936.08.01	아단문고	x
		중간호	경성: 신동아사	1936.09.01	아단문고	x
15	朝鮮文學	창간호	—	1933.05.00	미확인	x
		1권 2호	—	—	미확인	x
		1권 3호	경성: 경성각	1933.10.00	연세대학교	○
		1권 4호	경성: 경성각	1933.11.00	국립중앙도서관	○
		2권 1호	경성: 경성각	1933.12.25	국립중앙도서관	○
		2권 2호~5호	—	—	미확인	x
		2권 6호	—	—	국립중앙도서관	○
		2권 7호	경성: 조선문학사	1936.05.18	국립중앙도서관	○
		2권 8호	경성: 조선문학사	1936.07.13	국립중앙도서관	○
		2권 9호	경성: 조선문학사	1936.09.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10호	경성: 조선문학사	1936.10.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11호	경성: 조선문학사	1936.11.08	국립중앙도서관	○
		3권 1호	경성: 조선문학사	1937.01.01	고려대학교	○
		3권 2호	경성: 조선문학사	1937.02.01	고려대학교	○
		3권 3호	경성: 조선문학사	1937.03.06	고려대학교	○
		3권 4/5호	경성: 조선문학사	1937.05.01	고려대학교	○
		3권 6호	경성: 조선문학사	1937.06.06	고려대학교	○
		14호	경성: 조선문학사	1937.08.01	고려대학교	○
		15호	경성: 조선문학사	1939.01.01	고려대학교	○
		16호	경성: 조선문학사	1939.03.01	고려대학교	○
		17호	경성: 조선문학사	1939.04.01	고려대학교	○
		18호	경성: 조선문학사	1939.05.01	고려대학교	○
		19호	경성: 조선문학사	1939.06.01	고려대학교	○

목
 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중간호	경성: 조선문화사	1939.07.01	고려대학교	○
16	가톨릭靑年	창간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3.06.10	국립중앙도서관	○
		2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3.07.10	국립중앙도서관	○
		3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3.08.10	국립중앙도서관	○
		4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3.09.10	국립중앙도서관	○
		5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3.10.10	국립중앙도서관	○
		6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3.11.10	국립중앙도서관	○
		7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3.12.10	국립중앙도서관	○
		8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3.12.25	국립중앙도서관	○
		9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4.01.25	국립중앙도서관	○
		10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4.02.25	국립중앙도서관	○
		11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4.03.25	국립중앙도서관	○
		12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4.04.25	국립중앙도서관	○
		13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4.05.25	국립중앙도서관	○
		14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4.06.25	국립중앙도서관	○
		15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4.07.25	국립중앙도서관	○
		16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4.08.25	국립중앙도서관	○
		17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4.09.25	국립중앙도서관	○
		18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4.10.25	국립중앙도서관	○
		19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4.11.25	국립중앙도서관	○
		20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4.12.25	국립중앙도서관	○
		21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5.01.25	국립중앙도서관	○
		22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5.02.25	국립중앙도서관	○
		23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5.03.25	국립중앙도서관	○
		24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5.04.25	국립중앙도서관	○
		25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5.05.25	국립중앙도서관	○
		26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5.06.25	국립중앙도서관	○
		27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5.07.25	국립중앙도서관	○
		28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5.08.25	국립중앙도서관	○
		29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5.09.25	국립중앙도서관	○
		30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5.10.25	국립중앙도서관	○
		31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5.11.25	국립중앙도서관	○
		32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5.12.25	국립중앙도서관	○
		33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6.01.25	국립중앙도서관	○
		34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6.02.25	국립중앙도서관	○
		35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6.03.25	국립중앙도서관	○
		36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6.04.25	국립중앙도서관	○
		37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6.05.25	국립중앙도서관	○
		38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6.06.25	국립중앙도서관	○
		39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6.07.25	국립중앙도서관	○
		40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6.08.25	국립중앙도서관	○
		41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6.09.25	국립중앙도서관	○
		42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6.10.25	국립중앙도서관	○
		중간호	경성: 가톨릭청년사	1936.11.25	국립중앙도서관	○
17	學燈	창간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3.10.15	국립중앙도서관	○
		2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3.12.01	국립중앙도서관	○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3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01.01	아단문고	x
		4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03.01	아단문고	○
		5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04.08	아단문고	x
		6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05.01	아단문고	○
		7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06.06	아단문고	○
		8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07.23	아단문고	x
		9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09.01	아단문고	x
		10호	—	—	미확인	x
		11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11.01	아단문고	○
		12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12.01	아단문고	○
		13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01.01	아단문고	○
		14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03.01	아단문고	○
		15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04.29	아단문고	○
		16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06.01	아단문고	○
		17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07.05	아단문고	x
		18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08.01	아단문고	○
		19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09.01	아단문고	○
		20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11.01	연세대학교	○
		21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12.15	연세대학교	○
		22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6.01.01	연세대학교	○
		중간호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6.03.01	연세대학교	○
18	中央	창간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3.11.01	국립중앙도서관	○
		2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3.12.01	국립중앙도서관	○
		3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4.01.01	국립중앙도서관	○
		4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4.02.01	국립중앙도서관	○
		5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4.03.01	국립중앙도서관	○
		6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4.04.01	국립중앙도서관	○
		7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4.05.01	국립중앙도서관	○
		8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4.06.01	국립중앙도서관	○
		9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4.07.01	국립중앙도서관	○
		10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4.08.01	국립중앙도서관	○
		11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4.09.01	국립중앙도서관	○
		12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4.10.01	국립중앙도서관	○
		13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4.11.01	국립중앙도서관	○
		14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4.12.01	국립중앙도서관	○
		15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5.01.01	국립중앙도서관	○
		16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5.02.01	국립중앙도서관	○
		17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5.03.01	국립중앙도서관	○
		18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5.04.01	국립중앙도서관	○
		19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5.05.01	국립중앙도서관	○
		20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5.06.01	국립중앙도서관	○
		21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5.07.01	고려대학교	x
		22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5.08.01	국립중앙도서관	x
		23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6.01.01	국립중앙도서관	○
		24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6.02.01	국립중앙도서관	○
		25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6.03.01	국립중앙도서관	○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26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6.04.01	국립중앙도서관	○
		27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6.05.01	국립중앙도서관	○
		28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6.06.01	국립중앙도서관	○
		29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6.07.01	국립중앙도서관	○
		30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6.08.01	국립중앙도서관	○
		종간호	경성: 조선중앙일보사	1936.09.01	국립중앙도서관	○
19	文學	창간호	경성: 시문학사	1933.12.25	국립중앙도서관	○
		2호	경성: 시문학사	1934.02.01	국립중앙도서관	○
		종간호	경성: 시문학사	1934.04.01	국립중앙도서관	○
20	形象	창간호	경성: 신흥문화사	1934.02.06	국립중앙도서관	○
		종간호	경성: 신흥문화사	1934.03.15	국립중앙도서관	○
21	劇藝術	창간호	경성: 극예술연구회	1934.04.18	고려대학교	○
		2호	경성: 극예술연구회	1934.12.07	고려대학교	○
		3호	—	—	미확인	×
		4호	경성: 극예술연구회	1936.05.29	아단문고	○
		종간호	경성: 극예술연구회	1936.09.29	고려대학교	○
22	新人文學	창간호	경성: 청조사	1934.07.09	국립중앙도서관	○
		1권 2호	경성: 청조사	1934.09.1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3호	경성: 청조사	1934.11.18	국립중앙도서관	○
		2권 1호	경성: 청조사	1935.01.03	국립중앙도서관	×
		2권 2호	경성: 청조사	1935.02.15	국립중앙도서관	○
		2권 3호	경성: 청조사	1935.04.03	국립중앙도서관	○
		2권 4호	경성: 청조사	1935.06.02	국립중앙도서관	○
		2권 5호	—	—	미확인	×
		2권 6호	경성: 청조사	1935.07.20	국립중앙도서관	○
		2권 7호	경성: 청조사	1935.09.20	국립중앙도서관	○
		2권 8호	경성: 청조사	1935.11.15	국립중앙도서관	○
		3권 1호	경성: 청조사	1936.01.10	국립중앙도서관	○
		3월호	경성: 청조사	1936.02.18	국립중앙도서관	○
		8월호	경성: 청조사	1936.08.01	국립중앙도서관	○
		종간호	경성: 청조사	1936.10.01	국립중앙도서관	○
	23	三四文學	창간호	경성: 삼사문학사	1934.09.01	아단문고
		2호	경성: 삼사문학사	1934.12.01	아단문고	○
		3호	경성: 삼사문학사	1935.03.01	아단문고	○
		4호	경성: 삼사문학사	1935.08.01	국회도서관	○
		종간호	경성: 삼사문학사	1936.10.01	개인 소장	×
24	藝術	창간호	경성: 예술사	1934.12.10	서울대학교	○
		2호	경성: 예술사	1935.04.01	서울대학교	○
		3호	경성: 예술사	1935.07.01	서울대학교	○
		종간호	경성: 예술사	1936.01.01	서울대학교	○
25	詩苑	창간호	경성: 시원사	1935.02.01	아단문고	○
		2호	경성: 시원사	1935.04.01	아단문고	○
		3호	경성: 시원사	1935.05.03	아단문고	○
		4호	경성: 시원사	1935.08.03	아단문고	○
		종간호	경성: 시원사	1935.12.03	아단문고	○
26	四海公論	창간호	경성: 사해공문사	1935.05.01	국립중앙도서관	○

186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1권 2호	경성:사해공론사	1935.06.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3호	경성:사해공론사	1935.07.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4호	경성:사해공론사	1935.08.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5호	경성:사해공론사	1935.09.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6호	경성:사해공론사	1935.10.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7호	경성:사해공론사	1935.11.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8호	경성:사해공론사	1935.12.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1호	경성:사해공론사	1936.01.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2호	경성:사해공론사	1936.02.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3호	경성:사해공론사	1936.03.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4호	경성:사해공론사	1936.04.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5호	경성:사해공론사	1936.05.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6호	경성:사해공론사	1936.06.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7호	경성:사해공론사	1936.07.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8호	경성:사해공론사	1936.08.01	국립중앙도서관	x
		2권 9호	경성:사해공론사	1936.09.01	국립중앙도서관	x
		2권 10호	경성:사해공론사	1936.10.01	국립중앙도서관	x
		2권 11호	경성:사해공론사	1936.11.01	국립중앙도서관	x
		2권 12호	경성:사해공론사	1936.12.01	국립중앙도서관	x
		3권 1호	경성:사해공론사	1937.01.01	국립중앙도서관	○
		3권 2호	경성:사해공론사	1937.02.01	국립중앙도서관	○
		3권 3호	경성:사해공론사	1937.03.01	국립중앙도서관	x
		3권 4호	경성:사해공론사	1937.04.01	국립중앙도서관	x
		3권 5호	경성:사해공론사	1937.05.01	국립중앙도서관	○
		3권 6호	경성:사해공론사	1937.06.01	국립중앙도서관	○
		3권 7호	경성:사해공론사	1937.07.01	국립중앙도서관	○
		3권 8호	경성:사해공론사	1937.08.01	국립중앙도서관	x
		3권 9호	경성:사해공론사	1937.09.01	국립중앙도서관	○
		3권 10호	경성:사해공론사	1937.10.01	국립중앙도서관	○
		3권 11호	경성:사해공론사	1937.11.01	국립중앙도서관	○
		3권 12호	경성:사해공론사	1937.12.01	국립중앙도서관	○
		4권 1호	경성:사해공론사	1938.01.01	연세대학교	x
		4권 2호~3호	—	—	미확인	x
		4권 4호	경성:사해공론사	1938.04.01	국립중앙도서관	x
		4권 5호	경성:사해공론사	1938.05.01	국립중앙도서관	○
		4권 6호	경성:사해공론사	1938.06.01	국립중앙도서관	○
		4권 7호	경성:사해공론사	1938.07.01	국립중앙도서관	○
		4권 8호	경성:사해공론사	1938.08.01	국립중앙도서관	○
		4권 9호	경성:사해공론사	1938.09.01	고려대학교	○
		4권 10호	경성:사해공론사	1938.10.01	고려대학교	○
	4권 11호	—	—	미확인	x	
	4권 12호	경성:사해공론사	1938.12.01	연세대학교	x	
	5권 1호	경성:사해공론사	1939.01.01	국립중앙도서관	x	
	5권 2호	경성:사해공론사	1939.02.01	국립중앙도서관	x	
	5권 3호	경성:사해공론사	1939.03.01	국립중앙도서관	x	
	5권 4호	경성:사해공론사	1939.04.01	국립중앙도서관	○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8권 12호	경성:조광사	1942.12.01	국립중앙도서관	○	
		9권 1호	경성:조광사	1943.01.01	아단문고	○	
		9권 2호	경성:조광사	1943.02.01	아단문고	○	
		9권 3호	경성:조광사	1943.03.01	아단문고	○	
		9권 4호	경성:조광사	1943.04.01	아단문고	○	
		9권 5호	경성:조광사	1943.05.01	아단문고	○	
		9권 6호	경성:조광사	1943.06.01	아단문고	○	
		9권 7호	경성:조광사	1943.07.01	아단문고	○	
		9권 8호	경성:조광사	1943.08.01	아단문고	○	
		9권 9호	경성:조광사	1943.09.01	아단문고	○	
		9권 10호	경성:조광사	1943.10.01	아단문고	○	
		9권 11호	경성:조광사	1943.11.01	아단문고	○	
		9권 12호	경성:조광사	1943.12.01	아단문고	○	
		10권 1호	경성:조광사	1944.01.01	아단문고	○	
		10권 2호	경성:조광사	1944.02.01	아단문고	○	
		10권 3호	경성:조광사	1944.03.01	아단문고	○	
		10권 4호	경성:조광사	1944.04.01	아단문고	○	
		10권 5호	경성:조광사	1944.05.01	아단문고	○	
		10권 6호	경성:조광사	1944.06.01	아단문고	○	
		10권 7호	경성:조광사	1944.07.01	아단문고	○	
		10권 8호	경성:조광사	1944.08.01	아단문고	○	
		10권 9호	경성:조광사	1944.09.01	아단문고	○	
		10권 10호	경성:조광사	1944.10.01	아단문고	x	
		10권 11호	경성:조광사	1944.11.01	아단문고	○	
		10권 12호	경성:조광사	1944.12.01	연세대학교	○	
		11권1호~3호	—	—	미확인	x	
		11권 4호	경성:조광사	1945.04.01	연세대학교	x	
		종간호	경성:조광사	1945.06.01	국회도서관	x	
	28	綠旗	창간호	경성:녹기연맹	1936.01.01	국립중앙도서관	x
			2호	경성:녹기연맹	1936.02.10	국립중앙도서관	x
		3호	경성:녹기연맹	1936.03.10	국립중앙도서관	x	
		4호	경성:녹기연맹	1936.04.10	국립중앙도서관	x	
		5호	경성:녹기연맹	1936.05.01	국립중앙도서관	x	
		6호	경성:녹기연맹	1936.06.01	국립중앙도서관	x	
		7호	경성:녹기연맹	1936.07.01	국립중앙도서관	x	
		8호	경성:녹기연맹	1936.08.01	국립중앙도서관	x	
		9호	경성:녹기연맹	1936.09.01	국립중앙도서관	x	
		10호	경성:녹기연맹	1936.10.01	국립중앙도서관	x	
		11호	경성:녹기연맹	1936.11.30	국립중앙도서관	x	
		12호	경성:녹기연맹	1937.01.01	국립중앙도서관	x	
		13호	경성:녹기연맹	1937.02.01	국립중앙도서관	x	
		14호	경성:녹기연맹	1937.03.01	국립중앙도서관	x	
		15호	경성:녹기연맹	1937.04.01	국립중앙도서관	x	
		16호	경성:녹기연맹	1937.05.01	국립중앙도서관	x	
		17호	경성:녹기연맹	1937.06.01	국립중앙도서관	x	
		18호	경성:녹기연맹	1937.07.01	국립중앙도서관	x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19호	경성: 녹기연맹	1937.08.01	국립중앙도서관	x
		20호	경성: 녹기연맹	1937.09.01	국립중앙도서관	x
		21호	경성: 녹기연맹	1937.10.01	국립중앙도서관	x
		22호	경성: 녹기연맹	1937.11.01	국립중앙도서관	x
		23호	경성: 녹기연맹	1938.01.01	국립중앙도서관	x
		24호	경성: 녹기연맹	1938.02.01	국립중앙도서관	x
		25호	경성: 녹기연맹	1938.03.01	국립중앙도서관	x
		26호	경성: 녹기연맹	1938.04.01	국립중앙도서관	x
		27호	경성: 녹기연맹	1938.05.01	국립중앙도서관	x
		28호	경성: 녹기연맹	1938.06.01	국립중앙도서관	x
		29호	경성: 녹기연맹	1938.07.01	국립중앙도서관	x
		30호	경성: 녹기연맹	1938.08.01	국립중앙도서관	x
		31호	경성: 녹기연맹	1938.09.01	국립중앙도서관	x
		32호	경성: 녹기연맹	1938.10.01	국립중앙도서관	x
		33호	경성: 녹기연맹	1938.11.01	국립중앙도서관	x
		34호	경성: 녹기연맹	1938.12.01	국립중앙도서관	x
		35호	경성: 녹기연맹	1939.01.01	국립중앙도서관	x
		36호	경성: 녹기연맹	1939.02.01	국립중앙도서관	x
		37호	경성: 녹기연맹	1939.03.01	국립중앙도서관	x
		38호	경성: 녹기연맹	1939.04.01	국립중앙도서관	x
		39호	경성: 녹기연맹	1939.05.01	국립중앙도서관	x
		40호	경성: 녹기연맹	1939.06.01	국립중앙도서관	x
		41호	경성: 녹기연맹	1939.07.01	국립중앙도서관	x
		42호	경성: 녹기연맹	1939.08.01	국립중앙도서관	x
		43호	경성: 녹기연맹	1939.09.01	국립중앙도서관	x
		44호	경성: 녹기연맹	1939.10.01	국립중앙도서관	x
		45호	경성: 녹기연맹	1939.11.01	국립중앙도서관	x
		46호	경성: 녹기연맹	1939.12.01	국립중앙도서관	x
		47호	경성: 녹기연맹	1940.01.01	국립중앙도서관	x
		48호	경성: 녹기연맹	1940.02.01	국립중앙도서관	x
		49호	경성: 녹기연맹	1940.03.01	국립중앙도서관	x
		50호	경성: 녹기연맹	1940.04.01	국립중앙도서관	x
	51호	경성: 녹기연맹	1940.05.01	국립중앙도서관	x	
	52호	경성: 녹기연맹	1940.06.01	국립중앙도서관	x	
	53호	경성: 녹기연맹	1940.07.01	국립중앙도서관	x	
	54호	경성: 녹기연맹	1940.08.01	국립중앙도서관	x	
	55호	경성: 녹기연맹	1940.09.01	국립중앙도서관	x	
	56호	경성: 녹기연맹	1940.10.01	국립중앙도서관	x	
	57호	경성: 녹기연맹	1940.11.01	국립중앙도서관	x	
	58호	경성: 녹기연맹	1940.12.01	국립중앙도서관	x	
	59호	경성: 녹기연맹	1941.01.01	국립중앙도서관	x	
	60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1.02.01	국립중앙도서관	x	
	61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1.03.01	국립중앙도서관	x	
	62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1.04.01	국립중앙도서관	x	
	63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1.05.01	국립중앙도서관	x	
	64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1.06.01	국립중앙도서관	x	

목
 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65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1.07.01	국립중앙도서관	x
		66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1.08.01	국립중앙도서관	x
		67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1.09.01	국립중앙도서관	x
		68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1.10.01	국립중앙도서관	x
		69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1.11.01	국립중앙도서관	x
		70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1.12.01	국립중앙도서관	x
		71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2.01.01	국립중앙도서관	x
		72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2.02.01	국립중앙도서관	x
		73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2.03.01	국립중앙도서관	x
		74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2.04.01	국립중앙도서관	x
		75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2.05.01	국립중앙도서관	x
		76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2.06.01	국립중앙도서관	x
		77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2.07.01	국립중앙도서관	x
		78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2.08.01	국립중앙도서관	x
		79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2.09.01	국립중앙도서관	x
		80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2.10.01	국립중앙도서관	x
		81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2.11.01	국립중앙도서관	x
		82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2.12.01	국립중앙도서관	x
		83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3.01.01	아단문고	o
		84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3.02.01	미확인	o
		85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3.03.01	아단문고	o
		86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3.04.01	미확인	o
		87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3.05.01	미확인	o
		88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3.06.01	미확인	o
		89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3.07.01	미확인	o
		90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3.08.01	미확인	o
		91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3.09.01	아단문고	o
		92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3.10.01	미확인	o
		93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3.11.01	미확인	o
		94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3.12.01	미확인	o
		95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4.01.01	미확인	o
		종간호	경성: 흥아문화출판주식회사	1944.02.01	미확인	o
29	詩와 小說	창간/종간호	경성: 창문사출판부	1936.03.13	연세대학교	o
30	女性	창간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6.04.01	국립중앙도서관	o
		2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6.05.01	국립중앙도서관	o
		3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6.06.01	국립중앙도서관	o
		4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6.07.01	국립중앙도서관	o
		5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6.08.01	국립중앙도서관	o
		6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6.09.01	국립중앙도서관	o
		7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6.10.01	국립중앙도서관	o
		8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6.11.01	국립중앙도서관	x
		9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6.12.01	국립중앙도서관	o
		10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01.01	국립중앙도서관	o
		11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02.01	국립중앙도서관	o
		12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03.01	국립중앙도서관	x
		13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04.01	국립중앙도서관	o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14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05.01	국립중앙도서관	o
		15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06.01	국립중앙도서관	o
		16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07.01	국립중앙도서관	o
		17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08.01	국립중앙도서관	o
		18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09.01	국립중앙도서관	o
		19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10.01	국립중앙도서관	o
		20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11.01	국립중앙도서관	o
		21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12.01	국립중앙도서관	x
		22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01.01	국립중앙도서관	o
		23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02.01	국립중앙도서관	o
		24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03.01	국립중앙도서관	o
		25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04.01	국립중앙도서관	x
		26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05.01	국립중앙도서관	o
		27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06.01	국립중앙도서관	x
		28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07.01	국립중앙도서관	o
		29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08.01	국립중앙도서관	o
		30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09.01	국립중앙도서관	o
		31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10.01	국립중앙도서관	o
		32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11.01	국립중앙도서관	o
		33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12.01	국립중앙도서관	o
		34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1.01	국립중앙도서관	o
		35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2.01	국립중앙도서관	o
		36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3.01	국립중앙도서관	o
		37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4.01	국립중앙도서관	o
		38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5.01	국립중앙도서관	o
		39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6.01	국립중앙도서관	o
		40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7.01	국립중앙도서관	o
		41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8.01	국립중앙도서관	x
		42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9.01	국립중앙도서관	x
		43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10.01	국립중앙도서관	o
		44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11.01	국립중앙도서관	o
		45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12.01	국립중앙도서관	o
		46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01.01	국립중앙도서관	o
		47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02.01	국립중앙도서관	o
		48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03.01	국립중앙도서관	x
		49호	경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04.01	국립중앙도서관	o
		50호	경성: 조광사	1940.05.01	국립중앙도서관	o
		51호	경성: 조광사	1940.06.01	국립중앙도서관	o
		52호	경성: 조광사	1940.07.01	국립중앙도서관	o
		53호	경성: 조광사	1940.08.01	국립중앙도서관	o
		54호	경성: 조광사	1940.09.01	국립중앙도서관	o
		55호	경성: 조광사	1940.10.01	국립중앙도서관	o
		56호	경성: 조광사	1940.11.01	국립중앙도서관	o
		종간호	경성: 조광사	1940.12.01	국립중앙도서관	o
31	詩建設	창간호	중강진: 시간설사	1936.11.05	국립중앙도서관	x
		2호	중강진: 시간설사	1937.09.01	국립중앙도서관	x

목
 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3호	중강진 : 시건설사	1937.12.30	국립중앙도서관	x
		4호	중강진 : 시건설사	1938.06.10	국립중앙도서관	x
		5호	중강진 : 시건설사	1938.08.25	국립중앙도서관	o
		6호	중강진 : 시건설사	1938.12.30	아단문고	o
		7호	중강진 : 시건설사	1939.10.30	국립중앙도서관	o
		중간호	중강진 : 시건설사	1940.06.00	미확인	x
32	詩人部落	창간호	경성 : 시인부락사	1936.11.14	연세대학교	o
		중간호	경성 : 시인부락사	1936.12.31	아단문고	o
33	幕	창간호	동경 : 동경학생예술좌	1936.12.01	연세대학교	o
		2호	동경 : 동경학생예술좌	1938.03.05	연세대학교	o
		중간호	동경 : 동경학생예술좌	1939.06.05	연세대학교	o
34	風林	창간호	경성 : 풍림사	1936.12.01	연세대학교	o
		2호	경성 : 풍림사	1937.01.01	아단문고	o
		3호	경성 : 풍림사	1937.02.06	아단문고	o
		4호	—	—	미확인	x
		5호	경성 : 풍림사	1937.04.01	아단문고	o
		중간호	경성 : 풍림사	1937.05.01	이주홍문학관	o
35	白光	창간호	경성 : 백광사	1937.01.01	국립중앙도서관	o
		2호	경성 : 백광사	1937.02.01	국립중앙도서관	x
		3/4호	경성 : 백광사	1937.03.28	국립중앙도서관	o
		5호	경성 : 백광사	1937.05.04	국립중앙도서관	o
		중간호	경성 : 백광사	1937.06.01	국립중앙도서관	o
36	少年	창간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04.01	고려대학교	x
		2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05.01	고려대학교	x
		3호	—	—	미확인	x
		4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07.01	고려대학교	x
		5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08.01	고려대학교	x
		6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09.01	고려대학교	x
		7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10.01	고려대학교	x
		8호	—	—	미확인	x
		9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12.01	고려대학교	x
		10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01.01	고려대학교	x
		11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02.01	고려대학교	x
		12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03.01	고려대학교	x
		13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04.01	연세대학교	x
		14호	—	—	미확인	x
		15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06.01	고려대학교	x
		16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07.01	연세대학교	x
		17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08.01	고려대학교	x
		18호	—	—	미확인	x
		19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10.01	고려대학교	x
		20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11.01	고려대학교	x
		21호	—	—	미확인	x
		22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1.01	고려대학교	x
		23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2.01	고려대학교	x
		24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3.01	고려대학교	x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25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4.01	고려대학교	x
		26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5.01	고려대학교	x
		27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6.01	고려대학교	x
		28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7.01	고려대학교	x
		29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8.01	고려대학교	x
		30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09.01	국립중앙도서관	x
		31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10.01	고려대학교	x
		32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11.01	고려대학교	x
		33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12.01	고려대학교	x
		34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01.01	고려대학교	x
		35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02.01	고려대학교	x
		36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03.01	고려대학교	x
		37호	경성 :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04.01	연세대학교	x
		38호	경성 : 조광사	1940.05.01	연세대학교	x
		39호	경성 : 조광사	1940.06.01	연세대학교	x
		40호	경성 : 조광사	1940.07.01	연세대학교	x
		41호	경성 : 조광사	1940.08.01	연세대학교	x
		42호	경성 : 조광사	1940.09.01	고려대학교	x
		43호	경성 : 조광사	1940.10.01	고려대학교	x
		44호	경성 : 조광사	1940.11.01	고려대학교	x
		중간호	경성 : 조광사	1940.12.01	고려대학교	x
37	斷層	창간호	경성 : 단층사	1937.04.22	아단문고	o
		2호	경성 : 단층사	1937.09.07	연세대학교	o
		3호	경성 : 단층사	1938.03.03	아단문고	o
		중간호	경성 : 박문서관	1940.06.25	고려대학교	x
38	子午線	창간/중간호	경성 : 자오선사	1937.11.10	아단문고	o
39	靑色紙	창간호	경성 : 청색지사	1938.06.03	고려대학교	o
		2호	경성 : 청색지사	1938.08.03	고려대학교	o
		3호	경성 : 청색지사	1938.11.20	고려대학교	o
		4호	—	—	개인 소장	x
		5호	경성 : 청색지사	1939.05.15	고려대학교	o
		6호	경성 : 청색지사	1939.09.18	고려대학교	x
		7호	경성 : 청색지사	1939.12.01	고려대학교	o
		중간호	경성 : 청색지사	1940.02.15	아단문고	x
40	獏	창간호	경성 : 맥사	1938.06.15	연세대학교	o
		2호	—	—	미확인	x
		3호	경성 : 맥사	1938.10.30	아단문고	o
		4호	경성 : 맥사	1938.12.29	아단문고	o
		5호	경성 : 맥사	1939.05.01	고려대학교	x
		중간호	경성 : 맥사	1939.11.11	개인 소장	x
41	博文	창간호	경성 : 박문서관	1938.10.01	고려대학교	o
		2호	경성 : 박문서관	1938.11.01	아단문고	o
		3호	경성 : 박문서관	1938.12.01	고려대학교	o
		4호	경성 : 박문서관	1939.01.01	고려대학교	o
		5호	경성 : 박문서관	1939.02.01	고려대학교	o
		6호	경성 : 박문서관	1939.03.01	고려대학교	o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7호	경성:박문서관	1939.05.01	아단문고	○	
		8호	경성:박문서관	1939.06.01	고려대학교	○	
		9호	경성:박문서관	1939.07.01	고려대학교	○	
		10호	경성:박문서관	1939.08.01	아단문고	○	
		11호	경성:박문서관	1939.09.01	아단문고	○	
		12호	경성:박문서관	1939.10.01	고려대학교	○	
		13호	경성:박문서관	1939.12.01	고려대학교	○	
		14호	경성:박문서관	1940.01.01	고려대학교	○	
		15호	경성:박문서관	1940.02.01	고려대학교	○	
		16호	경성:박문서관	1940.03.01	고려대학교	○	
		17호	경성:박문서관	1940.04.01	고려대학교	○	
		18호	경성:박문서관	1940.06.01	고려대학교	○	
		19호	경성:박문서관	1940.07.01	고려대학교	○	
		20호	경성:박문서관	1940.09.01	고려대학교	○	
		21호	경성:박문서관	1940.10.01	고려대학교	○	
		22호	경성:박문서관	1940.12.01	고려대학교	○	
		중간호	경성:박문서관	1941.01.01	고려대학교	○	
	42	新世紀	창간호	경성:신세기사	1939.01.01	아단문고	×
			1권 2호	경성:신세기사	1939.02.01	아단문고	×
		1권 3호	경성:신세기사	1939.03.01	연세대학교	×	
		1권 4호	경성:신세기사	1939.04.01	연세대학교	×	
		1권 5호	경성:신세기사	1939.06.01	아단문고	×	
		1권 6호	경성:신세기사	1939.08.01	고려대학교	×	
		1권 7호	경성:신세기사	1939.09.01	아단문고	×	
		1권 8호	경성:신세기사	1939.10.01	아단문고	×	
		1권 9호	경성:신세기사	1939.11.01	아단문고	×	
		1권 10호	경성:신세기사	1939.12.01	아단문고	×	
		2권 1호	경성:신세기사	1940.01.01	연세대학교	×	
		2권 2호	경성:신세기사	1940.02.00	미확인	×	
		2권 3호	경성:신세기사	1940.03.01	고려대학교	×	
		2권 4호	경성:신세기사	1940.04.01	고려대학교	×	
		2권 5호	경성:신세기사	1940.11.01	고려대학교	×	
		3권 1호	경성:신세기사	1941.01.01	고려대학교	×	
		3권 2호	경성:신세기사	1941.04.01	고려대학교	×	
		중간호	경성:신세기사	1941.06.01	고려대학교	×	
43		東洋之光	창간호	경성:동양지광사	1939.01.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2호	경성:동양지광사	1939.02.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3호	경성:동양지광사	1939.03.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4호	경성:동양지광사	1939.04.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5호	경성:동양지광사	1939.05.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6호	경성:동양지광사	1939.06.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7호	경성:동양지광사	1939.07.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8호	경성:동양지광사	1939.08.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9호	경성:동양지광사	1939.09.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10호	경성:동양지광사	1939.10.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11호	경성:동양지광사	1939.11.01	국립중앙도서관	○	

196

연번	집지명	권호	발행(발행지: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2권 1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0.01.01	고려대학교	○
		2권2호~3권11호	—	—	미확인	x
		3권 12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1.12.01	고려대학교	○
		4권 1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2.01.01	고려대학교	○
		4권 2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2.02.01	고려대학교	○
		4권 3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2.03.01	고려대학교	○
		4권 4호	—	—	미확인	x
		4권 5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2.04.01	고려대학교	○
		4권 6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2.06.01	고려대학교	○
		4권 7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2.07.01	국립중앙도서관	○
		4권 8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2.08.01	이단문고	○
		4권 9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2.10.01	고려대학교	○
		4권 10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2.11.01	고려대학교	○
		4권 11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2.12.01	고려대학교	○
		5권 1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3.01.01	고려대학교	○
		5권 2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3.03.01	고려대학교	○
		5권 3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3.04.01	고려대학교	○
		5권 4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3.05.01	고려대학교	○
		5권 5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3.06.01	고려대학교	○
		5권 6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3.07.01	고려대학교	○
		5권 7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3.08.01	고려대학교	○
		5권 8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3.09.01	고려대학교	○
		5권 9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3.11.01	고려대학교	○
		5권 10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3.12.01	고려대학교	○
		6권 1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4.01.01	고려대학교	○
		6권 2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4.02.01	고려대학교	○
		6권 3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4.03.01	고려대학교	○
		6권 4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4.04.01	고려대학교	○
		6권 5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4.05.01	고려대학교	○
		6권 6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4.06.01	고려대학교	○
		6권 7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4.07.01	고려대학교	○
		6권 8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4.08.01	고려대학교	○
		6권 9/10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4.10.01	고려대학교	○
		6권 11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4.11.01	고려대학교	○
	7권 1호	경성: 동양지광사	1945.01.01	고려대학교	○	
	7권2호~종간호	—	—	미확인	x	
44	文章	창간호	경성: 문장사	1939.02.01	국립중앙도서관	○
		2호	경성: 문장사	1939.03.01	국립중앙도서관	○
		3호	경성: 문장사	1939.04.01	국립중앙도서관	○
		4호	경성: 문장사	1939.05.01	국립중앙도서관	○
		5호	경성: 문장사	1939.06.01	국립중앙도서관	○
		6호	경성: 문장사	1939.07.01	국립중앙도서관	○
		임시종대호	경성: 문장사	1939.07.10	국립중앙도서관	○
		7호	경성: 문장사	1939.08.01	국립중앙도서관	○
		8호	경성: 문장사	1939.09.01	국립중앙도서관	○
		9호	경성: 문장사	1939.10.01	국립중앙도서관	○

목
 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10호	경성: 문장사	1939.11.01	국립중앙도서관	○
		11호	경성: 문장사	1939.12.01	국립중앙도서관	○
		12호	경성: 문장사	1940.01.01	국립중앙도서관	○
		13호	경성: 문장사	1940.02.01	국립중앙도서관	○
		14호	경성: 문장사	1940.03.01	국립중앙도서관	○
		15호	경성: 문장사	1940.04.01	국립중앙도서관	○
		16호	경성: 문장사	1940.05.01	국립중앙도서관	○
		17호	경성: 문장사	1940.07.01	국립중앙도서관	○
		18호	경성: 문장사	1940.09.01	국립중앙도서관	○
		19호	경성: 문장사	1940.10.01	국립중앙도서관	○
		20호	경성: 문장사	1940.11.01	국립중앙도서관	○
		21호	경성: 문장사	1940.12.01	국립중앙도서관	○
		22호	경성: 문장사	1941.01.01	국립중앙도서관	○
		23호	경성: 문장사	1941.02.01	국립중앙도서관	○
		24호	경성: 문장사	1941.03.01	국립중앙도서관	○
		25호	경성: 문장사	1941.04.01	국립중앙도서관	○
		중간호	경성: 문장사	1948.10.15	국립중앙도서관	x
45	詩學	창간호	경성: 시학사	1939.03.12	고려대학교	○
		2호	경성: 시학사	1939.05.20	국립중앙도서관	○
		3호	—	—	미확인	x
		중간호	경성: 시학사	1939.10.28	국립중앙도서관	○
46	總動員	창간호	경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39.06.04	국립중앙도서관	x
		1권 2호	경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39.07.07	국립중앙도서관	x
		1권 3호	경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39.08.07	국립중앙도서관	x
		1권 4호	경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39.09.07	국립중앙도서관	x
		1권 5호	경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39.10.07	국립중앙도서관	x
		1권 6호	경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39.11.07	국립중앙도서관	x
		1권 7호	경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39.12.07	국립중앙도서관	x
		2권 1호	경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40.01.07	국립중앙도서관	x
		2권 2호	경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40.02.07	국립중앙도서관	x
		2권 3호	경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40.03.07	국립중앙도서관	x
		2권 4호	경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40.04.07	국립중앙도서관	x
		2권 5호	경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40.05.07	국립중앙도서관	x
		2권 6호	경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40.06.07	국립중앙도서관	x
		2권 7호	경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40.07.07	국립중앙도서관	x
		2권 8호	경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40.08.07	국립중앙도서관	x
		2권 9호	경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40.09.07	국립중앙도서관	x
		중간호	경성: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40.10.07	국립중앙도서관	x
47	人文評論	창간호	경성: 인문사	1939.10.01	국립중앙도서관	○
		2호	경성: 인문사	1939.11.01	국립중앙도서관	○
		3호	경성: 인문사	1939.12.01	국립중앙도서관	○
		4호	경성: 인문사	1940.01.01	국립중앙도서관	○
		5호	경성: 인문사	1940.02.01	국립중앙도서관	○
		6호	경성: 인문사	1940.03.01	국립중앙도서관	○
		7호	경성: 인문사	1940.04.01	국립중앙도서관	○
		8호	경성: 인문사	1940.05.01	국립중앙도서관	○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9호	경성: 인문사	1940.06.01	국립중앙도서관	○
		10호	경성: 인문사	1940.07.01	국립중앙도서관	○
		11호	경성: 인문사	1940.08.01	국립중앙도서관	○
		12호	경성: 인문사	1940.10.01	국립중앙도서관	○
		13호	경성: 인문사	1940.11.01	국립중앙도서관	○
		14호	경성: 인문사	1941.01.01	국립중앙도서관	○
		15호	경성: 인문사	1941.02.01	국립중앙도서관	○
		중간호	경성: 인문사	1941.04.01	국립중앙도서관	○
48	新時代	창간호	경성: 신시대사	1941.01.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2호	경성: 신시대사	1941.02.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3호	경성: 신시대사	1941.03.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4호	경성: 신시대사	1941.04.01	국립중앙도서관	x
		1권 5호	경성: 신시대사	1941.05.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6호	경성: 신시대사	1941.06.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7호	경성: 신시대사	1941.07.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8호	경성: 신시대사	1941.08.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9호	경성: 신시대사	1941.09.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10호	경성: 신시대사	1941.10.01	국립중앙도서관	○
		1권 11호	경성: 신시대사	1941.11.01	국립중앙도서관	x
		1권 12호	경성: 신시대사	1941.12.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1호	경성: 신시대사	1942.01.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2호	경성: 신시대사	1942.02.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3호	경성: 신시대사	1942.03.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4호	경성: 신시대사	1942.04.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5호	경성: 신시대사	1942.05.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6호	경성: 신시대사	1942.06.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7호	경성: 신시대사	1942.07.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8호	경성: 신시대사	1942.08.01	국립중앙도서관	○
		2권 9호	경성: 신시대사	1942.09.01	고려대학교	○
		2권 10호	경성: 신시대사	1942.10.01	고려대학교	○
		2권 11호	경성: 신시대사	1942.11.01	고려대학교	○
		2권 12호	경성: 신시대사	1942.12.01	고려대학교	○
		3권 1호	경성: 신시대사	1943.01.01	고려대학교	○
		3권 2호	경성: 신시대사	1943.02.01	고려대학교	○
		3권 3호	경성: 신시대사	1943.03.01	고려대학교	○
		3권 4호	경성: 신시대사	1943.04.01	고려대학교	○
		3권 5호	경성: 신시대사	1943.05.01	고려대학교	○
		3권 6호	경성: 신시대사	1943.06.01	고려대학교	○
		3권 7호	경성: 신시대사	1943.07.01	고려대학교	○
		3권 8호	경성: 신시대사	1943.08.01	고려대학교	○
		3권 9호	경성: 신시대사	1943.09.01	고려대학교	○
		3권 10호	경성: 신시대사	1943.10.01	고려대학교	○
		3권 11호	—	—	미확인	x
		3권 12호	경성: 신시대사	1943.12.01	고려대학교	○
		4권 1호	경성: 신시대사	1944.01.01	고려대학교	○
		4권 2호	경성: 신시대사	1944.02.01	고려대학교	○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4권 3호	경성: 신시대사	1944.03.01	고려대학교	○
		4권 4호	경성: 신시대사	1944.04.01	고려대학교	○
		4권 5호	경성: 신시대사	1944.05.01	고려대학교	○
		4권 6호	경성: 신시대사	1944.06.01	고려대학교	○
		4권 7호	경성: 신시대사	1944.07.01	고려대학교	○
		4권 8호	경성: 신시대사	1944.08.01	고려대학교	○
		4권 9호	경성: 신시대사	1944.09.01	고려대학교	○
		4권 10호	경성: 신시대사	1944.10.01	고려대학교	○
		4권 11호	경성: 신시대사	1944.11.01	고려대학교	○
		4권 12호	경성: 신시대사	1944.12.01	고려대학교	○
		5권 1호	경성: 신시대사	1945.01.01	고려대학교	○
		5권 2호	경성: 신시대사	1945.02.01	고려대학교	○
		5권 3호	경성: 신시대사	1945.03.01	아단문고	x
		종간호	경성: 신시대사	1945.04.01	아단문고	x
	49	春秋	창간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1.02.01	국립중앙도서관
		2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1.03.01	국립중앙도서관	○
		3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1.04.01	국립중앙도서관	○
		4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1.05.01	국립중앙도서관	○
		5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1.06.01	국립중앙도서관	○
		6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1.07.01	국립중앙도서관	○
		7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1.08.01	국립중앙도서관	○
		8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1.09.01	국립중앙도서관	○
		9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1.10.01	국립중앙도서관	○
		10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1.11.01	국립중앙도서관	○
		11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1.12.01	국립중앙도서관	○
		12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2.01.01	국립중앙도서관	○
		13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2.02.01	국립중앙도서관	○
		14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2.03.01	국립중앙도서관	○
		15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2.04.01	국립중앙도서관	○
		16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2.05.01	국립중앙도서관	○
		17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2.06.01	국립중앙도서관	○
		18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2.07.01	국립중앙도서관	○
		19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2.08.01	국립중앙도서관	○
		20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2.09.01	아단문고	○
		21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2.10.01	아단문고	○
		22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2.11.01	아단문고	○
		23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2.12.01	아단문고	○
		24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3.01.01	국립중앙도서관	○
		25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3.02.01	아단문고	○
		26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3.03.01	국립중앙도서관	○
		27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3.04.01	국립중앙도서관	○
		28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3.05.01	아단문고	○
		29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3.06.01	국립중앙도서관	○
		30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3.07.01	국립중앙도서관	○
		31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3.09.01	국립중앙도서관	○
		32호	경성: 조선춘추사	1943.10.01	서강대학교	○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33호	경성:조선춘추사	1943.11.01	서강대학교	○
		34호	경성:조선춘추사	1943.12.01	서강대학교	○
		35호	경성:조선춘추사	1944.01.01	아단문고	x
		36호	경성:조선춘추사	1944.02.01	서강대학교	○
		37호	경성:조선춘추사	1944.03.01	아단문고	○
		38호	경성:조선춘추사	1944.08.01	미확인	○
		중간호	경성:조선춘추사	1944.10.01	국회도서관	○
50	國民文學	창간호	경성:인문사	1941.11.01	연세대학교	○
		2권 1호	경성:인문사	1942.01.01	연세대학교	○
		2권 2호	경성:인문사	1942.02.01	연세대학교	○
		2권 3호	경성:인문사	1942.03.01	연세대학교	○
		2권 4호	경성:인문사	1942.04.01	연세대학교	○
		2권 5호	경성:인문사	1942.06.01	서울대학교	○
		2권 6호	경성:인문사	1942.07.01	서울대학교	○
		2권 7호	경성:인문사	1942.08.01	서울대학교	○
		2권 8호	경성:인문사	1942.10.01	서울대학교	○
		2권 9호	경성:인문사	1942.11.01	서울대학교	○
		2권 10호	경성:인문사	1942.12.01	아단문고	○
		3권 1호	경성:인문사	1943.01.01	아단문고	○
		3권 2호	경성:인문사	1943.02.01	아단문고	○
		3권 3호	경성:인문사	1943.03.01	아단문고	○
		3권 4호	경성:인문사	1943.04.01	아단문고	○
		3권 5호	경성:인문사	1943.05.01	아단문고	○
		3권 6호	경성:인문사	1943.06.01	아단문고	○
		3권 7호	경성:인문사	1943.07.01	아단문고	○
		3권 8호	경성:인문사	1943.08.01	아단문고	○
		3권 9호	경성:인문사	1943.09.01	아단문고	○
		3권 10호	경성:인문사	1943.10.01	아단문고	○
		3권 11호	경성:인문사	1943.11.01	아단문고	○
		3권 12호	경성:인문사	1943.12.01	아단문고	○
		4권 1호	경성:인문사	1944.01.01	아단문고	○
		4권 2호	경성:인문사	1944.02.01	아단문고	○
		4권 3호	경성:인문사	1944.03.01	아단문고	○
		4권 4호	경성:인문사	1944.04.01	아단문고	○
		4권 5호	경성:인문사	1944.05.01	아단문고	○
		4권 6호	경성:인문사	1944.06.01	서울대학교	○
		4권 7호	경성:인문사	1944.07.01	아단문고	○
		4권 8호	경성:인문사	1944.08.01	서울대학교	○
		4권 9호	경성:인문사	1944.09.01	서울대학교	○
		4권 10호	경성:인문사	1944.10.01	서울대학교	○
		4권 11호	경성:인문사	1944.11.01	서울대학교	○
		4권 12호	경성:인문사	1944.12.01	서울대학교	○
		5권 1호	경성:인문사	1945.01.01	아단문고	○
		5권 2호	경성:인문사	1945.02.01	서울대학교	○
	5권 3호	경성:인문사	1945.03.01	고려대학교	○	
	중간호	경성:인문사	1945.05.01	고려대학교	○	

목록

연번	갑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영인본
51	大東亞	창간호	경성: 삼천리사	1942.03.01	고려대학교	○
		2호	경성: 삼천리사	1942.07.01	고려대학교	○
		중간호	경성: 삼천리사	1943.03.01	미확인	○
52	放送之友	창간호	경성: 조선방송출판협회	1943.01.00	아단문고	x
		1권 2호	경성: 조선방송출판협회	1943.04.30	아단문고	x
		1권 3호~5호	—	—	미확인	x
		1권 6호	경성: 조선방송출판협회	1943.12.01	방송사료관	x
		2권 1호	경성: 조선방송출판협회	1944.01.01	아단문고	x
		2권 2호	경성: 조선방송출판협회	1944.02.01	고려대학교	x
		2권 3호	경성: 조선방송출판협회	1944.03.01	고려대학교	x
		2권 4호	경성: 조선방송출판협회	1944.04.01	고려대학교	x
		2권 5호	경성: 조선방송출판협회	1944.05.01	방송사료관	x
		2권 6호~7호	—	—	미확인	x
		2권 8호	경성: 조선방송출판협회	1944.08.01	아단문고	x
		2권 9호	경성: 조선방송출판협회	1944.09.01	차상찬잡지기념관	x
		2권 10호~12호	—	—	미확인	x
		3권 1호	경성: 조선방송출판협회	1945.01.01	아단문고	x
		3권 2호	경성: 조선방송출판협회	1945.03.01	독립기념관	x
		중간호	경성: 조선방송출판협회	1945.05.01	차상찬잡지기념관	x

※ 목록 중 발행일 미확인 자료는 00으로 표시하였으며 원본 소장처는 대표기관 한 곳만 제시하였습니다.

※ 디지털 원문 제공처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근대문학종합목록(<http://literature.n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지명 색인

ㄱ

가톨릭청년	57
국민문학	164
극예술	72

ㄴ

녹기	96
----	----

ㄷ

단층	123
대동아	167
대조	18
동방평론	34
동양지광	143

ㄹ

막	111
맥	132
문예월간	27
문장	146
문학	66

ㅁ

박문	135
방송지우	170
백광	117
비판	24

ㄴ

사해공론	87
삼사문학	78
삼천리	11
삼천리문학	11
소년	120
시간설	105
시문학	15
시와 소설	99
시원	84
시인부락	108
시학	149
신가정	51
신계단	43
신동아	30
신세기	140
신시대	158
신인문학	75
신조선	8

ㅇ

여성	102
연극운동	37
예술	81
인문평론	155

ㅈ

자오선	126
전선	48
제일선	40
조광	90
조선문학	54
중앙	63

ㅊ

청색지	129
충동원	152
춘추	161

ㅊ

풍림	114
----	-----

ㅎ

학등	60
형상	69
해성	21

한국근대문학 해제집Ⅲ 문학잡지(1927~1943)

해제	강진호(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은하(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용찬(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서재길(국민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유석환(성균관대학교 강사)
	윤대석(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경수(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상우(고려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이원동(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정영훈(경상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정주아(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은숙(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최현식(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감수	허병식(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조남현(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발행일	2017년 12월 26일
발행인	박주환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TEL : 02-590-6236 FAX : 02-590-0584 http://www.nl.go.kr

편집·교정	김지혜, 예그림, 오지연
편집디자인	(주)디자인그룹더블유
사진	AJ Studio 박두진

© 2017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ISBN : 979-11-88800-06-3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2017035443)

본 해제집에 실린 참고문헌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